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교 육 부

롯데월드 민속관과 함께하는
한국사 + 롯데월드 패키지 프로그램

위캔한국사

서울대학교 공신
한국사검정능력시험

비법노트

2주마스터 프리미엄 한국사 비법노트

서울대공신 멘토링캠프
WE CAN CAMP

위캔한국사를 소개하며,

21세기 새로운 혁명의 시기로서 Ubiquitous로 대변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교육 역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라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재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와 지식은 어느 누구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라
공유의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취사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21세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발전이 거듭되고 있는 교육의 중심.
창의성과 진로직업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1세기 창조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창의성과 재능이
될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아이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힘써야 하며, 아이들 스스로 그 풍부함을 깨닫고,
그것이 자신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그러한 재능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한국진로개발원은 21세기 변화와 창조로 대변되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유비쿼터스 철학에 기반하여 새로운 가치와
지식의 창조에 전념을 다 할 것입니다.

이 작은 자료집이 자라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직업, 꿈을 향한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위해 노력합니다.

열정과 꿈이 있는 기업, 젊은 교육기업,
저희 한국진로개발원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한 국 진 로 개 발 원
대표이사 이 원 석

목 차

Ⅰ. 우리 역사의 형성

1. 선사시대 ····· 5
2. 고조선 ····· 10
3. 여러 나라의 성장 ····· 12

Ⅱ. 고대 사회의 발전

1. 삼국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삼국통일 ····· 13
2. 삼국의 경제, 사회, 문화 ····· 19
3. 남북국의 발전 (탑 사진) ····· 23
4. 신라 말의 상황과 후삼국의 성립 ···· 27

Ⅲ. 고려의 성립과 발전

1. 통치 체제의 정비 ····· 28
2. 고려의 지배층 ····· 32
3. 고려의 경제, 사회, 문화 ····· 37

Ⅳ. 조선의 성립과 발전

1. 통치 체제의 정비 ····· 40
2. 사림의 대두와 붕당 정치의 성립 ··· 44
3.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와 양난 ····· 46

Ⅴ. 조선 사회의 변동

1.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 ····· 47
2. 조선의 경제, 사회 변화 ····· 51
3. 조선 전기~후기의 문화 ····· 53
4. 조선 후기 문화의 새 경향 ····· 56

Ⅵ. 근대 사회의 전개

1.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 58
2. 근대적 개혁의 추진과 발발 ····· 63
3. 구국 민족 운동의 전개 ····· 71
4. 근대 문물 수용과 근대 문화 형성·· 74

Ⅶ. 민족의 독립 운동

1.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 75
2. 대한민국 임시정부 ····· 77
3. 독립운동의 전개 ····· 79
4. 민족 문화 수호 운동 ····· 84

Ⅷ. 현대사회의 발전

1. 대한민국의 수립 ····· 87
2. 민주주의 시련과 발전 ····· 92
3. 통일을 위한 노력 ····· 99

시대별로 보는 한국사 ····· 100

MEMO

Ⅰ 우리 역사의 형성

1. 선사시대

1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

· **도구** : 뗀석기(돌을 깨뜨려서 만듦)
예시) 슴베찌르개(창과 같은 종류의 무기), 주먹도끼
· **생활** : 무리생활, 이동생활 -> 주거: 동굴, 강가의 막집
tip) 이동하며 먹을거리를 얻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형태의 집에서 살지 않았음.
동굴이나 막집(간단하게 지은 집) 에서 단기적으로 살다가 또 이동했음.
· **사회** : 평등한 원시 공동체
tip) 연장자나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함
· **문화** : 동물의 뼈나 돌을 이용한 조각품-> 주술적 의미, 사냥감, 번성을 기원
· **유적지** :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tip) 지도상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은 내륙 지역에서 주로 발견됨

위캔 단원 해설

인류는 돌, 나무, 동물의 뼈를 이용하여 도구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구석기 시대는 돌을 깨뜨려서 만드는 뗀석기를 주로 이용하였다. 주먹도끼, 찌르개부터 시작하여 밀개, 찌르개 등 다양한 쓰임새를 가진 뗀석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의 뼈나 돌을 이용한 조각품도 보이는데, 이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기도 하며, 사냥과 부족의 번성을 기원했다.

구석기인들은 추위와 비바람을 피해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채집과 사냥, 물고기 잡이를 통해 먹을거리를 얻었다. 그들은 사냥을 위해서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살았다.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이동하여 새로운 공간에서 먹을거리를 얻는 이동생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형태의 집을 짓지는 않았다.

구석기인들은 연장자나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했다. 평등한 원시 공동체 생활이었다. 관련 유적지로는 평남 상원 검은 모루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등이 있다.

지도상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은 내륙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2 신석기 시대

· **도구** : 간석기(돌을 갈아서 만듦)
ex) 돌낫, 갈돌과 갈판
① 토기 : 빗살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② 원시적 수공업 : 뼈바늘, 가락바퀴
· **생활** : 농경의 시작(아직은 잡곡류) + 목축 시작 ->정착생활의 시작-> 주거: 움집
tip) 잡곡류를 중심으로 농경을 시작함. 농경과 함께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됨. 움집을 만들며 정착하는 삶이 시작함. 직접 잡으러 다녔던 구석기 시대와는 달리, 신석기 시대는 직접 동물을 기르는 목축을 시작함
· **사회** : 씨족 중심의 부족 사회, 평등 사회
· **문화** : 원시 신앙
ex) 토테미즘(동식물을 수호신으로 숭배), 애니미즘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음), 샤머니즘(무당이나 주술을 믿음)
·**예술** : 조개껍데기 가면, 치레걸이 등을 자신을 꾸미는 용도의 물품 등을 제작함
· **유적지** : 서울 암사동 유적지
tip) 강가나 바닷가에서 유적이 주로 발견된다.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움집

위캔 단원 해설

자연환경과 기후 조건이 오늘날과 거의 비슷하게 변하면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신석기인은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토기는 식량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뼈바늘을 비롯하여 실을 뽑는 기구인 가락바퀴도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옷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농경은 잡곡류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됨에 따라 사람들은 더 이상 이동생활을 하지 않았다.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 집으로는 움집이 나온다. 이들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서 마을을 형성하였으면, 씨족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사회였다.

신석기 시대에는 종교와 예술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다. 신석기인은 동식물을 수호신으로 숭배했고(토테미즘),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다(애니미즘), 또한 무당과 주술을 믿었다(샤머니즘). 조개껍데기 가면이나 치레걸이등 원시적인 예술품을 통해 자신을 꾸미기도 하였다.

3 청동기 시대

· **도구**
청동기(청동기는 구하기가 어려워 무기나 제사용으로 사용되었다)
ex)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 농경무늬 청동기
tip) 농경무늬 청동기는 제사용으로, 밭을 경작하는 모습이 들어나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 중 하나이다.

·**토기 :**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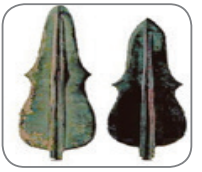
·**간석기**(농기구) : 반달돌칼
tip) 신석기 유물 아님, 청동기 시대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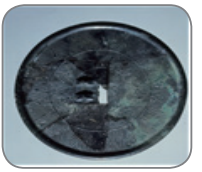
· **무덤 :** 고인돌(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 **생활 :** 벼농사의 시작 -> 주거: 강 근처의 야산, 구릉지대에 거주

· **사회 :**
계급사회 출현, 족장의 등장
벼농사 시작(생산력의 발달) -> 잉여 생산물 발생 -> 개인의 재산 인정, 빈부격차 발생 -> 빈부격차는 계급의 격차로 이어짐

tip)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생산력이 발달한다. 이에 따라, 잉여생산물이 발생한다. 개인에 따라 다르게 발생된 잉여 생산물은 개인의 재산이 되고, 잉여생산물의 양에 따라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빈부격차의 양은 곧 계급의 격차로 이어진다. 이로써 계급사회가 출현하고, 계급을 이끄는 통솔자인 족장이 등장한다.
족장이 죽으면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농경무늬 청동기

반달돌칼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위캔 단원 해설

만주, 한반도 일대에서는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청동기로는 비파형동검이 있다. 그러나 청동기는 구하기가 어려워 무기와 제사용으로만 사용되었다. 청동기의 종류로는 거친무늬 거울, 농경무늬 청동기 등이 있다. 특히, 농경무늬 청동기는 밭을 경작하는 모습이 들어나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 중 하나이다. 일상생활에서는 간석기를 계속 사용하였는데, 대표적인 농기구로는 반달돌칼이 있다.

청동기 시대부터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생산력이 발달한다. 이에 따라, 잉여생산물이 발생한다. 개인에 따라 다르게 발생된 잉여 생산물은 개인의 재산이 되고, 잉여생산물의 양에 따라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빈부격차의 양은 곧 계급의 격차로 이어진다. 이로써 계급사회가 출현하고, 계급을 이끄는 통솔자인 족장이 등장한다. 족장이 죽으면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족장의 권력과 부가 클수록 고인돌의 크기는 점점 커갔다. 청동기는 전의 시대와 비교하여, 사회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에 국가가 출현하였는데 고조선이 바로 이 시기에 출현한 국가이다.

4 철기 시대

· **도구** : 청동기: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① 철기 : 철제농기구, 철제 무기
② 토기 : 검은 간 토기
· **무덤** : 널무덤(널=나무관을 넣어 만듦), 독무덤(항아리=독에 시신을 넣음)
· **생활** : 철제 무기의 사용-> 전투력 향상-> 부족 간의 전쟁 증가 -> 국가의 출현
· **사회** : 정치, 군사를 담당하는 지배층과 생산을 담당하는 피지배층으로 분화

tip) 철제 무기의 사용으로, 전투력이 향상됨에 따라 전쟁이 증가하였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계급의 차이가 더욱 선명해진다. 전쟁과 정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지배층과 생산을 담당하는 피지배층이 생긴다. 전쟁을 통한 부족 간의 통합으로 국가가 출현한다. 부여, 고구려, 삼한 등의 나라가 이 시기부터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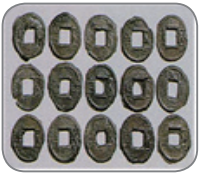
· **문화** : 울산 대곡리 반구대 바위그림 (사냥의 성공, 풍요로운 수확 기원)
① 중국와의 교역 근거 ex)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② 한자 사용의 근거 ex)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

세형동검

독무덤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다호리붓

위캔 단원 해설

철기가 보급되면서 철제 농기구, 철제무기등이 사용되었다. 청동기는 의식용, 제사용 도구로만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청동기에는 비파형 동검이 발전한 세형동검, 거친무늬 거울이 발전한 잔무늬 거울이 있다. 철제 농기구의 등장으로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과의 교역도 이루어진다. 명도전, 반량전을 통해 중국과 교역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남 창원에서 발견되는 다호리 붓 유적은 이 시기 사람들이 한자를 접했고 사용했음을 유추하게 한다.

철제 무기의 사용으로, 전투력이 향상됨에 따라 전쟁이 증가하였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계급의 차이가 더욱 선명해진다. 전쟁과 정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지배층과 생산을 담당하는 피지배층이 생긴다. 전쟁을 통한 부족 간의 통합으로 국가가 출현한다. 부여, 고구려, 삼한 등의 나라가 이 시기부터 등장한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그림에 담아 표현하였다. 울산 대곡리 반구대 바위그림에는 야생동물, 가축 등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사냥의 성공,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한 철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5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 **청동기 문화의 발전** :

청동기	철기
비파형 동검 ---> 세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	

· **근거** : 거푸집 (한반도에서 청동기를 직접 제작함)

거푸집

MEMO

위캔 단원 해설

한반도에서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였다. 비파형 동검이 변형되어 세형동검으로 발전되었고 거친무늬 거울이 변형되어 잔무늬거울로 발전되었다. 청동 제품을 만드는 틀인 거푸집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청동기를 직접 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고조선

1 고조선의 건국

·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단군왕검이 건국
· 단군신화:
환인의 아들 환웅은 인간 세상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였다.(홍익인간 사상) 아버지 환인은 아들의 뜻을 알고 천부인 3개를 주고 세상에 내려 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무리 3천명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이를 신시라고 부르고, 스스로를 환웅이라 하였다.(하늘의 자손이라는 선민사상) 그는 풍백, 운사, 우사를 거느리고(풍백, 운사, 우사는 농경에 필요한 것, 농경사회 중시) 인간의 360여가지 일을 맡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여자가 된 곰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를 본 환웅이 인간으로 모습을 바꾸어 곰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를 단군 왕검이라고 하였다.

tip) 단군신화는 <삼국유사>,<제왕운기>,<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2 고조선의 발전

· 상,대부,장군 등의 관직 설치
· 부왕, 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
· 랴오허 강을 경계로 중국의 연과 대립할 만큼 강성
tip) 고조선의 세력 범위: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동검, 미송리식 토기가 많이 나온 곳으로 파악

3 위만 조선의 성립

·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름
· **철기문화를 본격적 수용함**
·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함

위캔 단원 해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이 성립하였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말이다. 이는 고조선 사회의 지도자가 종교, 정치적인 부분을 전부 아우르는 지도자였으며 이러한 사회를 제정일치사회라고 부른다. 삼국유사에 따른 단군신화는 다음과 같다. 환인의 아들 환웅은 인간 세상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였다(홍익인간 사상). 아버지 환인은 아들의 뜻을 알고 천부인 3개를 주고 세상에 내려 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무리 3천명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이를 신시라고 부르고, 스스로를 환웅이라 하였다(하늘의 자손이라는 선민사상). 그는 풍백, 운사, 우사를 거느리고(풍백, 운사, 우사는 농경에 필요한 것, 농경사회 중시하는 모습) 인간의 360여가지 일을 맡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여자가 된 곰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를 본 환웅이 인간으로 모습을 바꾸어 곰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를 단군 왕검이라고 하였다. 단군신화는 <제왕운기>,<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후, 고조선은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설치하고 부왕, 준왕 등 강력한 왕이 왕위를 세습한다. 고조선은 랴오허 강을 경계로 중국의 연과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동검, 미송리식 토기가 많이 나온 곳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들어오자, 준왕을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위만이 수도인 왕검성을 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를 위만 조선이라 부른다. 위만조선이후, 고조선은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한다. 또한,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였다.

4 멸망

· 한 무제의 침략-> 왕검성 함락->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4군현을 설치함(낙랑, 임둔, 진번, 현도)

tip) 고조선은 한과 진국사이의 중계무역으로 큰 이득을 얻음.
이에 불만을 가지고 한 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함.

5 사회

· **8조법:** 8가지 조항중 3가지 조항만 전해짐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개인의 생명을 중시

②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갚는다. -> 노동력 중시, 사유재산 인정, 농경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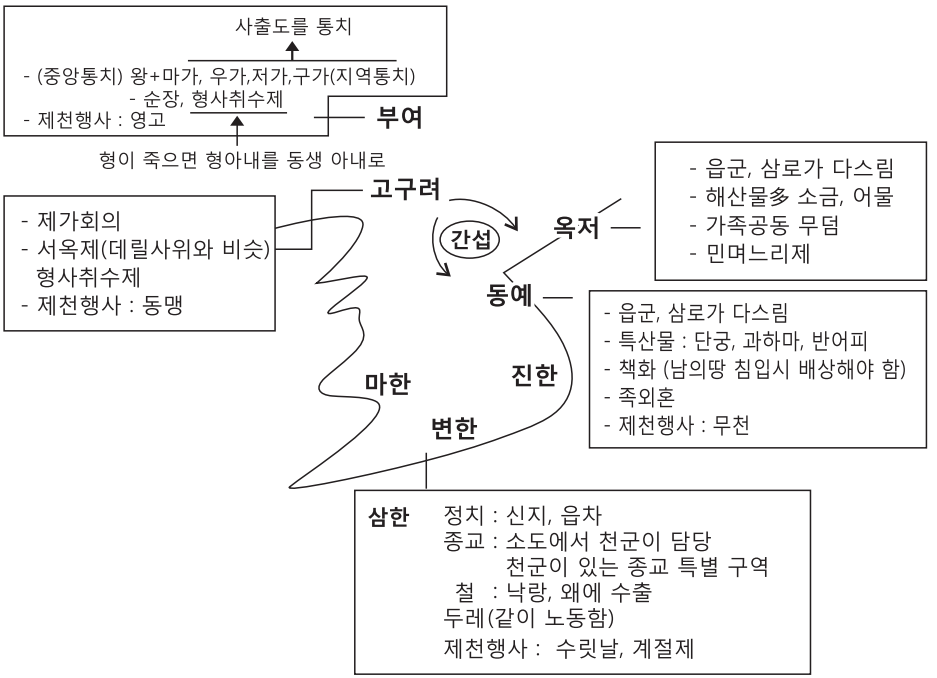
③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고, 만약 용서를 받고자 하면 50만 전의 돈을 내게 한다.
-> 형벌과 노비가 존재, 사유재산 인정, 계급 사회

위캔 단원 해설

고조선은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는 한나라의 입장에서는 불만이었다. 진과 한 사이에 이득을 취해가는 고조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한나라의 왕인 한무제는 불만을 가지고 고조선을 침략한다. 수도인 왕검성은 함락당하고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4군현을 설치한다. 4군현은 낙랑, 임둔, 진번, 현도이다.

고조선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에는 8조법이 있었다. 현재에는 3가지 조항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갚는다. 이를 통해 노동력을 중시하였으며 사유재산을 인정했고, 곡물을 통해 농경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고 만약 용서를 받고자 하면 50만전의 돈을 내게 한다. 노비라는 단어를 통해 노비가 존재한 계급사회임을 알 수 있으며, 돈을 통해 사유재산을 인정한 사회임을 볼 수 있다. 고조선의 8조법은 한 군현이 설치된 이후, 60여 조로 늘어났다.

3. 여러나라의 성장



위캔 단원 해설

부여는 쑹화 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왕이 중앙을 직접 통치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등 가축의 이름을 딴 관리가 다스렸다. 이들 가가 다스리는 지역을 사출도라고 불렀다. 부여는 지배층이 죽었을 때 순장을 하였으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형사취수제가 이었다. 제천 행사로는 12월에 개최하는 영고가 존재했다. 부여는 5세기 말에 고구려에 흡수된다.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건국세력은 스스로를 부여의 후예로 자처했다.

고구려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건국하였다. 고구려는 졸본 지방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지만, 이 공간은 산악지대로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넉넉하지 못했다. 이에, 고구려는 주변의 나라를 약탈, 정복하여 평야 지대로 진출하고자 노력한다. 고구려가 무예를 숭상하는 모습이 이러한 점과 관련이 깊다. 그리하여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5부 연맹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고구려는 왕 아래의 대가들이 제가회의 통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고구려에도 부여와 같이 형사취수제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혼인 시, 신부 집 뒤에 작은 집(서옥)을 지어 사위가 들어가 사는 풍습인 서옥제, 일종의 데릴사위제가 있었다. 고구려의 제천행사는 10월에 열렸으며, 이를 동맹이라 한다.

옥저와 동예는 왕이 없었다. 대신 읍군, 삼로라고 부르는 군장이 부족을 다스렸다. 두 국가 모두 고구려의 간섭으로 인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옥저는 해산물이 풍부했으며, 가족 공동 무덤과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민며느리제는 고구려의 서옥제와는 반대로, 여자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신랑 집에 데려다 키워 며느리로 삼는 풍습이다. 동예의 특산물로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있었다. 단궁은 박달나무로 만든 활, 과하마는 몸집이 작은 말, 반어피는 바다 표범의 가죽이다. 동예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할 시 노비, 소, 말 등으로 배상하는 책화와 족외혼이 있었다. 족외혼은 같은 부족끼리 결혼하지 않는 풍습이다. 동예의 제천행사는 10월에 열리며, 이를 무천이라 한다.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으로 이루어졌다. 마한은 후에 백제로, 진한은 신라로, 변한은 가야로 발전한다. 정치는 신지, 읍차로 불리우는 군장이 담당하였고, 종교적인 부분은 천군이 담당했다. 천군은 소도라는 특별 구역을 관리하였는데, 범죄자가 소도로 도망쳤을 경우에는 잡을 수 없었다고 한다. 삼한은 벼농사가 발달하였으며 특히 변한은 철 생산을 주력으로 하여 낙랑과 왜 등에 철을 수출한다. 삼한의 제천 행사로는 5월에 열리는 수릿날, 10월에 열리는 계절제가 있다. 더 붙여 말하자면, 공동 노동 조직인 두레가 있었다.

Ⅱ 고대 사회의 발전

1. 삼국의 성립과 발전

1 삼국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삼국통일

tip) 연맹왕국: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가야) ->발전->
->고대국가: 율령, 불교, 왕위 세습 등의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짐(삼국)
tip) 전체적인 모습:
① 중앙 집권의 기틀 마련(왕위 세습의 모습으로 드러남)
② 개혁의 시기(율령반포, 불교 공인 등의 모습으로 드러남)
③ 전성기(영토 확장의 모습이 보임)

	고구려	백제	신라
건국	· 건국세력: - 부여에서 이주해온 주몽, 졸본 지역의 토착 집단 · 왕족: 고씨	· 건국세력: - 고구려에서 이주해온 온조, 한강 유역의 토착 집단 · 왕족: 부여씨	· 건국세력: - 진한의 여러 소국 중 사로국에서 박혁거세가 건국

위캔 단원 해설

여러 부족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하면, 연맹왕국이라 부른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가야가 있다.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져, 중앙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중앙을 중심으로 나라가 구성되면 이를 고대국가라 부른다. 중앙집권화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율령의 반포, 불교 공인, 왕위 세습 등을 통해 중앙 집권이 이루어진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통해 중앙 집권을 이루어낸 고대국가에 속한다. 중앙 집권의 과정은 첫 번째, 왕위 세습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중앙 집권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라고도 부른다. 두 번째,율령반포, 불교 공인 등을 통해 개혁이 이루어진다. 기틀이 마련되고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성기의 모습이 보인다. 전성기의 가장 큰 특징은 영토 확장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는 부여에서 이주해온 주몽이 졸본을 중심으로 건국하였다. 백제는 주몽의 아들 온조가 하남 위례성에서 건국하였다.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 집단이 백제를 세운 것이다. 신라는 진한의 사로국에서 박혁거세가 건국하였다.

1 삼국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삼국통일

	고구려	백제	신라
2C	· 태조왕: - 요동 진출, 옥저 정복 - 계루부 고씨에 의한 왕위의 독점적 세습 · 고국천왕: - 왕위의 부자 상속 확립 - 부족적 성격 5부 ->행정적 성격 5부 - 진대법 실시 <기틀 마련의 시기>		· 박,석,김이 돌아가며 다스림
3C		·고이왕: - 관제, 관등, 복색 - 율령 반포 <기틀 마련 & 개혁의 시기>	

위캔 단원 해설

고구려는 태조왕 시기부터 높은 국가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다. 요동으로 진출하며, 옥저를 정복한 이후 왕권이 강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계루부 고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하게 된다. 2세기 후반 고국 천왕 시기는 기틀 마련의 시기로도 불린다. 부족적 성격의 5부를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한다. 이는 5부의 족장을 왕 아래의 중앙 귀족으로 편입한 것이다. 족장은 부족을 다스리는 대표자에서 왕을 보좌하는 신하로써 권한이 약화됨에 따라 족장의 권한은 약화되고 왕권은 강화되었다. 또한, 왕위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확립하였다. 고국천왕 시기에는 을파소의 건의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진대법이 실시된다.

3세기 백제 고이왕 시기는 기틀마련과 개혁이 함께 이루어졌다. 관제, 관등, 복색을 통해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고, 율령을 반포한다.

신라는 박, 석,김이 돌아가며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인다.

1 삼국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삼국통일

	고구려	백제	신라
4C	· 미천왕: 낙랑군 축출 · 고국원왕: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 -> 고국원왕의 죽음 **· 소수림왕: 개혁의 시기** **- 율령, 불교, 태학**	**<전성기>** · 근초고왕: - 왕위 부자 상속 확립 - 마한 병합 - 요서, 일본에 진출 - 고구려 공격 ->고국원왕의 전사 - 역사서 고흥의 <서기>	**·내물왕:** - 김씨 세습 확립 - 마립간 사용(왕을 뜻함) -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왜를 격퇴 - 관련 유물: 호우명 그릇 tip) 호우명 그릇은 경주의 호우 총에서 발굴된 것으로 밑바닥에 '광개토지호태왕'이라는 글씨가 있어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준다. <기틀 마련의 시기>
5C	**<전성기>** · 광개토대왕: 진출과 정벌의 시기 - 한강상류, 요동 진출 - 동예 복속, 만주 정벌 - 신라의 왜 침입 격퇴 · 장수왕: - 남진 정책 -> 평양 천도 - 백제 함락 - 관련 유물: ① 충주 중원 고구려비 (고구려의 영토 확장을 기념) ② 광개토대왕릉비 건립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림)	· 침류왕: - 불교 수용 · 개로왕: - 장수왕의 침입으로 전사 - 고구려에게 한강유역을 뺏김 · 문주왕: - 한성->웅진(공주) 수도 옮김	

위캔 단원 해설

고구려는 4세기 경 미천왕 때, 낙랑군을 축출한다. 이후 전연과 백제의 침입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다. 백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고국원왕이 죽게 된다. 하지만, 소수림왕의 개혁으로 안정을 찾는다. 소수림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태학을 세운다.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다. 광개토 대왕시기는 진출과 정벌의 시기다. 한강상류와 요동에 진출하였으며, 동예를 복속하고 만주를 정벌하였다. 신라를 도와 왜의 침입을 격퇴하기도 하였는데, 관련 유물로는 호우명 그릇과 광개토대왕릉비문이 있다. 그 뒤를 이은 장수왕은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실시하여 평양으로 천도하고 백제를 함락시키고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다. 이는 충주 중원 고구려비에 상세히 드러나 있다. 장수왕은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광개토대왕릉비를 건립한다.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였다. 근초고왕은 남으로는 마한을 병합하고 북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당시 고구려왕인 고국원왕은 전사하였다. 요서, 일본에 진출하고 규수와 교류하는 등의 활발한 대외활동을 보인다. 왕권이 더욱 강화되어 부자 상속의 왕위 계승이 확립되었다. 당시의 역사서로는 고흥의 <서기>가 있다. 침류왕 시기에는 불교가 공인되었다. 5세기,백제는 고구려의 팽창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개로왕 시기 장수왕의 남진정책으로 인해 개로왕은 전사하였으며, 고구려에게 한강 유역을 뺏기고 이후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느리게 발전한다. 4세기 후반 내물왕 시기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하였다. 왕의 칭호를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꾸는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왜를 격퇴했는데, 이는 호우명 그릇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삼국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삼국통일

	고구려	백제	신라
6C		· 무령왕: - 22담로제: 지방에 왕족을 파견 (지방관을 견제, 왕권 강화) - 남조와 교류 관련 유물) 벽돌무덤인 무령왕릉 · 성왕: 백제 중흥 도모한 시기 - 사비(부여)천도, 국호 (남부여) - 한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 -> 실패, 성왕의 죽음 tip) 한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과정 ①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일시 회복함(신라는 한강 상류를, 백제는 한강 하류를 차지하기로 함) ② 진흥왕의 배신 백제가 차지하기론 약속한 한강 하류를 신라가 빼앗음 ③ 신라vs백제의 싸움 관산성 전투(백제 패, 성왕 죽음)	·지증왕: - '왕' 칭호 사용 국호를 '신라'로 - 우산국(이사부 장군) 정벌 ·법흥왕: - 율령반포, 공복제정 - 병부 설치(국방부와 비슷) - 불교 (이차돈) - 금관가야 정복 <전성기> · 진흥왕: - 화랑도 개편 -> 강력한 군사조직이 됨 - 한강유역장악 - 한강유역 장악과 관련한 유물: 단양적성비, 순수비(창녕비,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건립 - 대가야 정복 - 역사서: 거칠부의 <국사>

위캔 단원 해설

6세기는 백제가 중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이다. 무령왕은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다. 무령왕릉은 벽돌무덤으로 남조와의 교류를 보여준다. 성왕 시기는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선포하였다. 신라와 협공하여 한강 하류를 되찾았으나,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다시 빼앗긴다. 이후 벌어진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죽음으로써 백제는 중흥에 실패한다.

6세기는 신라에게 개혁의 시기였다. 지증왕은 왕의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국호를 신라로 지정했다. 이사부 장군을 보내 우산국을 정벌하기도 한다.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공복을 제정하며,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게 된다. 이렇듯 개혁의 모습을 확실히 보인다. 이외에도 병부를 설치하고, 금관가야를 정복한다. 진흥왕 시기는 신라의 전성기이다. 화랑도는 진흥왕의 강력한 군사조직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강유역을 장악한다.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는 이러한 영토확장을 잘 보여준다. 이외에도 대가야를 정복한다. 당시 역사서로는 거칠부의 <국사>가 있다.

1 삼국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삼국통일

	고구려	백제	신라
7C	· 수vs 고구려의 전쟁: - 살수대첩(을지문덕의 활약) · 당vs 고구려의 전쟁: - 천리장성 축조(연개소문) - 안시성 싸움 승리 · 고구려 멸망(668년) · 고구려 부흥 운동: - 건모잠, 안승의 고구려 부흥 운동	· 백제멸망(660) · 백제 부흥 운동: - 흑지상지, 복신, 노친 - 왜가 지원하나 백강전투에서 당에게 패배함.	· 신라의 삼국통일: ① 나·당 연합 결성 김춘추(후에 무열왕)는 고구려, 왜에 도움을 요청하나 거절당함. 이후, 당과의 연합을 결성 ② 백제 멸망 백제의 계백과 신라의 김유신의 황산벌 전투-> 백제의 수도가 함락-> 백제는 멸망함. ③ 고구려 멸망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죽은 후 연개소문의 아들들의 권력싸움으로 인한 내전이 심각한 상황-> 평양성 함락, 고구려 멸망 ④ 나당 전쟁 당은 약속과 다르게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임(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 도호부를 설치)-> 당vs신라의 싸움: 매소성, 기벌포 전투-> 한반도에서 당이 물러감 ⑤ 삼국통일(676년, 문무왕)

위캔 단원 해설

7세기 고구려에는 중국의 침입이 잦았다. 처음으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한다. 고구려는 을지문덕의 유도 작전으로 수의 대군을 살수에서 크게 물리친다. 수는 무리한 고구려 원정으로 국력을 소모하여 곧 멸망한다. 수에 이어 나타난 당나라 또한 고구려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천리장성을 쌓아 이에 대비한다. 당 태종은 대규모 병력을 통해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안시성 싸움을 통해 고구려는 당을 물리친다.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당에게 다가온 것은 신라였다. 당시 신라는 백제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으로,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자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지만 거절당하고 이후 당과의 연합을 결성한다. 나당 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의 계백 장군과 신라의 김유신의 황산벌 전투에서 맹렬히 싸우지만 결국 백제는 660년 멸망한다. 다음은 고구려였다. 고구려 또한 668년 멸망한다. 이후, 당나라는 본래의 약속과는 다르게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웅진 도독부, 안동 도호부, 계림도독부를 한반도에 설치한다. 당과 신라는 한반도를 두고 싸운다.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를 거두면서 당이 한반도에서 물러가고 신라는 문무왕시기 삼국통일을 이루게 된다. 잠시, 그렇다면 백제와 고구려는 멸망 이후에 부흥 운동이 없었을까? 존재했다. 고구려는 건모잠, 안승의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다. 백제에는 흑지상지, 복신, 노친의 부흥운동이 있었다. 특히, 왜가 백제의 부흥운동을 지원하나 백강 전투에서 당에게 패배하면서 부흥운동은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

2 가야의 형성과 발전

· **성립 :** 변한지역에서 발전,
고대국가가 되지 못하고 연맹왕국 수준에서 머무름

· **전기가야 :** 금관가야(김해)
철기 문화 발달하여 낙랑과 왜에 철을 수출
신라의 법흥왕에 의해 멸망

tip) 가야 세력의 중심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간 이유?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 왜를 격퇴할 당시,(내물왕-광개토대왕 시절)
금관가야도 극심한 피해를 입는다. 이후,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후기 가야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금관

· **후기가야 :** 대가야(고령)
철 풍부, 벼농사에 유리한 조건
신라의 진흥왕에 의해 멸망

· 가야 관련 유물) 금관, 판갑옷과 투구

판갑옷과 투구

MEMO

위캔 단원 해설

가야는 변한지역에서 발전하였다. 가야는 지배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지 못하고 비슷한 소국끼리 연맹을 이룬 상태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기가야는 김해의 금관가야였다. 금관가야는 철기문화가 발달하여 낙랑과 왜에 철을 수출하였으나 이후 고구려(광개토대왕시기)가 신라(내물왕 시기)를 도와 왜를 격퇴할 당시 금관가야도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후기가야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대가야는 고령에 위치했으며 금관가야와 마찬가지로 철이 풍부하였다. 가야는 금관, 판갑옷과 투구등 철과 관련된 유물이 대표적이다. 가야는 신라의 세력이 팽창함에 따라 멸망하게 되었다. 금관가야는 법흥왕에 의해,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2. 삼국의 경제, 사회, 문화

1 삼국의 정치제도

	고구려	백제	신라
관등제	10여관등	16관등	17관등
수상	대대로	상좌평	상대등
귀족대표자 회의	제가 회의	정사암 회의	화백 회의 (만장일치제)
행정 구역 (중요하지 않음)	수도 : 5부 지방 : 5부 tip) 선지로 다수 출제 지방관 : 욕살, 처려근지	수도 : 5부 지방 : 5방, 22담로	수도 : 6부 지방 : 5주

2 신라의 신분제

신라의 신분제	**골품제 :** - 성골(왕족)>진골(귀족)>6두품이하로 이루어진 신분제 - 신분에 따라 관등이 제한 - 신분에 따라 집의 크기, 복색, 수레의 크기등 일상생활도 제한됨
	화랑도: - 진골 출신 화랑 1명+ 이를 따르는 낭도(귀족부터 평민까지) - 진흥왕 시기 국가적인 차원으로 개편 - 원광의 세속 5계(화랑의 다섯 가지 계율), - 임신서기석(화랑의 약속을 새긴 비석)

위캔 단원 해설

고구려는 10여 관등으로 이루어지며, 수상은 대대로다. 귀족의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불렀다. 지방관으로 욕살, 처려근지 등이 있다. 백제는 16관등제이며, 수상은 상좌평이었다. 귀족의 회의를 정사암 회의라고 부른다. 지방과 관련하여 22담로는 무령왕 시기 귀족을 지방에 파견한 것과도 연관이 깊다. 신라는 17관등으로 이루어지며 수상은 상대등이었다. 귀족 대표자 회의는 화백회의로 특이하게도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다.

신라의 신분제인 골품제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골품제는 왕족 출신인 성골, 귀족 출신인 진골,6두품, 5두품,4품,3두품,2두품,1두품으로 이루어졌다. 1두품으로 내려올 수 록 평민에 가까웠다. 신분에 따라 관등이 제한되었으며 또한 집의 크기 ,복색,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도 함께 제한되었다.

화랑도는 진흥왕 시기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편되었다. 진골 출신의 화랑 1명과 이를 따르는 낭도로 구성되어 있다. 화랑과 관련해서는 화랑의 약속을 새긴 비석인 임신서기석과 화랑의 다섯 가지 계율은 정리한 원광의 세속 5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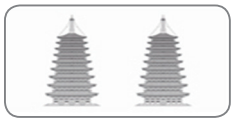
3 삼국의 문화

	고구려	백제	신라
도교	 현무도	 산수무늬 벽돌 금동대 로	
무덤 양식	초기: 돌무지무덤 형태 후기: 굴식 돌방무덤형태 장군총 (돌무지 무덤)	초기: 돌무지무덤 후기: 굴식돌방무덤, 벽돌무덤 무령왕릉(벽돌무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음 능산리 고분 (굴식돌방무덤)	초기: 돌무지 덧널 무덤 후기: 굴식 돌방 무덤 천마총 (돌무지 덧널무덤)

위캔 단원 해설

산천을 숭배하고, 신선을 믿는 사상이 바로 도교이다. 도교와 관련하여, 고구려에는 현무도, 백제에는 산수무늬 벽돌과 금동대향로를 통해 도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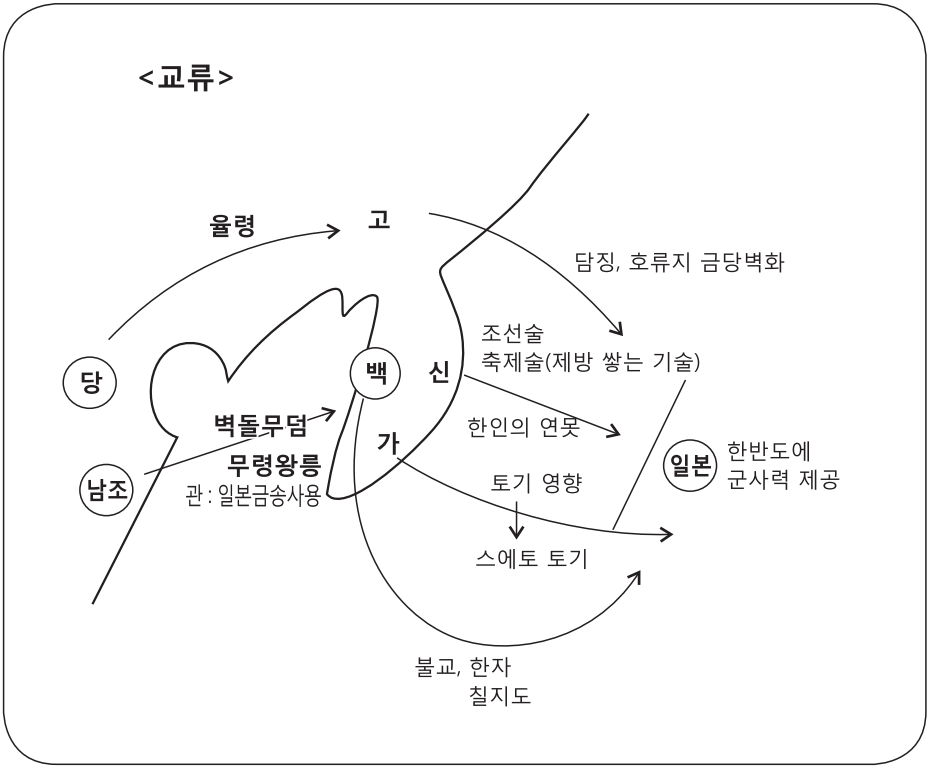
무덤에 앞서 각 무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한다. 돌무지 무덤은 돌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무덤이다. 굴식 돌방 무덤은 돌방(돌로 방을 만들고)이를 굴식(통로)으로 연결한 형태로 도굴이 쉽다는 단점이 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덧널(나무 관)을 안에 두고 돌과 모래 더미를 쌓은 형태로 도굴이 어렵다. 고구려는 초기 돌무지 무덤 형태에서 굴식 돌방무덤 형태로 변해간다.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장군총이 있다. 백제 또한 돌무지무덤 형태에서 굴식돌방 무덤 형태로 변해간다. 굴식 돌방 무덤에는 능산리 고분이 있다. 백제 후기는 무령왕릉과 같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무덤이 나오기도 한다. 신라는 초기에는 천마총과 같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었지만,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아 굴식 돌방무덤 형태로 변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무용총 수렵도 각저총 씨름도 (서역과의 교류를 볼 수 있다)	 진묘수 (무령왕릉 출토 유물) 금제관장식 (무령왕릉 출토 유물) 금동대향로 (능산리 고분에서 출토)	 천마도 (천마총 출토 유물)
탑	주로 목탑을 건립 -> 현존x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황룡사 9층 목탑(현존x)
불상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	 서산 용현리 마애 여래 삼존상	

위캔 단원 해설

무용총의 수렵도를 통해서는 고구려인의 용맹함을 살펴볼 수 있다. 각저총의 씨름도에서는 서역인의 모습이 확인되면서 서역과의 교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백제의 무령왕릉에서는 진묘수와 금제관장식이 출토되었다. 백제의 대표적 유물인 금동대향로는 능산리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신라의 천마총에서는 천마도가 출토되었는데 천마도는 말의 형상을 그린 그림으로 벽화는 아니다. 탑과 관련해서 백제는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다. 신라에는 경주의 분황사 모전 석탑과 고려 시기 원의 침입으로 인해 소실된 황룡사 9층 목탑이 있다. 불상에는,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과 백제의 서산 용현리 마애 여래 삼존상으로 모두 최근에 출제되었다.

4 삼국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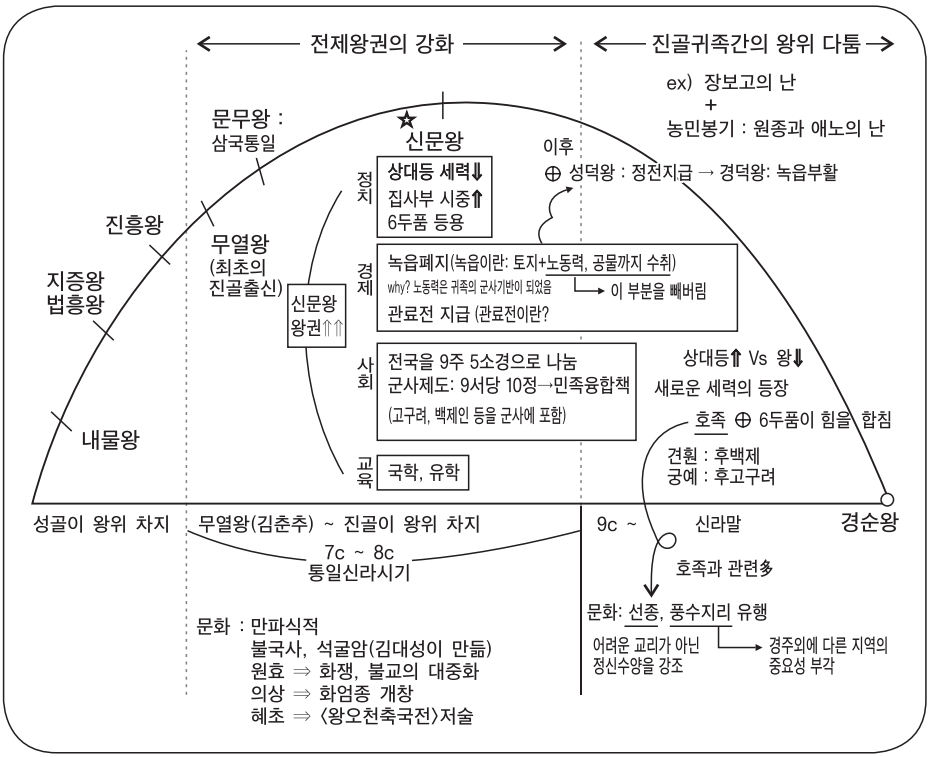
위캔 단원 해설

삼국은 교류가 활발하였다. 특히, 신라와 고구려, 백제는 왜에 많은 문물을 전해주는 모습을 보인다. 고구려의 담징은 호류지의 금당벽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고구려의 혜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다. 백제는 불교, 한자, 칠지도를 일본에 주었다. 신라의 조선술, 축제술이 일본에 넘어갔는데, 일본에는 이를 바탕으로 만든 한인의 연못이 존재한다. 또한, 일본의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아 스에토 토기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삼국이 일본에 문물을 제공했다면, 일본은 무엇을 제공한 것일까? 일본은 삼국에 군사력을 제공하였다.

삼국은 중국과도 교류하는데, 특히 백제와 남조의 교류의 대표적인 유물에는 벽돌무덤인 무령왕릉이 있다. 이 무령왕릉은 관은 일본의 금송을 사용하였는데, 무령왕릉을 통해 남조와 왜와의 교류를 모두 확인해볼 수 있다.

3. 남북국의 발전

1 통일 신라의 발전



위캔 단원 해설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다. 무열왕 시기에 시작한 통일 전쟁은 아들인 문무왕 시기에 완성되었다.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정치적으로 상대부(귀족) 세력을 약화시켰으며 이와 반대로 집사부 시중(왕의 비서역할)의 권한을 올리고, 6두품을 등용한다. 경제적으로는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다. 녹읍이란 토지에 대한 세금과 함께 노동력, 공물까지 함께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동력은 귀족의 군사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녹읍은 귀족의 힘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신문왕은 관료전 지급을 통해 귀족의 힘을 약화시켰다. 관료전은 녹읍에서 지급하던 노동력, 공물의 수취를 뺀 것이다. 더해서 말하자면, 이후 성덕왕시기 정전을 지급하다가 경덕왕 시기, 왕권이 약해지면서 다시 녹읍이 부활하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통일된 국가의 지방, 군사제도를 바꾸었다.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나누었으며, 군사제도는 9서당(중앙군) 10정(지방군)으로 바꾸었다. 중앙궁인 9서당은 신라 외에도 백제, 고구려인을 포함하면서, 하나의 민족 융합책으로 사용되었다.

7세기~8세기의 통일 신라는 전제왕권의 강화 속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진골 귀족의 대대적인 반란과 함께, 진골 귀족간의 왕위 다툼이 시작된다. 155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왕위 쟁탈전은 치열했다. 당시의 난으로는 장보고의 난, 농민봉기로는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다. 상대등(귀족)의 세력은 강해졌으며, 왕의 세력은 자꾸만 떨어져갔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신라 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지방을 다스리는 호족과 6두품 세력이 힘을 합치게 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어려운 교리가 아닌 정신 수양을 강조하는 선종과 경주 외에 다른 지역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풍수지리가 유행한다. 관련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2 통일 신라의 경제, 사회, 문화

문서	· 민정문서 :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작성 인구, 가구, 토지에 대한 정보 수록 (가축과 나무의 숫자도 기재되어 있음)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 현존 목판 인쇄물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됨
대외교류	· 장보고의 활동: 청해진 설치 · 서역과의 교류: 울산항(당시의 국제 무역항)을 통한 교류 아라비아 상인의 왕래
학문	· 국학(신문왕), 독서삼품과(원성왕, 시험을 통해 관리를 채용) · 6두품 : 설총(이두정리), 최치원
건축	불국사(김대성), 석굴암(김대성)
탑	감은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다보탑 쌍봉사 철감선사탑
종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감은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다보탑

쌍봉사 철감선사탑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위캔 단원 해설

통일 신라의 경제, 사회, 문화이다.

민정문서는 촌락에 대한 문서로 촌락의 경제 상황과 조세 제도의 운영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촌락의 경제 상황은 꽤나 자세하게 적혀있는데, 가축과 나무의 숫자도 상세히 적혀있다. 무구정광대라니경은 목판 인쇄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이는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되었는데, 불국사 3층 석탑은 바로 석가탑이다.

잠시, 탑으로 넘어가 보자면 불국사에는 석가탑과 그 옆에는 다보탑이 있다. 불국사는 김대성이 지은 것으로, 석굴암 또한 김대성의 작품이다. 이외에도 탑에는 감은사지 3층 석탑과 쌍봉사 철감선사탑은 선종의 영향으로 승려의 사리를 봉인하는 승탑의 유행을 보여준다.

대외교류로는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울산항을 통해서는 서역과의 교류가 활발했는데, 아라비아 상인도 왕래하였다.

학문으로는 신문왕 시기 세워졌던 국학과 시험을 통해 관리를 채용했던 독서삼품과가 있다. 독서삼품과는 조선의 과거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된다. 6두품 출신의 학자로는 이두를 정리했던 설총과 최치원이 있다. 최치원은 당에서 빈공과에 합격 이후 신라에 돌아온 인물이다. 진성여왕에서 개혁10조를 건의하나 실패한 이후 은둔생활을 하였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6두품은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이러한 부분이 후에 신라말의 혼란한 상황에서 6두품이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인 호족과 손을 잡는 이유가 된다.

마지막, 종으로는 성덕대왕 신종이 있다. 종이 울리는 소리가 아이가 우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에밀레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3 발해의 건국과 발전

7c	8c	9c	10c
· 발해의 건국: - 대조영을 중심으로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함	· 무왕 - 당의 산둥 공격 (장문휴 장군) - 연호 '인안' · 문왕 - 상경천도 - 친당정책으로 당의 문물 수용함. 예시)3성 6부 - 신라도 (신라와의 교통로) - 연호'대흥'	<전성기> ·선왕 - 해동성국의 시기 - 요동 확보: 고구려의 옛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 - 연호'건흥'	· 발해의 멸망(926): 거란에 의해 멸망 -> 대다수의 발해 유민은 고려로 이주함.

위캔 단원 해설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였다. 발해 건국의 의의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만주를 무대로 일어났다는 점에 있다.

발해는 초반 고구려를 무너뜨린 당을 견제하였다. 돌궐, 일본과 친하게 지내며, 당과 신라를 더욱더 견제한다. 무왕은 연호를 인안이라고 하며, 이 시기 장문휴 장군은 당의 산둥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다.

문왕 시기부터는 무왕과는 다르게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당의 문물을 수용한다. 이때, 당의 중앙 제도인 3성 6부를 수용한다. 신라와도 교류를 시작하는데, 신라도를 통해 문물을 주고받는다. 문왕 시기의 연호는 대흥이었다.

선왕 시기는 발해의 전성기이다. 주변국들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고구려의 옛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으며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은 매우 번성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의 연호는 건흥이다. 하지만 10세기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발해는 멸망하였다(926). 대다수의 발해 유민은 고려로 이주하게 되는데, 발해 왕자 대광현은 수많은 유민을 이끌고 발해로 망명한다.

4 발해의 경제, 사회, 문화

· **정치**

① 3성 6부제<- 당의 제도를 수용하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운영함
② 지방행정구역: 5경 15부 62주

· **사회**

① 고구려 계승 의식

> ·**고구려 계승근거**
> ①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 ('나 고려왕은~')
> ② 고구려와의 문화적 유사성: 온돌, 모줄임 양식
> tip) 모줄임 양식의 예시: 정혜공주 묘의 모줄임 천장 구조
> ③ 주 지배층: 고구려인, 피지배층: 말갈인

② 당의 영향을 받은 요소

> ① 3성 6부(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 - 문왕 시기 당으로부터 수용,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임
> tip) 독자적 운영의 모습 : 정당성은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뉨 -> 이원화된 조직
> 유교 덕목의 6부 명칭 -> 유학을 장려하는 모습
> ② 상경성 용천부의 '주작대로' <-당의 장안성을 모방
> ③ 주 지배층 : 고구려인, 피지배층 : 말갈인

· **경제와 문화**

대외교류	수출품 : 토산품 (담비 가죽등 모피류, 인삼), 수공업품 (자기, 불상) 수입품 : 비단, 책등 당으로부터 수입
학문발달	주자감(발해의 국립 대학)
불교	불교를 장려함 ex) 석등, 돌사자
무덤 양식	정혜공주 묘: 모줄임 천장 구조, 굴식 돌방무덤-> 고구려 문화 계승 정효공주 묘: 벽화 속 인물의 모습, 벽돌무덤-> 당의 영향

위캔 단원 해설

발해의 중앙은 3성 6부제도로 운영되었다. 이는 당의 제도를 문왕시기에 수용한 것으로, 발해는 이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정당성은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눈 이원화된 조직이었고 6부의 명칭을 유교 덕목의 이름으로 하며, 유학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방행정 구역은 5경 15부 62주로,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숫자가 크면 무조건 발해라고 외우면 된다.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를 보면, 발해왕은 고려왕이라고 칭해진다. 문화적으로도 유사성을 많이 보이는데, 온돌과 모줄임 양식이 있다. 모줄임 양식은 정혜공주의 묘에서 뚜렷이 보인다. 모줄임 양식은 천장이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를 뜻한다. 당의 영향을 받은 요소도 꽤 있다. 3성 6부제와 상경성 용천부의 주작대로이다. 주작대로는 당의 장안성 형태를 모방하였다.

대외교류로는 토산품, 수공업품을 팔고 비단, 책등 귀족의 물품을 당으로부터 수입하였다. 학교로는 발해의 국립 대학격인 주자감이 있다. 국자감은 고려시대이다. 둘을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발해의 불교는 고구려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유물로는 석등, 돌사자 등이 발견되었다. 무덤양식으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정혜공주묘의 모줄임 양식과 당의 영향을 받은 정효공주의 벽돌무덤이 있다. 무덤과 관련해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은 총 2가지가 나온다. 백제 무령왕의 무령왕릉과 발해 정효공주의 벽돌무덤이다.

4. 신라 말의 상황과 후삼국의 성립

1 신라 말의 사회 동요

· 귀족간의 왕위 쟁탈전 시작 -> 150여년간 20여명의 왕이 교체됨
· 왕권이 약화됨에 따라 여러 반란이 발생함: 지방 반란: 장보고의 난
농민 봉기: 원종과 애노의 난 (진성여왕시기)

2 새로운 세력의 성장

· 지방 호족: 스스로를 군주, 성주라 칭하면서 지방의 지배자 역할을 자처함.
· 6두품: 신라의 골품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던 자들
(골품제로 인해 높은 관직으로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
· 지방호족과 6두품은 서로 연합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함.
· 함께 나온 사상: 선종(교리보다는 정신 수양을 강조, 선종의 9산 선문 성립)
풍수지리설(수도인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3 후삼국의 성립

· 견훤의 후백제: 완산주(전주)에 도읍
tip) 견훤은 전라도 일대에서 지지를 받았다. 후당,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자 한다.

· 궁예의 후고구려: 송악(개성)에 도읍 -> 철원으로 천도-> 왕건에 의해 쫓겨남
tip) 궁예는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다. 그렇기에, 신라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양길의 휘하에서 세력을 키우다 양길을 몰아낸 이후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된다.
광평성등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한다.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부르며 실정을 하고, 이에 왕건에 의해 쫓겨난다.

위캔 단원 해설

신라 말 귀족간의 왕위 쟁탈전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혼란도 가중되었다. 여러 반란이 발생했는데, 지방에서는 장보고의 난이 발생하였고 농민 봉기로는 원종과 애노의 난등이 발생하였다.
사회적 혼란 속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지방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호족은 스스로를 군주, 성주라고 칭하면서 지방의 지배자 역할을 했다. 이러한 호족 세력과 연합하는 세력이 나왔는데, 이들이 바로 6두품이다. 6두품은 신라의 골품제도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방 호족과 6두품은 서로 연합하여 사회개혁을 추구하였다. 이들과 함께 나온 사상이 선종과 풍수지리설이다. 호족 세력은 중앙 귀족과는 다르게 교리보다는 정신 수양을 강조하는 선종을 선호했다. 선종이 퍼짐에 따라 9산선문이 성립되기도 한다. 풍수지리설이 나온 배경에는 호족의 배경이 지방이라는 점과 관련이 깊다. 풍수지리설을 통해 수도인 경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 호족 세력 중 확대된 세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세워진다. 견훤의 후백제와 궁예의 후고구려이다. 견훤은 완산주(지금의 전주)에 도읍하여, 후백제를 세운다. 견훤은 후당,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궁예는 송악(지금의 개성)에 도읍하여, 후고구려를 세운다. 궁예는 신라의 버려진 왕족 출신으로 신라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부터 지방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길의 휘하에서 세력을 키우다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된다. 건국 이후 광평성 등 정치기구를 마련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한다. 하지만, 스스로를 미륵이라 부르며 무리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이자, 결국 왕건을 중심으로 한 다른 세력에 의해 쫓겨난다.

Ⅲ 고려의 성립과 발전

1. 통치 체제의 정비

1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 **고려 건국**: 왕건이 송악을 수도로 고려를 건국

tip) 왕건은 송악 출신의 호족으로, 궁예의 신하로 활동하다가 고려를 건국함.

· **후삼국 통일**: 고려 건국-> 신라의 항복-> 견훤 항복->후백제 멸망-> 후삼국 통일(936)

tip) 신라 경순왕이 항복한다. 이후, 경순왕은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된다.
후백제의 내부 분란으로 아들 신검에 의해 갇혀있던 견훤이 고려에 항복한다.
견훤의 아들 신검이 이끌던 후백제군이 일리천 전투에서 고려에 패하면서 후백제는 멸망한다.

MEMO

위캔 단원 해설

왕건은 송악(지금의 개성)을 수도로 고려를 건국한다. 이후,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자. 순서는 정확히 외워두는 것이 좋다. 왕건의 고려 건국 이후,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한다. 덕분에 신라와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고려는 신라를 흡수하게 된다. 경순왕은 이후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된다. 그 후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을 피해 견훤이 고려로 항복한다. 내분이 일어난 후백제 군과 고려의 싸움이 일어난다. 견훤의 아들 신검이 이끌던 후백제군은 일리천 전투에서 패하면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다.

2 고려 초기의 정책

태조 왕건	· **민생 안정:** 조세 인하, 흑창(봄에 곡식 빌리고 가을에 갚기) tip) 흑창은 의창(성종)으로 바뀐다. · **호족:** 당근(회유책): 호족과의 혼인, 사성(성씨를 하사) 채찍(견제책): 기인(호족의 자식을 개경에 머무르게 함 like인질) 사심관(그 지역을 다스리게 함+ 그 지역의 책임까지 가짐) tip) 경순왕은 경주의 사심관이 된다. · **북진:** 서경(평양 중시), 분사제도(개경의 관아를 서경에 나누어 설치) 영토확장(청천강~영흥만까지 진출) · **왕권:** 훈요10조 · **불교:** 연등회와 팔관회 추진
광종	· **노비안검법:**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tip) 전민변정도감(공민왕)시기 또 실시됨 · **과거제:** 쌍기의 건의로 실시 tip)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통해 왕권을 높이고, 호족 세력 약화시킴. · **왕권 강화:** 칭제 건원(독자적인 연호 '광덕, 준풍'), 공복(관리복색 제정)
성종	· **유교 정치:** 최승로의 시무 28조 tip) 최승로의 시무 28조란? - 최승로는 성종 이전의 5대 왕에 대해 평가, 특히 태조의 업적 칭송 & 광종의 왕권 강화를 비판 - 연등회, 팔관회 축소 주장 - 유교를 국가 운영 원칙으로 삼되 중국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닌 주체적 수용을 주장 - 개인 윤리인 불교와 유교가 공존할 것을 주장 · **통치 체제:** 2성 6부제 도입(중앙), 12목에 지방관 파견(지방) tip) 백제: 무령왕, 22담로에 왕족 파견 고려: 성종, 12목에 지방관 파견 · **교육:** 국자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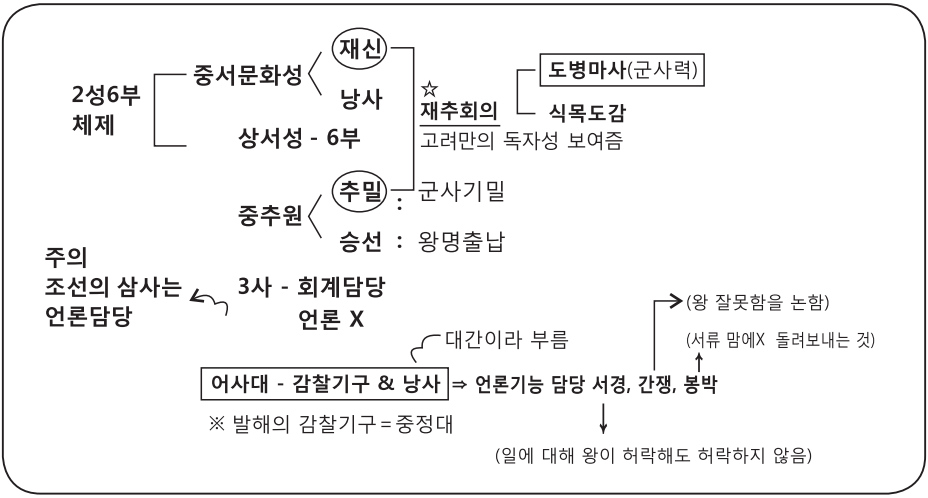
위캔 단원 해설

태조는 국가 기틀을 다지는 과정에서 안으로는 민생안정과 호족 통합을 중요시하고 밖으로는 북진을 추진하였다. 민생안정으로는 조세를 인하하고, 흑창(봄에 곡식 빌리고 가을에 갚기)을 설치하여 빈민 구제에 힘썼다. 호족에게는 회유책과 견제책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회유책으로는 호족과의 혼인, 사성(성씨를 하사)하는 포용정책이 있었고 견제책으로는 호족의 자식을 개경에 머무르게 하는 기인(인질 느낌)과 지방을 다스리는 사심관 제도를 활용하였다. 고려에 항복한 경순왕은 신라의 사심관이 된다. 또한, 불교를 숭상하고 연등회와 팔관회 등의 전통을 중시한다.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평양을 서경으로 삼았고 개경의 관아를 서경에 나누어 설치하는 분사제도를 통해 서경을 중요시 여겼다. 북진정책의 결과 고려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진출하게 된다. 태조는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자손들에게 계율을 남긴다. 이것이 훈요 10조이다. 훈요 10조에는 숭불사상, 풍수지리, 북진, 유교사상 등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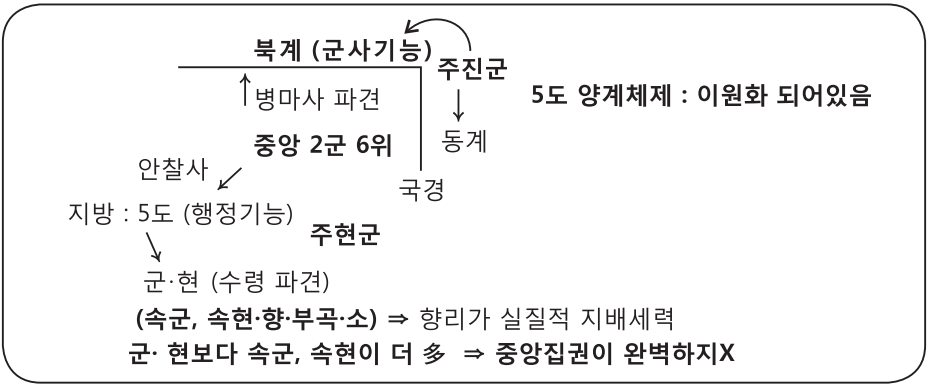
광종의 정책은 왕권강화와 맞닿아있다. 호족의 권력기반을 줄이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되돌리면서 호족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호족 대신 다른 이를 등용하기 위해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고 공복을 제정한다. 마지막으로 칭제 건원을 통해 광덕, 준풍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

성종은 유교정치 사상을 적극 내세운다. 신하였던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통해 유학을 장려한다. 시무 2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등회, 팔관회 등의 불교의 영향을 축소했고, 유교를 국가운영 원칙으로 삼았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이외에도 태조의 업적을 칭송하는 반면 광종의 왕권 강화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성종은 통치체제로는 2성 6부제를 도입하고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교육으로는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에 경학박사를 파견하여 유학교육을 장려하였다.

3 중앙정치 조직



4 지방 행정과 군사 제도



위캔 단원 해설

고려의 중앙정치는 2성 6부제이다. 2성은 재성과 낭사로 이루어진 중서문하성과 6부를 아래에 둔 상서성으로 이루어졌다. 중추원에는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추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승선으로 이루어졌다.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은 재추회의를 했는데, 이는 고려만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회의이다. 재추회의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회계를 담당하는 3사와 감찰기구인 어사대가 있다. 주의할 점은 조선과 고려의 3사는 다르다는 점이다. 조선의 3사는 언론기관이나 고려의 3사는 회계담당이었다. 고려의 회계는 어사대와 낭사가 담당했다. 이들은 서경(왕이 허락해도 이에 대해 비판을 함), 간쟁(왕의 잘못함을 논함), 봉박(서류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취소하는 것)을 통해 절대권력을 견제하였다.

지방행정과 군사제도는 다음과 같다. 지방행정은 5도 양계체제이다. 5도는 행정기능이고 양계는 군사기능이었다. 중앙은 5도에 안찰사를 파견하였다. 5도의 아래에 있는 군과 현에는 수령과 주현군을 파견하였다. 군과 현 아래에 있는 속군, 속현, 향, 부곡, 소에는 향리가 실질적인 지배세력이었다. 고려는 군현보다 속군, 속현이 훨씬 많았다. 이 말은 수령보다 향리가 지배하는 지역이 많았다는 것이고, 이는 중앙집권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계인 북계와 동계는 병마사를 파견하였고 이들을 지키는 군사를 주진군이라고 한다.

5 관리선발방식

<관리선발방식>

음서 : 5품이상의 자제를 대상으로 → 관료

과거
- 문과
  - 제술과 (수시)
  - 명경과 (수능)
  - → 관료
- 잡과 → 기술관
- 승과 → 승려 (조선에는X)

무과가 거의 시행X (조선에는O)

교육기관 : 국자감 VS 발해 - 주자감

6 교육 기관

· 국자감(성종시기, 개경), 향교(지방), 사학 12도(개경, 12개의 사립학교)

위캔 단원 해설

고려의 관리선발방식은 음서와 과거이다. 5품 이상의 자제는 음서를 통해 관료가 되었다. 대부분의 관료는 음서를 통해 뽑았다. 과거제도를 통해서 뽑힌 관료는 적은 편이었다. 과거제도는 관료를 뽑는 문과(제술과와 명경과로 이루어짐), 기술관을 뽑는 잡과, 승려를 뽑는 승과가 있다. 승과는 조선에서는 사라진다. 또한, 조선과 달리 고려의 과거에는 무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고려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성종시기에 세운 국자감이다. 발해의 주자감과 헷갈리지 말도록 한다. 지방에는 향교를 세웠고 개경에는 사학 12도로 12개의 사립학교를 세웠다.

2. 고려의 지배층

tip) 전반적인 고려 정리

고려의 지배층	호 족	문벌귀족	무 신	권문세족
고려의 대외관계	· 거란(요)침입 - 서희의 외교담판 - 강감찬의 귀주대첩	· 여진(금)침입 - 윤관의 별무반 - 김부식의 금 사대	· 몽골(원)침입 - 강화도 천도 - 삼별초	· 원 복속기
고려 내의 상황		·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 이자겸의 난, -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무신정변 ·무신정권	· 원의 내정간섭 · 공민왕의 개혁정치

1 호족

고려의 지배층	고려의 대외관계
호 족	· 거란(요)침입 - 서희의 외교담판-> 강동 6주 획득 - 강감찬의 귀주 대첩 - 결과: 천리장성, 나성(개경) 만듦

위캔 단원 해설

거란은 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고려를 공격한다. 고려는 서희를 내세운 외교담판으로 송과 관계를 끊기로 약속하고 대신 강동 6주를 획득한다. 이후, 거란은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지만 고려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침입하였다. 이때,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퇴각하는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다. 이 전투가 바로 귀주대첩이다. 이후, 고려는 천리장성을 쌓고 나성을 만들어 개경 수비를 튼튼히 하는 등 이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2 문벌귀족

tip) 문벌귀족: 음서를 통해 정치적 특권을 가짐.
전시과, 공음전을 통해 경제적인 특권을 가짐.
공음전이란? 공신과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된 세습이 가능한 토지

고려의 지배층	고려의 대외관계	고려 내의 상황
문벌귀족	· 여진(금)침입 - 윤관의 별무반(1104) 조직 =>결과: 동북9성 축조 tip) 여진의 반환 요청과 구경 수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1년 만에 다시 돌려줌 - 금의 사대요구: 이자겸과 김부식: 금에 사대하자 vs 묘청 서경 천도 운동: 금 사대에 반대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 이자겸의 난(1126) - 경원이씨의 권력 독점 - 문벌귀족 사회의 붕괴 시작 ·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1135) - 전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김부식의 반대 -> 서경에 나라를 건국 ->관군에 의해 진압 - 세력: 김부식(금사대, 유교) vs 묘청, 정지상 (금사대 반대, 풍수지리설) - 결과: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

위캔 단원 해설

문벌귀족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특권을 가졌다. 음서를 통해 주요 요직을 독점하며 정치적 특권을 가졌다. 전시과 ,공음전을 통해서는 경제적 특권을 유지하였다. 전시과가 월급 개념이라면, 공음전은 공신과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된 세습이 가능한 토지이다. 문벌귀족은 서로 간의 혼인을 통해 권력을 강화시켰다.

문벌귀족 시기의 고려의 대외관계로는 여진(후에 금나라)의 침입이 있다. 1104년 윤관은 별무반을 조직하여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 9성을 축조한다. 동북 9성은 북쪽에 있었기에 수비가 어려웠고 여진의 반환요청이 이어지자 1년 만에 다시 돌려준다. 이후 여진은 금나라를 세우고 고려에 사대관계를 요구한다. 당시, 이자겸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금의 요구를 수용한다. 고려 내의 상황과 잠시 연결해보자. 이자겸은 경원 이씨 출신으로 권력을 독점하였고 왕의 장인으로써 80년간 정권을 장악했다.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인종은 많은 권력을 가진 이자겸을 제거하고자 하나 실패한다. 이후, 이자겸과 이자겸의 부하인 척준경이 권력을 장악하나 결국 실패한다. 이자겸의 난은 문벌 귀족의 사회의 붕괴의 시작점이었다.

금의 사대를 찬성했던 인물로는 김부식이 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의 저자이기도 하다.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쪽 문벌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금과의 사대를 찬성했다. 하지만, 묘청과 정지상등 금과의 사대 관계에 대해 불만을 가진 자들이 늘어난다. 이들이 일으킨 운동이 바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었다. 묘청은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주장하나 이는 김부식에 의해 막힌다. 묘청은 이에 서경에 나라를 건국하나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운동을 진압된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두 세력을 보여준다. 금사대에 찬성하며,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김부식 측의 개경파와 금사대에 반대하며, 풍수지리설과 결부된 전통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서경파이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결과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이 심각해지고 이후, 문벌 귀족 사회는 무신에 의해 붕괴된다.

3 무신정권

<table>
<tr><th>고려의 지배층</th><th>고려의 대외관계</th><th>고려 내의 상황</th></tr>
<tr><td>무신</td><td>· 몽골의 침입(최우 정권당시)
- 최우: 강화도 천도함
- 처인성 전투(김윤호, 부곡민)
- 팔만대장경 만듦
- 삼별초 항쟁(강화->진도->제주도)
:몽골에 끝까지 저항함
- 황룡사 9층목탑,초조대장경 소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로</td><td>· 무신정변(1170)
- 원인: 무신에 대한 차별, 하급 군인들의 불만
- 전개: 정중부, 이의방등의 무신이 정변을 일으킴 문신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함.
- 결과: 무신 정권의 수립&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
· 무신 정권
- 권력자 변천: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씨 무신 정권: 최충헌
- 권력기반: 중방(무신 회의 기구)
· 최씨무신정권
- 기반:
<table><tr><td>정치적 기반</td><td>·교정도감: 최충헌 설치, 최고 권력 기구
·정방: 최우 설치, 인사 행정
·서방: 최우 설치, 문신을 등용하여 자문을 구함</td></tr><tr><td>군사적 기반</td><td>·도방: 경대승 설치, 사병 기관
·삼별초: 최우 설치, 치안과 전투</td></tr></table>· 하층민의 봉기
① 농민 봉기 예시)망이,망소이의 봉기
(공주 명학소) 김사미와 효심의 봉기
② 천민 봉기 예시) 만적의 봉기</td></tr>
</table>

위캔 단원 해설

무신은 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으며, 하급 군인 또한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서 무신을 중심으로 한 불만들이 쌓여 가는 상황이었다. 특히나 젊은 문신 세력이 무신을 모욕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만을 폭발했고, 이에 발생한 것이 무신정변이다. 정중부, 이의방등의 무신은 많은 문신을 죽이고 왕을 교체하였다(1170). 무신의 집권에 반발하여 조위층의 난등이 일어났지만 모두 진압되었다. 무신은 무신 회의 기구였던 중방을 중심으로 국정을 주도한다. 무신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최고 권력자가 여러 차례 교체되었다. 이의방, 정정부, 경대승, 이의민등으로 교체되다가 최충헌이 권력자로 올라오면서, 최씨 무신정권이 성립된다.

최충헌이 권력을 잡으면서 무신 정권은 안정된다. 이후 60여년 동안 최씨 무신정권이 성립된다. 최고 권력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장악했고 사병기관으로는 도방을 설치하여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최충헌의 뒤를 이은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서방을 통해서는 문신을 등용하였다.

무신은 자신의 정권 유지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회개혁에 소홀했다. 뿐만 아니라, 치안과 전투에 집중했던 무신이 문신들이 했던 정치를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최우가 서방을 설치하여 문신을 등용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사회개혁에 소홀한 모습은 하층민의 봉기로 나타난다. 공주 명학소에서는 망이, 망소이의 봉기가 있었고, 경상도 일대의 김사미와 효심의 봉기가 크게 일어났다. 천민 봉기로는 최충헌의 사노비였던 만적이 노비를 모아 봉기하려다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3 무신정권

<table>
<tr><th>고려의 지배층</th><th>고려의 대외관계</th></tr>
<tr><td>무신</td><td>· 몽골의 침입
<table>
<tr><td>1차 침입</td><td>· 원인: 몽골 사신 저고여의 피살 사건
· 결과: 최우의 강화도 천도</td></tr>
<tr><td>2차 침입</td><td>· 항전: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후와 처인 부곡민이 몽골의 사령관 살리타를 사살함
팔만대장경 간행
tip) 거란의 침입시 초조대장경 만듦
몽골의 침입시 팔만대장경 만듦</td></tr>
<tr><td>결과</td><td>· 최씨정권의 붕괴
· 문화재 소실: 황룡사 9층목탑, 초초대장경</td></tr>
<tr><td>삼별초 항쟁</td><td>· 삼별초란? 최씨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
· 항쟁: 강화도->진도->제주도로 이동하며 끝까지 항쟁함-> 이후 진압됨.</td></tr>
</table></td></tr>
</table>

위캔 단원 해설

부족을 통일하고 강성해진 몽골은 고려에 관심을 기울인다. 고려에 방문한 몽골 사신이었던 저고여가 살해되자, 이를 구실로 삼아 고려에 침입한다. 당시 최씨 정권의 최우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의 침략에 대비한다. 몽골은 초원을 삼아 움직이던 부족이었기 때문에, 물에서의 싸움에서는 약했기 때문에 강화도로 간 것이다. 이후 몽골의 두 번째로 침입해온다. 이 시기에는 노비, 부곡민 등 민중도 적극 항전한다. 유명한 전투로는 처인성 전투로, 김윤후와 처인의 부곡민이 몽골의 장수 살리타를 사살한다. 2차 침입시에는 불교의 힘을 빌어 몽골군을 몰아내고자 하는 바램을 담아 팔만대장경판을 만든다. 몽골의 침입으로 국토는 황폐화 되었으며, 인명피해가 심각했다. 최씨 정권은 이후 붕괴되어 고려는 몽골의 사위나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황룡사 9층 목탑과 거란의 침입 당시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이 불에 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몽골에게 끝까지 항전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삼별초이다. 본래 삼별초는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이들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저항하였으나 몽골군과 고려 연합군에게 진압되었다.

4 권문세족

tip) 권문세족: 친원적 성향이 강함
도평의사사, 정방, 음서를 통해 정치적 특권을 가짐
대농장 소유를 통해 경제적 특권을 가짐

고려의 지배층	고려의 대외관계	고려 내의 상황
권문세족	· 원의 내정간섭: 고려는 원의 사위 나라로 전락 - 영토 상실: 쌍성총관부(철령이북), 탐라총관부(제주), 동녕부(서경) 설치 - 호칭 격하: 폐하->전하, 태자->세자 2성6부-> 첨의부 4사 도병마사-> 도평 의사사 - 일본 원정에 동원: 정동행성을 통해 -> 실패 - 내정 간섭: 다루가치 파견, 공녀 요구 - 풍속: 몽골풍 유행	· 공민왕의 개혁정치 - 반원 자주 정책: 친원파X, 정동행성 이문소 X, 몽골풍X 왕실의 호칭과 관제 회복 - 왕권 강화 정책: 전민변정도감(신돈), 정방X, 신진사대부 등용 - 실패: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신진사대부 세력이 성장하지 못함 권문세족의 반발

위캔 단원 해설

고려는 원의 사위국가가 되었다. 고려라는 이름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자주성에는 큰 상처를 입었다. 호칭은 모두 격하되었다. 폐하는 전하로, 태자는 세자로, 뿐만 아니라 기구들의 이름들도 원의 명칭보다 낮은 표현으로 바뀌었다. 영토도 상실한다. 철령 이북에는 쌍성총관부, 제주에는 탐라총관부, 서경에는 동녕부를 설치한다.

고려를 진압한 몽골은 일본에 고개를 돌린다. 고려도 정동행성을 통해 일본 원정에 동원된다. 두 차례에 걸친 원정은 태풍으로 실패했고, 원정을 관리했던 정동행성은 고려에 계속 남아 내정을 간섭하였다. 원은 다루가치라는 관리를 통해서도 고려에 내정간섭 하였으며, 고려의 특산물과 고려의 처녀를 공물로 요구하였다.

원의 영향을 받아 몽골의 풍속(몽골풍)이 고려에서 유행하였으며, 반대로 원의 지배층 사이에서 고려의 풍습(고려양)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원의 내정간섭이 시작되면서 권문세족이 지배층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친원적 성향이 강했으며 도평의사사, 정방, 음서를 통해 정치적 특권을 가졌고 대농장 소유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다.

14세기 중엽, 원이 점차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틈타 공민왕은 개혁정치를 추진한다.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고려에 내정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또한 ,고려 내에서 유행하던 몽골의 풍습을 금지하고 왕실의 호칭과 관제도 회복하였다. 이를 통틀어 반원자주정책이라 칭한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는데, 정방을 폐지하여 인사권은 국왕에게 집중시켰다. 이후,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통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권문세족에 맞설 새로운 세력들을 등용하는데,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이다.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한다. 대외적으로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잦았고 대내적으로는 권문세족 때문이었다. 새로이 등용한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을 이길 만큼의 세력을 가지지 못했고 신돈이 제거되고 이후 공민왕마저 시해되면서 개혁은 실패한다.

3. 고려의 경제, 사회, 문화

1 고려의 경제, 사회

· **농업 기술**: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 논농사

· **상공업**: 고려전기(관청 수공업)-> 고려 후기(민간 수공업)

· **대외무역**: 벽란도를 통해 이슬람 상인 들어옴

tip) 통일 신라는 울산항을 통해 이슬람 상인 들어옴

· **전시과 제도**: 관리들에게 전지, 시지를 지급, 죽거나 퇴직하면 국가에 반납

· **여성의 지위**: 가정내 지위가 높음

예시) 동등하게 재산 상속, 돌아가면서 제사, 여자의 재가 가능, 사위와 외손자도 음서 받음

· **사회 시책: 농민 구휼책**: 흑창(흉년에 빈민구제), 의창, 제위보(기금을 마련하여 빈민구제)

물가 조절 기관: 상평창

의료 기관: 혜민국(의약 관련), 구제도감 ·구급도감(재해시 임시기관), 동서대비원(국립의료기관)

위캔 단원 해설

고려는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상업이나 수공업 부분에서의 발달은 부진하였다. 농업기술로는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와 남부 지방 일부에는 모내기(논농사)가 보급되었다. 고려 후기로 갈수록 상업, 수공업에서의 발전이 보인다. 관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수공업은 일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민간 수공업), 벽란도(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나루라는 뜻)는 고려의 국제 무역항으로 위세를 떨쳤다.

고려의 관리 월급제도는 전시과제도이다. 관리들에게 전지, 시지라 부르는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로, 죽거나 퇴직하면 국가에 반납하였다. 후에 전시과는 고려 말 과전법으로 바뀌게 된다.

고려에서 여성의 지위는 높았다. 부모의 재산은 균분 상속되었고 자식끼리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다. 여자의 재가가 자유롭고 재가한 여성의 자식이 사회를 진출할시 차별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음서의 혜택은 사위와 외손자등 외가 쪽에서도 이루어졌다. 조선 후기의 여성의 지위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다음은 사회시책이다. 첫 번째, 농민을 구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흑창, 의창, 제위복가 있다. 흑창은 평상시에는 곡물을 비축하고 흉년에는 곡물을 푸는 기관이다. 제위보는 기금을 마련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물가 조절 기관으로는 상평창이 있었는데, 풍년에 곡식을 사들이고 흉년에는 곡식을 팔아 물가를 조절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의료 기관으로는 의약을 전담하던 혜민국과 재해 발생 시 임시기관을 잠시 만들어졌던 구제도감과 구급도감, 마지막으로 국립 의료 기관 격에 속했던 동서대비원이 있다.

2 고려의 문화

	전기	중기	후기
불교		· 의천의 천태종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 교관겸수 - 국청사 창건	· 지눌의 조계종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 - 정혜쌍수, 돈오점수 - 수선사 결사
불상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좌상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여래좌상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석탑	 월정사 8각 9층 석탑 (신라 영향)		 경천사 10층 석탑 (원의 영향)

위캔 단원 해설

고려 중기 대표적 스님에는 의천이 있다. 대각국사 의천은 왕자 출신으로 출가하여 당에 유학을 가기도 했다. 의천의 불교통합 운동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천태종을 창시하고, 국청사를 창건한다.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주장하였다. 고려 후기는 지눌이 있다. 지눌은 의천과 반대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정혜쌍수(마음을 한곳에 집중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여 일체의 분별 작용을 없애는 지혜를 닦아야 한다.), 돈오점수(마음이 부처임을 깨닫고 이를 꾸준히 수행해야 경지에 이른다)를 통해 드러난다. 또한, 수선사를 결사하며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였다. 의천과 지눌은 각자 정확히 외워두는 편이 좋다. 이외에도 고려 후기 요세의 백련 결사 제창이 있다.

초기의 불상으로는 하남 하상창동 철조 석가여래좌상으로 철불이 있다. 중기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여래좌상이다. 신라의 불상 양식을 계승했으며 아미타 신앙을 볼 수 있다. 후기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는데, 이는 대형석불로 고려 후기에는 누구보다 큰 불상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다. 팁을 주자면, 누구보다 못생기고 큰 불상은 대부분 고려 후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석탑으로는 신라의 영향을 받은 월정사 8각 9층 석탑과 원의 영향을 받아 다채롭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경천사 10층 석탑이 있다. 나와 있는 문화재는 모두 한번 이상 출제된 것이다 .

2 고려의 문화

공예	 상감청자에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 그림
절	 부석사 (고려 후기 목조건축물) tip)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배흘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을 가짐.
역사서	· 김부식의 삼국사기: 유교적 사관, 기전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 일연의 삼국유사: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 단군의 건국이야기 수록 · 이규보의 동명왕편: 고구려 계승의식
인쇄	· 목판 : 초조대장경(거란 침입시 만듦)-> 몽골 침입시 불탐. 팔만대장경(몽골 침입시 만듦), 현재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있음. · 금속 : 상정고금예문(현존x 기록에만), 직지심체요절(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금속활자본)

위캔 단원 해설

고려의 공예로는 고려의 독특한 기술인 상감법과 청자가 합쳐진 상감청자가 있다. 이외에도 나전칠기 공예가 발달하였다.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배흘림 기둥(기둥의 중간이 굵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에 주심포 양식으로 축조되었다. 다포형식으로는 성불사 응진전이 있다.

역사서는 모두 중요하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교적 사관에 따라 쓰였으며,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일연의 삼국유사는 고대의 민간 신화를 수록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단국의 건국이야기이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동명왕의 영웅 서사시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목판 인쇄로는 거란의 침입시 만든 초조대장경과 몽골 침입시 만든 팔만대장경이 있다. 초조대장경은 몽골의 침입 당시 불탔다. 팔만대장경은 현재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다. 주의할 점은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시대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금속 인쇄로는 상정고금예문과(현재 현존하지 않는다) 직지심체요절이 있다. 직지 심체요절은 현존하는 금속 활자본 중 가장 오래되었다.

또 알아두면 좋을 점은 화약을 만든 최무선과 목화를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문익점이다.

Ⅳ 조선의 성립과 발전

1. 통치 체제의 정비

1 조선의 건국

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② 신진사대부의 분화:
- 온건 개혁파: 고려 유지를 유지하면서, 개혁 (이색, 정몽주)
- 급진 개혁파: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정도전)

③ 과전법 실시(수조권을 주는 것):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신진 관리에게 이를 재분배함.
tip) 수조권이란? 토지의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
④ 급진 개혁파의 정권 장악과 온건 개혁파 제거
⑤ 조선 건국(1392)
tip) 순서 정리하기
위화도 회군 -> **과전법-> 조선건국 (순서 기억할 것!)**

2 조선 초기의 정책

태조(이성계)	- 국호: 조선 - 수도: 한양 - 정도전: 재상 중심의 정치 주장함. 집필한 저서: <경제문감> <불씨잡변>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확립함.
태종(이방원)	- 2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 즉위 - 왕권 강화를 중요시: 6조 직계제, 사병폐지 (군사지휘권을 왕을 중심으로) - 호패법, 신문고,양전사업

위캔 단원 해설

고려 말, 명은 철령 이북의 땅을 직접 다스리겠다고 고려에 통보하였다. 이에 고려 왕실은 요동정벌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요동정벌에 반대한 이성계는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군대를 되돌려 정치권력을 장악하였다.(위화도 회군) 이후 신진사대부는 개혁을 두고 두 갈래로 나뉘어 졌다. 이색과 정몽주 등은 고려를 왕조를 유지하면서 개혁하고자 했다. 반대로 정도전과 같은 급진개혁파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모든 것을 갈아엎자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적인 방안으로 일단,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이는 권문세족의 토지를 모두 몰수하고 신진 관리에게 재분배하는 것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신진 관리에게 재분배한 토지가 아닌 토지의 수조권을 주는 것이다. 수조권이란 토지의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급진 개혁파가 정몽주 등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조선이 건국된다. 태조 이성계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아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한양으로 하였다. 한양에는 경복궁을 비롯하여 궁궐, 종묘 등 여러 건물이 세워졌다. 태조시기의 정치는 개국 공신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나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고,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확립하였다. 정도전의 저서로는 <경제문감>,<불씨잡변>등이 있다.
왕자의 난을 통해 즉위한 태종은 왕권 강화를 중요시하였다. 이에 6조 직계제를 통해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또한, 사병을 없애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이외에도 호패법, 양전사업, 신문고를 통해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2 조선 초기의 정책

세종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 유교 정치와 유교적 민본 사상 실현 -집현전, 의정부 서사제 -편찬 사업: <농사직설><향약집성방><의방유취><칠정산> -조세 제도 정비: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세종시기 문화 정리 훈민정음 창제, 삼강행실도, 농사직설(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 칠정산(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 향약집성방(풍토에 맞는 약재, 치료), 의방유취(의학 백과사전) 측우기, 앙부일구, 혼천의, 자격루
단종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실권 장악 -단종 복위 운동 실패: 사육신, 생육신
세조	-왕권 강화: 6조 직계제 -집현전, 경연 폐지 -<경국대전> 편찬 시작 -직전법 실시(현직관리에만 토지 지급)
성종	-<경국대전>,<국조오례의>완성 -홍문관 설치(집현전을 계승함) -경연 시행

tip)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란?
의정부 서사제: 6조->의정부->왕, 6조에서 올라오는 일을 의정부가 논의한 후 왕에게 전달
6조 직계제: 6조->왕, 6조에서 올라오는 일을 의정부에 거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전달
=>왕권 강화와 연결

위캔 단원 해설

세종은 태종이 마련한 강력한 왕권 속에서 유교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였다. 집현전을 통해 학문과 정책 연구를 담당하게 하고, 경연을 활성화시켰다. 아버지 태종과는 다르게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편찬 사업으로는 <농사직설>,<향약집성방><의방유취>,<칠정산> 다양한 책이 있다. 조세 제도 또한 새로 정비했는데, 비옥도와 풍흉에 따른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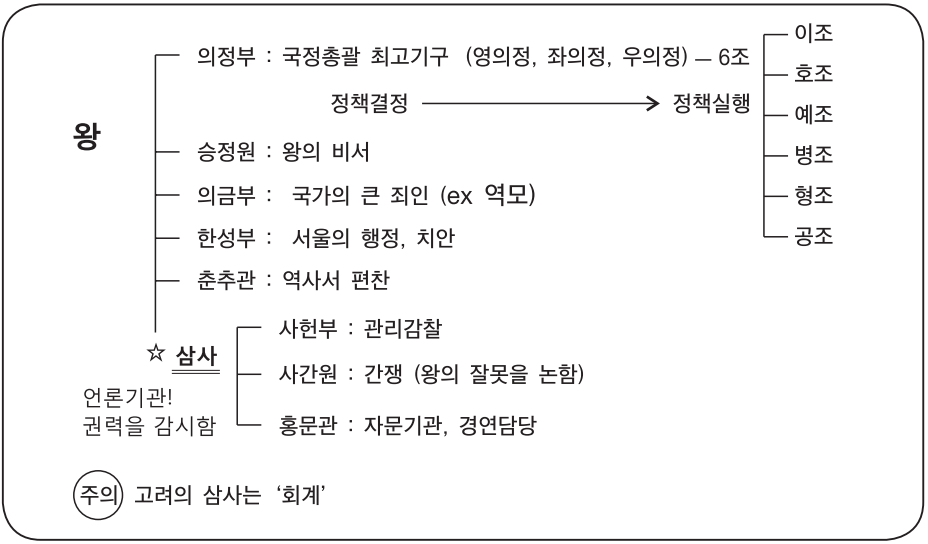
단종은 어린 나이에 즉위한다. 하지만 계유정난을 통해 수양대군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세조로 등극한다. 단종을 복위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지만 모두 실패한다. 세조는 왕권 강화정책으로 6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한다. 당시, 과전법과 관련하여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직전법은 전직 관리를 제외한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활성화한다. 세조시기에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시기에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으며 또한 <국조오례의>를 완성한다.

tip)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란?

의정부 서사제란, 6조에서 올라오는 일을 의정부가 논의한 후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6조 직계제란 6조에서 올라오는 일을 의정부에 거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전달한다. 이는 신하의 의견을 줄이고 의사결정에 있어 왕의 권한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3 중앙 정치 조직



4 지방 행정 조직

· 8도(관찰사 파견) tip) 조선은 관찰사를 파견, 고려는 안찰사를 파견
· 부,목,군,현(수령 파견) - 전국의 모든 군현에 파견 -> 고려의 속현과 향,부곡, 소가 사라짐 · 향리: 세력이 약해짐, 수령을 도와 행정 실무 보좌 tip) 비교 고려의 향리: 세력이 강, 실질적인 행정 실무 담당

위캔 단원 해설

조선의 중앙 정치 조직이다.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는 의정부가 있다. 의정부 아래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6조가 있었다. 6조는 이름에 따라 각 담당하는 바가 다른 부처였다. 이외에도 왕의 비서 역할인 승정원, 국가의 큰 죄인(역모 수준의)을 잡아들이는 의금부,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역사서를 편찬하는 춘추관이 있다. 주의해서 봐야할 기관은 삼사이다. 삼사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으로 이루어졌다. 사헌부는 관리를 감찰하였고 사간헌은 간쟁(왕의 잘못을 논함)하였고 홍문관은 왕의 자문기관으로 왕과 신하간의 토론인 경연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삼사는 언론 기관으로 권력을 감시하였다. 고려의 삼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은 관찰사를 파견하는 8도와 그 아래의 수령을 파견하는 부,목,군,현으로 이루어졌다. 고려와는 달리 전국의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고, 이에 향리들의 세력은 수령을 도와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수준으로까지 세력이 낮아졌다. 또한, 고려와의 차이점은 속현, 향, 부곡, 소가 사라진 점이다. 조선은 전국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면서 지방에 대한 중앙 지배력을 높였다.

5 과거제도

· 문과, 무과, 잡과 시행
- 3년마다 정기적인 시험을 봄, 이외에도 특별 시험이 존재
- 양인 이상 응시 가능.

tip) 탐관 오리의 아들, 서얼, 재혼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는 문과 시험에 제한이 있었음.
실제로 문과 시험에는 양반층만 응시 했음.
평민은 시험을 준비할 여력이 되지 못함.

- 고려와의 차이점: 고려는 무과 시행을 하지 않음.
조선은 음서의 혜택이 축소됨(거의 없는 수준이었음)

6 교육기관

· 성균관(최고 교육기관)
· 서당(사립 초등 교육 기관), 4부학당(서울), 향교(지방)
· 규장각(정조시기 만듦, 갑신정변 시기 폐지 시도가 있었음)

7 교통과 통신제도

·조운: 수로와 해로를 통해 조세 운송
·봉수제: 연기와 횃불을 통해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 용도

위캔 단원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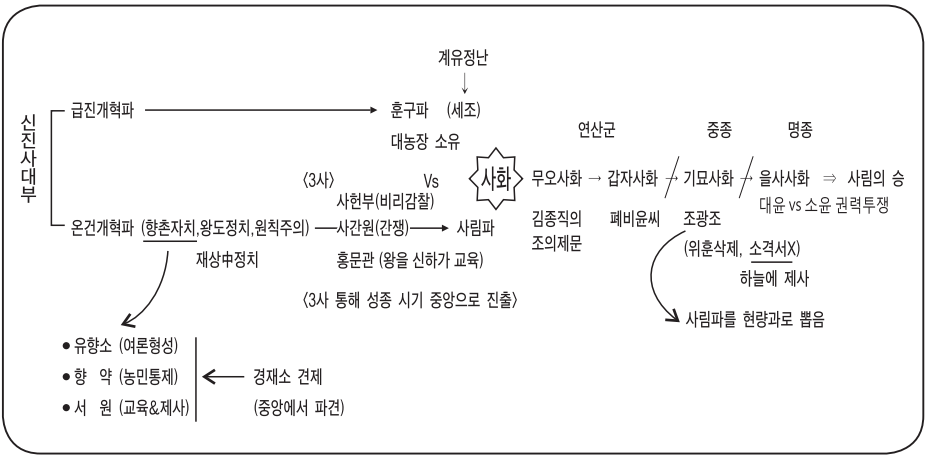
과거로는 문과, 무과, 잡과를 시행하였다. 3년 마다 정기적인 시험을 보았는데, 이외에도 국가에 기쁜 일이 있을 때 특별 시험을 보기도 하였다. 문과는 관료를, 무과는 장군을, 잡과는 기술관을 뽑았다. 양인 이상 응시가 가능하였는데, 대신 탐관 오리의 자식이나 첩의 아들인 서얼,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문과 시험에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반층을 중심으로 과거 시험이 이루어졌다. 이는 일반 평민은 시험을 준비할 시간과 돈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려와의 차이점은 고려는 무과를 시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고려는 음서를 중심으로 관료를 선출한 반면 조선은 음서의 혜택이 축소되어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조선의 교육기관으로는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 사립 초등 교육기관인 서당, 서울의 4부학당, 지방의 향교가 있다. 정조시기는 규장각을 만든다.

조세는 수로, 해로등 물을 통해 운송하였다. 나라의 급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연기와 횃불을 통해 급한 상황을 알렸는데 이를 봉수제라고 한다.

2. 사림의 대두와 붕당 정치의 성립

1 사림의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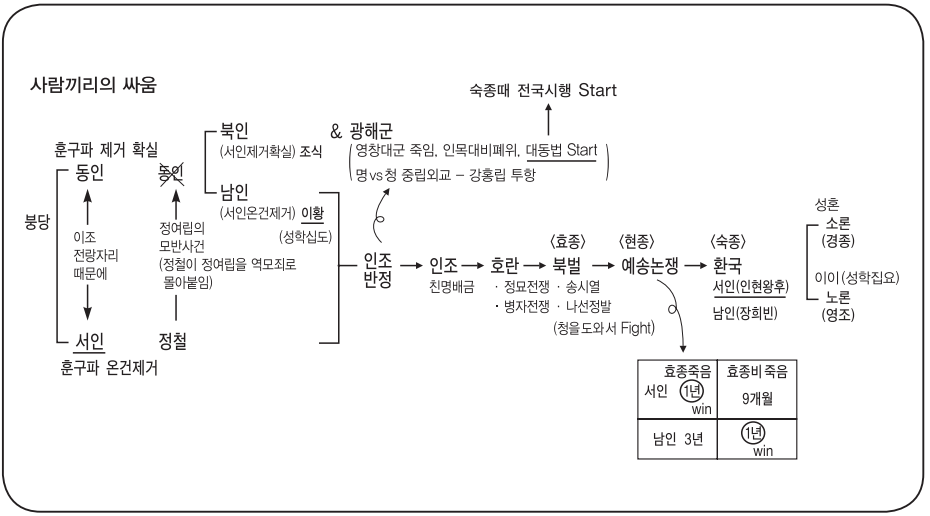


위캔 단원 해설

신진사대부의 분화부터 시작하여 사화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 말 신진사대부는 급진 개혁파와 온건개혁파로 나뉘었다. 급진 개혁파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고, 온건 개혁파는 고려를 유지하되 이 안에서 개혁을 하고자 했다. 결국, 급진개화파가 이기면서 조선이 건국된다. 조선은 급진 개혁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급진 개혁파는 중앙을 집권했고, 부국강병과 실용주의를 내세웠다. 반대로 밀려나게 된 온건개혁파는 지방으로 내려간다. 이들은 향촌에서 자치를 통해 자신의 세력을 키워간다. 유향소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향약을 통해 농민을 통제했으며, 서원을 통해 유교를 교육하고 제사를 지냈다. 이들은 왕도 정치(재상 중심의 정치)와 원칙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 온건 개혁파가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나가자 중앙에서는 경재소를 파견하여 이들을 견제한다.

급진개혁파는 세조시기 계유정난을 도우면서 훈구파로 발돋움한다. 이들은 대농장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얻었다. 온건 개혁파가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한 시기는 성종시기이다. 3사를 통해 사림파는 중앙에 진출했다. 중앙에서 만나게 된 훈구파(급진개혁파)와 사림파(온건개혁파)의 충돌은 예견된 사항이었다. 4번의 사화가 발생한다. 사화란 '사림이 화를 입다'란 뜻이다. 연산군 시기 두 번의 사화가 발생한다.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을 비판한 글)로 무오사화가 발생했고, 폐비윤씨(연산군의 어머니) 사건을 바탕으로 갑자사화가 발생했다. 중종 시기는 기묘사화가 발생했다. 중종은 훈구파를 견제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등용하였다. 조광조는 훈구파의 공을 적어놓은 위훈을 삭제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를 폐지하였다. 또한, 사림파를 현량과를 통해 중앙으로 등용하였다. 조광조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훈구파의 반발로 기묘사화가 일어난다. 명종 시기는 대윤과 소윤간의 권력 투쟁 속에서 을사사화가 일어난다. 4번의 사화로 인해 많은 사림들이 정계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당하였다. 하지만, 사림의 기반은 지방에 있었다. 지방에서 계속 사림세력이 올라오면서, 사림은 결국 중앙을 차지하게 된다.

2 붕당의 과정



위캔 단원 해설

다음은 사림 세력이 분화되면서 붕당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붕당은 사림 세력 간의 싸움으로도 볼 수 있다. 사림은 이조 전랑 자리(인사권을 가지고, 후임 전랑의 추천권 등 여러 특권을 가진 자리)를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었다. 이들은 훈구파를 제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동인은 확실히 훈구파를 제거하고자 하였고 서인은 훈구파를 온건하게 제거하고자 하였다. 서인은 후에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을 몰아낸다. 서인인 정철이 동인인 정여립을 역모죄로 몰아붙인 사건이다. 이후, 동인은 북인(서인 확실히 제거하자)과 남인(서인 온건제거하자)으로 세력이 나눠진다. 서인은 정철이 왕에게 세자 건의를 했다가 세력이 축소된다.

북인은 광해군과 연합한다. 하지만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위했으며, 명과 청사이의 중립외교로 신하들의 반발을 산다. 결국 인조반정과 함께 북인과 광해군은 함께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남은 세력은 이제 남인과 서인이었다.

이들은 이후 현종시기 예송논쟁으로 다시 맞붙게 된다. 예송논쟁은 효종이 장남이 아닌 차남이었기에 발생한 문제였다.(차남이 죽을 시 1년 동안 상복을 입는다. 하지만 효종은 왕이었기 때문에 장남과 다름이 없다고 여겨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효종의 죽음 이후, 서인은 1년동안, 남인은 3년동안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종은 처음에는 서인의 편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후 효종비의 죽음에 있어서는 남인의 편을 들어준다.

숙종 시기는 환국이었다. 환국이란 손바닥을 뒤집듯이 모든 세력을 한번에 뒤집어버리는 것이었다. 이시기 정국은 급격하게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된다.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장희빈과 인현왕후는 사실 서인과 남인의 세력이었다. 인현왕후는 서인, 장희빈은 남인 세력이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다툼은 당시의 세력 싸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후 서인은 소론과 노론으로 나누어진다.

이후의 과정은 탕평정치이다. 진정한 탕평정치는 영조, 정조 시기부터 이루어진다.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해 왕권을 강화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3.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와 양난

1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사대교린 정책

사대	명	· 실리외교
교린	여진	· 강경책: 4군 6진 개척(세종), 사민정책(백성이민)
		· 온건책: 무역소 설치
	일본	· 강경책: 쓰시마 정벌(세종시기, 이종무가)
		· 온건책: 3포 개항(부산포, 제포, 연포) -> 3포왜란(중종, 비변사설치 ->을묘왜변(명종, 비변사 상설기구화) ->임진왜란(선조, 비변사가 최고 정무기구로) -> 정유재란->기유약조(광해군) ->통신사파견

2 임진왜란

· 배경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 진출, 전국시대 이후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자
· **경과 : ① 부산진, 동래진 함락-> 선조의 의주 피난-> 한양 점령**
② 명에 원군 요청
③ 수군의 활약(이순신, 한산도 대첩 +의병의 활약,조명 연합국의 반격(평양 되찾음)
행주대첩(권율), 진주대첩(김시민)
④ 명과 일본의 협상-> 결렬 ⑤ 정유재란(일본의 재침입)->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⑥ 왜군 철수(마지막 전투: 노량 해전)
· 결과: 의정부, 6조-> 비변사로 바뀜, 중앙군: 5위->훈련도감(직업군인)으로 바뀜
지방군: 영진군-> 속오군으로 바뀜

위캔 단원 해설

조선의 대외관계는 사대교린 정책이다. 명에게는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는 사대관계였다. 조선이 1의 조공을 하면 명은 10의 것을 조선에게 제공해주었다. 조공책봉 관계로 대표되는 사대는 실리외교였다. 여진과 일본에게는 교린 정책을 펼친다. 교린은 강경책과 온건책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여진에는 4군 6진 개척, 사민 정책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무역소를 설치하여 그들과의 무역을 이어나간다. 일본에게는 세종시기 이종무를 통한 쓰시마 정벌등의 강경책을 펼친다. 반대로, 온건책에는 여진과 비슷하게 3포(부산포, 연포, 제포)를 개항하여 그들과 무역한다. 3포 개항과 관련하여 더 말하자면, 3포를 중심으로 중종시기 왜란이 발생한다. 이때 비변사가 설치된다. 비변사란, 국가의 전쟁 시 임시로 설치하는 기구이다. 명종 시기는 을묘왜변이 발생하는데 이 시기 비변사가 상설 기구화된다. 그리고 이것이 큰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임진왜란 이전 일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이후 대륙 진출의 욕심을 가지고 조선에 눈길을 돌렸다. 또한, 100년의 전국시대 속에서 일본은 싸움이 일상이 되었다. 갑작스레 싸움을 멈추니 이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를 조선으로 돌렸다. 임진왜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과정은 중요하다.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부산진, 동래진이 함락되었고 일본은 한양까지 들어왔다. 선조는 이때, 의주로 피난을 가서 명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명의 원군과 함께 조선의 반격이 시작된다. 명의 도움도 있었지만 이순신등 수군의 활약(한산도 대첩)과 의병의 활약(지리를 이용하여 승리를 얻어냄) 돋보였다. 이외에도 권율의 행주대첩과 김시민의 진주대첩은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비등비등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명과 일본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하지만,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고 일본이 재침입한다. 이것이 바로 정유재란이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왜군은 철수하게 된다. 왜군과 조선의 마지막 전투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순신의 노량해전이다.

임진왜란은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제도에도 영향을 끼친다.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은 비변사가 담당하게 되었고, 중앙군 5위는 훈련도감(직업군인)으로 바뀌었다. 지방군인 영진군은 속오군으로 바뀐다. 임진왜란 당시 많은 기술자와 도공이 일본으로 끌려가게 된다. 임진왜란을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라 부르기도 한다.

Ⅴ 조선 사회의 변동

1.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

1 조선 후기의 정치과정

광해군	· 중립외교 - 당시 정세: 여진의 성장(후금 건국) vs 명(조선에 도움 요청) - 중립 외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 추구 강홍립 파견: 명을 위해 싸우는 척 하면서 후금에 항복함	
인조반정	· 원인: 명에 대한 의리 강조-> 중립외교 비판 영창 대군 살해, 인목대비 유폐 등 광해군의 비윤리적 모습 · 결과: 인조 즉위, 서인 집권	
인조	· 정묘호란 - 배경: 친명배금 정책 - 결과: 후금과 형제관계 맺음	· 병자호란 - 배경: 후금-> 청으로 바뀜, 조선에 군신관계 요구 - 전개: 척화론(청과 싸우자)vs 주화론(청과 화해) - 결과: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 체결 청에 공물 제공, 소현세자가 청에 인질로 감
효종	· 북벌운동: 청을 정벌하여 복수하자 - 효종, 송시열의 주도 - 전개: 군사제도 정비, 무기강화 - 결과: 청의 원병 요청-> 나선정벌(러시아와 싸움), 북학론(청의 문화를 수용하자)	
현종	예송논쟁	
숙종	환국: 서인(인현왕후)vs 남인(장희빈)	
탕평	붕당X 세력균형을 유지하자	

위캔 단원 해설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기유약조를 맺어 교류를 다시 시작한다.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파견하여 일본에 선진문물을 전파한다. 하지만, 왜란이 조선에서 가시기 전에 후금의 위협이 찾아왔다. 대외적으로 명이 쇠약해지면서 후금이 강성해진 것이다. 광해군은 후금과 명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통해 실리를 추구한다. 명의 요구에 따라 강홍립을 파견하나 싸우는 척하면서 후금에 항복한다.

조선은 임진왜란 당시 도움을 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광해군은 행실에 있어서도 동생인 영창 대군 살해, 인목대비 유폐등의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를 문제삼아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인조와 인조반정을 도운 서인이 집권하게 된다.

인조 시기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2개의 호란이 발발한다. 정묘호란 인조정권의 친명배금 정책을 문제삼아 후금이 쳐들어온다. 결과로 조선은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는다. 그 후 세력이 더 강해진 후금이 조선에 군신관계를 강요해왔다. 조선에서는 청과 싸워야 한다는 척화론과 청과 화해해야 한다는 주화론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결국, '오랑캐에게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따라 후금의 군신관계를 거부하였다.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했지만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체결한다. 이후, 조선은 청에 공물을 제공하고 소현세자가 청에 인질로 간다.

효종은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씻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북벌운동을 시작하였다. 효종, 송시열의 주도로 이루어진 북벌운동을 통해 군사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무기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청에 복수하기 위해 시작한 북벌은 오히려 청을 도와주는데 사용되었다. 청의 원병 요청으로 나선정벌 을 통해 러시아와 싸운다. 청과 관련해서는 청의 문화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이 제기되면서, 북벌론은 점차 사라진다.

2 탕평 정치

개혁정치	영 조	정 조
탕평책	· 성균관에 탕평비 건립 · 산림 부정(재야에 은거하는 선비) · 서원 정리 · 이조전랑의 권한 약화	· 적극적인 탕평책 · 붕당에 관계없이 인재 등용 · 향약의 관리를 수령에게 (사림 영향력 낮아짐)
개혁정치	· 균역법(군포에 1년에 1필) · 신문고 부활 · 형벌제도 완화	· 규장각 육성 · 초계문신제(임금이 신하를 교육) · 장용영(왕의 친위부대) · 수원화정(거중기 by 정약용) · 서얼 차별 완화 (박제가, 유득공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 · 신해통공(금난전권폐지) tip) 금난전권이란? 길거리 상인이 길거리 장사 못하도록 하는 것 (길거리 상인= 허가받지 않은 장사)
책	속대전, 동국문헌비고	대전통편, 동문휘고, 탁지지

위캔 단원 해설

영조는 탕평파를 적극 육성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시작한다. 또한,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성균관에 탕평비를 건립한다. 사림의 세력을 축소하기 위해 산림(재야에 은거하는 선비)을 부정하고 서원을 정리했으며, 붕당의 원인이 되었던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개혁정치로는 군포를 1년에 1필만 내게 하는 균역법을 실시하여 백성의 군역 부담을 줄였다. 또한, 신문고를 부활하고 형벌제도를 완화한다. 영조 당시의 책으로는 속대전, 동국문헌비고가 있다.

정조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통해, 붕당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한다. 사림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향약의 관리를 수령에 맡긴다.

개혁정치로는 규장각을 설립하고, 박제가, 유득공등의 서얼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하였다. 이는 서얼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다는 점과 맞닿는다. 임금이 신하를 교육하는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친위 분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칠 공간인 수원화성을 축조하였는데, 수원화성 축조에는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가 이용되었다.. 경제적으로는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을 발표한다. 금난전권이란 허가받지 않은 길거리 상인이 길거리 장사를 못하도록 허가받은 상점이 막을 권리이다. 정조 당시의 책으로는 대전통편, 동문휘고, 탁지지가 있다.

탕평은 붕당 간의 싸움을 완화하여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영조와 정조는 개혁정치를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탕평은 완전하지 못했다. 잠시 붕당을 조정했을 뿐 붕당 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3 19c 세도 정치

· 세도정치란?
- 소수의 유력 가문(안동 김씨, 풍양 조씨)이 60여 년간 정치를 주도
- 폐단: 매관매직(관직을 사고팜), 탐관오리의 백성 수탈-> 부정부패 심화
- 세도정치의 핵심기구: 비변사

· 삼정의 문란
- 문제가 심각했음
- 전정(토지 관련 세금): 기준보다 많은 세금 징수
- 군정(군대 관련 세금): 백골징포(죽은 사람에게 세금 징수), 황구첨정(어린아이에게 징수)
- 환곡(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기): 고리대금으로 변질

· 사회의 움직임
- 예언 사상 유행: 미륵이 민중을 구제한다, 정감록(정씨가 새로운 세상을 연다)
  비기, 도참(말세, 왕조의 교체, 전쟁 등을 예언)
- 서학(학문으로 들어옴-> 종교적으로 확산):
- 평등사상으로 백성의 지지를 받음
  ->정부의 탄압 why?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
  ->신유박해(순조,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
- 동학(최제우 창시): 인내천(사람이 곧 하늘이다), 보국안민(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 주장
  ->정부의 탄압-> 최제우 처형
  ->2대교주인 최시형이 <동경대전> <용담유사>등으로 교리 정리

위캔 단원 해설

19c는 외척이 권력을 독점한 시기였다. 소수의 유력 가문(안동 김씨, 풍양 조씨)이 60여 년간 정치를 주도하였다. 세도 정치는 비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 폐단이 발생한다. 매관매직(관직을 사고팜), 탐관오리의 백성 수탈등 부정부패 점차 심화된다.

특히나 삼정의 문란 관련 문제가 심각했다. 전정(토지 관련 세금)과 관련해서는 기준보다 많은 세금 징수되었다. 군정(군대 관련 세금)과 관련해서는 백골징포(죽은 사람에게 세금 징수), 황구첨정(어린아이에게 징수)등의 상황이 벌어졌다. 환곡(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기)은 고리대금으로 변질되어 백성을 괴롭혔다.

폐단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 움직임이 보인다. 특히나, 예언 사상 유행했다. 미륵이 민중을 구제한다, 정감록(정씨가 새로운 세상을 연다)등의 말들이 돌아다녔다. 또한 비기, 도참(말세, 왕조의 교체, 전쟁 등을 예언)등의 예언이 확산된다.

이 시기는 학문으로 들어온 서학이 종교적으로 확산되기도 한 시기이다. 서학의 평등사상이 백성의 지지를 얻어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학은 정부의 탄압을 받는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고 평등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학에 대한 탄압으로는 신유박해(순조,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가 있다. 서학에 반대하여 최제우는 동학을 창시한다. 동학은 인내천(사람이 곧 하늘이다)사상과 보국안민(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을 주장한다. 하지만, 동학 또한 정부의 탄압을 받는다. 이에, 1대 교주인 최제우가 처형되고, 2대교주인 최시형이 <동경대전><용담유사>등으로 교리를 정리한다.

3 19c 세도 정치

· 농민 봉기

- 홍경래의 난
  원인: 평안도에 대한 지역 차별
  전개: 홍경래를 중심으로 농민, 상인등이 합세 ->청천강 이북까지 점령,정주성 함락

- 임술농민봉기
  전개: 진주농민봉기-> 삼남~함흥까지 전국적으로 확산
  결과: 삼정이정청 설립(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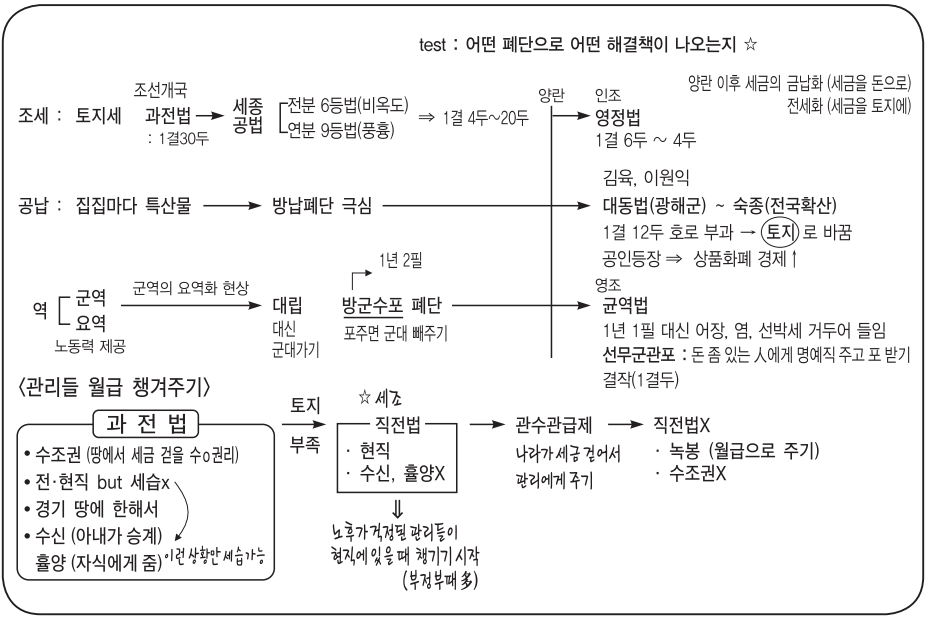
위캔 단원 해설

부정부패로 피폐해진 농민은 정부에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평안도에 대한 지역 차별과 지배층의 수탈에 항거하여 홍경래는 난을 일으킨다. 홍경래를 중심으로 농민, 상인 등이 합세하고 이들은 청천강 이북까지 점령하고 정주성 함락시킨다. 이들은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뒤에 일어난 농민봉기에 영향을 끼친다.

임술농민봉기는 진주에서 시작된 농민봉기 삼남~함흥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된 봉기이다. 진주에서는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학에 반대하여 민란이 발생하였다. 농민의 주된 요구는 지방관의 수탈로 인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후 정부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립하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2. 조선의 경제, 사회 변화

1 수취체제의 변화



위캔 단원 해설

조세는 토지세, 공납은 특산물, 역은 노동(요역)이나 군대(군역) 말한다. 양란이후 세금은 큰 변화를 가지게 된다. 세금을 돈으로 내는 금납화와 세금을 토지에 부과하는 전세화가 그 특징이다.

조선 개국 초기에는 과전법이 토지세였다(1결당 30두의 토지세를 부과). 세종시기에는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토지를 세세하게 나누어 세를 부과한다(1결당 4두~20두의 토지를 부과). 양란을 거치면서 인조시기 1결당 4두~6두로 토지세를 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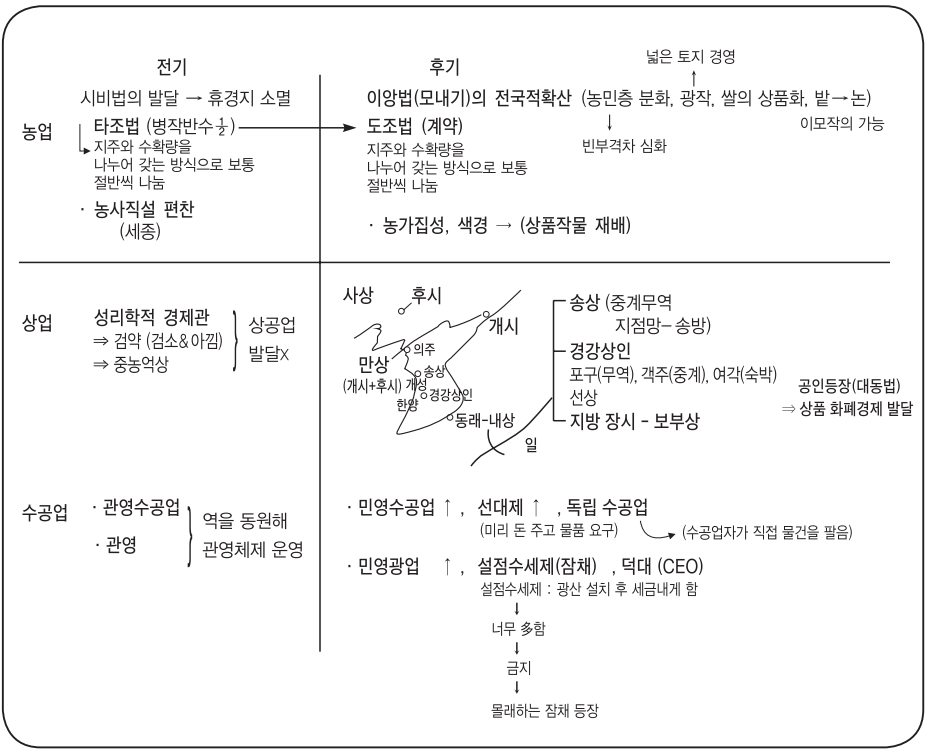
공납은 집집마다 특산물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방납의 폐단이 심했다는 것이다. 모든 백성이 지역의 특산물을 농사짓는 것은 아니었다. 그랬기에 관청에서 대신 공납을 내주곤 하였다. 문제는 관청에서 대신 공납을 내주는 대신 많은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양란이후 공납은 대동법으로 바뀌게 된다. 대동법은 광해군 시기 시작되어 숙종 시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집집마다 부과하던 공납을 토지로 바꾸고, 쌀로 내게 한다. 그러면서, 왕에게 진상되어야 할 특산물이 쌀로 바뀌자, 특산물을 사러 다니는 사람이 등장한다. 바로 공인이다. 공인이 등장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역은 군역과 노역이 있었다. 백성들은 군역보다는 노역을 선호하였다. 그래서, 대신 군대를 가주는 대립이나 포를 주면 군대를 빼주는 등의 방군수포 문제가 발생하였다. 양란이후 영조는 1년에 1필만 대면 요역을 면제해주는 균역법을 실시한다. 세금을 줄임으로써 나타나는 손해를 채우기 위해 어장, 염, 선박세 등을 거둔다. 또한 돈이 있는 사람에게 명예직을 주고 포를 받는 선무군관포나 결작(토지 1결당 2두를 내게 함) 실시한다.

관리들의 월급과 관련한 부분이다. 과전법은 땅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었다.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지역의 땅이 주어졌으며, 세습은 하지 못했다. 대신,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내가 과전을 세습하는 수신이나, 자식이 과전을 세습하는 휼양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허락되었다.

점차,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땅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세조는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부과하고 세습이 가능했던 수신, 휼양을 없애기 시작한다. 토지는 관리들에게 연금과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세조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자 노후가 걱정된 관리들이 현직에 있을 때 이득을 취하고자 하면서 부정부패가 심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가 세금을 걷어서 관리를 주는 방식인 관수관급제를 실시하다가 결국 직전법을 폐지하고 녹봉(월급의 형태)로 관리의 월급을 해결한다.

2 농상공업 변화



위캔 단원 해설

다음은 농업, 상공업의 변화이다. 농업부터 시작한다.

조선 전기에는 시비법이 발달하여, 휴경지(놀고 있는 땅)가 없이 모든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후기에는 이앙법(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농사가 더욱 발전된다. 넓은 토지를 경영하여 부농층이 나타나고 쌀이 상품화 되고, 이모작이 가능하게 된다. 조선 전기에는 타조법, 즉 지주와 소작인이 소확량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방식을 취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계약에 따라 수확량을 나누는 도조법으로 바뀐다. 전기의 농사 서적으로는 세종시기의 농사직설이 있고, 후기의 농사 서적으로는 농가집성과 상품작물 재배와 관련한 색경이 있다.

조선 전기의 상업은 성리학적인 경제관에 따라 발달되지 못했다. 성리학에서는 검소하고 아낄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업을 높이고 상업을 낮추는 중농억상 정책을 펼쳤다. 수공업과 광업도 마찬가지였다. 관영수공업과 관영에서 운영되는 광업만이 있었을 뿐, 개인에게서 운영되는 모습은 적었다.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인다. 상업에서는 송상들이 들어났다. 청나라와의 개시와 후시 무역을 통해 성장한 의주의 만상, 중계무역과 지점망인 송방을 통해 성장한 개성의 송상이 있다. 송상은 인삼업으로도 유명했다. 또한, 포구(무역),객주(중계), 여각(숙박)을 통해 성장한 한양의 경강상인,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한 동래의 내상이 나타난다. 지방에서는 장시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보부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동법이 시작되면서 공인이 등장하였고 상품 화폐경제가 발달한다. 조선 후기는 수공업과 광업도 민영 수준에서 발달한다. 미리 돈을 주고 물품을 요구하는 선대제가 늘어났으며, 개인이 독립적인 수공업을 통해 자신이 만든 물건을 직접 팔았다. 민영으로는 설점수세재(잠채)가 나타났다. 국가에서는 광산을 설치한 후 세금을 내게 하였다. 하지만, 광산을 개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자 이를 금지하였는데, 정부의 눈을 피해 몰래 광산을 개발하는 잠채가 나타났다. 이후에도 광산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덕대가 등장한다.

3. 조선 전기~후기의 문화

1 조선 전기~후기의 문화

	전기	후기
건축	 원각사지 10층 석탑 해인사장경판전 tip)팔만대장경판은 고려(몽골침입)때, 장경판전은 조선! 무위사 극락전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공예	 분청사기	 청화백자

위캔 단원 해설

조선 전기의 건축에는 불교 건축물인, 원각사지 10층 석탑, 해인사 장경판전, 무위사 극락전이 있다. 이들을 통해서는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볼 수 있다. 후기에는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이 있다. 공예로는 분청사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깨끗함을 나타내는 백자가 유행하였다.

1 조선 전기~후기의 문화

	전기	후기
그림	 고사관수도(강희안) 몽유도원도(안견)	진경산수화: 자연을 사실적으로 인왕제색도(정선) 금강전도(정선) 풍속화: 서당(김홍도) 미인도(신윤복) 민화: 까치와 호랑이

tip) 서민문화의 발달 : 한글소설, 사설시조, 판소리, 탈놀이

위캔 단원 해설

다음은 그림이다. 조선 전기에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있다. 후기에는 진경산수화, 풍속화, 민화등 새로운 형태의 그림이 유행한다. 진경산수화는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그림으로,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가 있다. 풍속은 서민의 생활을 나타낸 그림으로 김홍도와 신윤복이 유명하다. 김홍도의 서당, 신윤복의 미인도를 통해 당시 삶을 엿볼 수 있다. 민화는 해, 달, 나무, 물고기 등을 소재로 서민들의 미적 감각이 나타나 있다. 대표적 민화로는 까치와 호랑이가 있다. 조선 후기는 민화와 같이 서민문화가 발달하여 한글 소설, 사설시조, 판소리 ,탈놀이와 같은 서민문화가 등장한다.

1 조선 전기~후기의 문화

	전기	후기
지도	· 태종: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됨, 세계지도)	 **대동여지도(김정호)** tip) ·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을 자세하게 표시, 10리마다 눈금 · 이중환의 <택리지> tip) 인문지리서의 형태에 가까움.
역사서	· 조선왕조실록: 세계기록 유산 · 삼강행실도(세종시기) :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과 함께 설명 · 농사직설(세종시기) :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법 · 경국대전(성종) : 조선의 기본 법전	· 유득공<발해고>- 발해의 역사 · 이수광<지봉유설> · 허준<동의보감>

위캔 단원 해설

조선 전기의 지도로는 태종시기 혼일강리역대국도가 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이다. 후기에는 김정호의 대통여지도가 있다.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들을 자세하게 표시하였으며, 10리마다 눈금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이중환의 택리지가 있다. 이는 인문 지리서의 형태에 가까운데, 지금의 관광안내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조선 전기의 역사서에는 조선왕조실록으로 현재, 세계 기록 유산이다. 이외에도 세종시기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여 백성에게 퍼뜨린 삼강행실도와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법을 적은 농사직설이 있다. 성종시기에는 조선의 기본 법적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조선 후기의 역사서에는 발해의 역사를 정리한 유득공의 발해고, 이수광의 지봉유설, 허준의 동의보감이 있다.

4. 조선 후기 문화의 새 경향

1 신분제의 동요

· 조선 후기의 상황
  - 몰락 양반이 많아짐 예시) 잔반: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 중인층의 신분 상승 운동 예시) 서얼: 규장각 검서관으로 채용됨
    중인: 소청 운동(중인의 신분 상승 운동), 시사 조직
    납속책, 공명첩을 통해 관직에 진출
  - 상민: 부농층 등장, 임노동자
  - 천민: 공노비 해방, 노비 종모법-> 세금을 낼 층을 늘리기 위해

2 성리학의 변화

· 성리학의 절대화: 주자 중심의 성리학 강조
· 성리학에 대한 비판: 윤휴, 박세당-> 사문난적으로 배척 당함
· 양명학의 수용: 성리학을 비판하며 실천성을 강조함
· 정제두의 강화 학파-> 실학에 영향을 미침

위캔 단원 해설

임진왜란 이후부터 조선 후기로 갈 수록 점차 신분제가 동요된다. 위로는 몰락하고 아래로는 올라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위로는 몰락양반이 많아진다. 잔반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으로, 평민과 같이 농사를 통해 생업을 이어가기도 하였다. 중인층은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노력한다. 중인의 신분 상승 운동을 소청운동이라 한다. 이들은 시사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정조시기 박제가, 유득공과 같은 서얼은 규장각 검서관을 채용되기도 하였다. 상민에서도 넓은 토지를 경영하여 부농층이 된 자들이 등장하였고, 혹은 반대로 임노동자층도 존재하는 등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국가에서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납속책, 공명첩을 통해 신분을 팔았다. 이에, 세금을 낼 층인 평민이 양반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점차 세금을 낼 층이 부족했다. 해결 방법으로 공노비를 해방하고 노비종모법(노비의 신분은 어머니의 신불을 따름)을 통해 세금을 낼 층을 늘린다.

조선 후기 성리학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 물론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강조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다만, 윤휴와 박세당 등 성리학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는 자들이 발생하였고(이들은 성리학자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몰린다.) 양명학과 정제두의 강화학파 등 실천성을 강조하는 학문을 공부하는 자들이 늘어난다. 특히, 정제두의 강화학파는 후에 실학에 영향을 미친다.

3 실학의 발전

· 실학: 실증적인 학문, 사회 개혁적 학문, 정책에 반영되지x

① 농업 중심의 실학: 토지 제도 개혁을 강조

유형원	이익	정약용
· 균전론: - 신분에 따라 토지 지급 - <반계수록>	· 한전론: - 농지의 사고 팜을 금지 - <성호사설>	· 여전론-> 정전론: - 공동 경작 토지를 만들고 공동으로 경작하여 세금 냄 - <목민심서><경세유표> - 실학을 집대성함

② 상공업 중심의 실학: 상공업 진흥과 기술 혁신

유수원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 <우서> -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	- <열하일기> - 수레와 선박의 이용 - <양반전>의 저자	- <북학의> 수레와 선박의 이용 - 절약보다는 소비해라 - 화폐유통을 중요하게	- 지전설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남)

위캔 단원 해설

조선 후기 실학이 발전한다. 실학은 실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증적인 학문이었다. 이에 사회, 개혁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실학자들은 중앙 정권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한다.

첫번째, 농업 중심의 실학이다. 전반적으로 토지 제도 개혁을 강조한다. 유형원은 신분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자는 균전론을 주장했으며, 저서로는 <반계수록>이 있다. 이익은 농지의 사고 팜을 금지하는 한전론을 주장했으며, 저서로는 <성호사설>이 있다. 정약용은 공동으로 경작하는 토지를 만들고, 이 토지에서 세금을 내자는 정전론을 주장했으며, 저서로는 <목민심서>,<경세유포>등이 있다. 이외에도 정약용은 실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자 정조시기 수원화성 축조에 큰 영향(거중기를 만듦)을 미친 인물이다.

두번째, 상공업 중심의 실학이다. 전반적으로 상공업 진흥과 기술 혁신을 강조한다. 유수원은 사농공상, 즉 상인과 농부의 직업적 평등화를 주장했으며, 저서로는 <우서>가 있다. 박지원은 수레와 선반의 이용을 중시했으며, 저서로는 청나라를 기행하면 쓴,<열하일기>가 있다. 박지원은 <양반전>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박제가도 수레와 선반의 이용을 중시했으며, 절약보다는 소비를 통한 화폐유통을 중요하게 여겼다. 저서로는 <북학의>가 있다. 홍대용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지구는 돈다.'라고 주장하는 지전설을 내세웠다.

Ⅵ 근대 사회의 전개

1.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1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tip) 전의 상황: 세도정치 시기-〉 삼정의 문란등 사회적 혼란의 시기
왕권 강화&민생 안정이 중요한 상황

왕권 강화	· 비변사의 기능 축소 => 의정부(정치), 삼군부(군사)로 · 서원정리, 만동묘 없앰(중국 왕 모시는 사당) · 경복궁 중건 - 중건 위해) 원납전(기부금)과 당백전 tip) 당백전(당시 화폐 가치의 100배가 되는 돈이 나옴) ->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 · 대전회통, 육전조례
민생 안정	· 삼정의 문란 해결 - 전정-> 양전 사업 실시(토지 조사 사업) - 군정-> 호포제로 바꿈(양반도 포내라) - 환곡-> 사창제로 바꿈(향촌의 덕망 깊은 사람에게 맡김)

위캔 단원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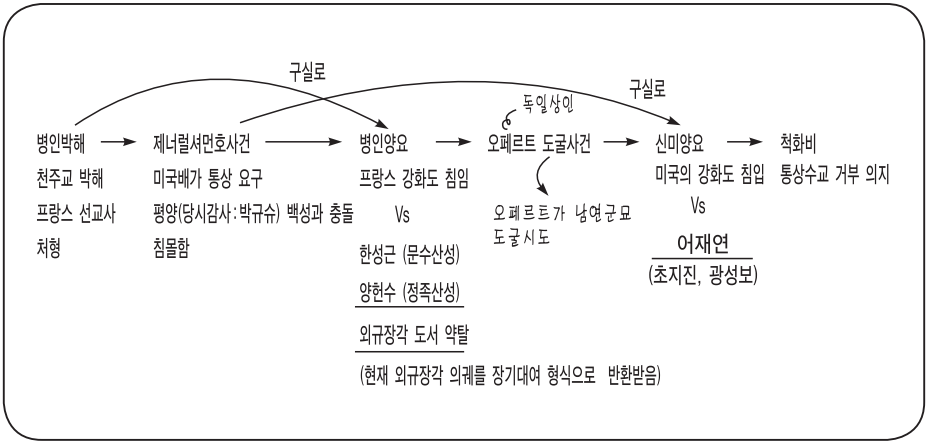
흥선대원군 전, 조선은 세도 정치 시기로 삼정의 문란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이 중요한 상황으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도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필두로 두고 이루어졌다.

왕권 강화의 측면이다. 세도 정치의 중심지였던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고 의정부(정치)와 삼군부(군사)로 기능을 옮겨간다. 이어서, 서원을 정리하고 중국 왕을 모시던 사당이었던 만동묘를 없앤다. 하락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진왜란 시기 불탄 경복궁을 중건한다. 중건을 위해 양반에게 기부금(원납전)을 요구하고, 당백전을 발행했다. 당백전은 당시 화폐였던 상평통보의 100배가 되는 가치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였다.

민생 안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야 했다는 점이다. 전정과 관련하여 양전 사업(토지 조사사업)을 실시한다. 군정과 관련하여 호포제로 바꾸었는데, 이는 양반에게도 포를 요구하였다. 환곡과 관련해서는 사창제로 바꾸었다. 사창제는 향촌의 덕망 깊은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는 제도이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는 원납전과 호포제로 인하여, 양반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경복궁 중건을 위해 발행한 당백전이 가져온 문제로 인해서는 백성의 불만을 가중시킨다. 이는 흥선대원군의 하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흥선대원군의 대외관계: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위캔 단원 해설

흥선대원군의 대외관계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었다. 이 시기 서양의 배들이 조선에 오기 시작하였는데, 강력하게 수교를 거부한다.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병인박해->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박해-> 오페르트 도굴 사건->신미양요->척화비 건립이다.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병인박해였다. 조선은 천주교를 박해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다.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 병인양요가 발생한다. 프랑스가 강화도에 침입한다. 프랑스에 맞서, 문수산성의 한성근과 정족산성의 양헌수가 맞서 싸운다. 프랑스 군은 퇴각하지만, 퇴각하면서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다. 외규장각 의궤는 현재 장기 대여 방식으로 한국에 반환되었다.

다음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다. 미국의 배가 평양에 도착하여 통상을 요구한다. 제너럴 셔먼호는 백성과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다가, 조선은 이 배를 침몰시킨다. 당시의 평양 감사는 박규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미양요가 발생한다. 미국이 강화도를 침입한 사건이다. 미국에 맞서, 초지진과 광성보에서 어재연이 항전한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다.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으로, 통상을 요구했지만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남연군묘를 도굴하려고 했다. 남연군묘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이다. 이로 인해, 서양에 대한 반감이 폭발하면서 척화비를 통해 통상수교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다. 척화비의 글귀는 다음과 같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음은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3 조선의 개항

· 강화도 조약 체결(1876)
① 배경: 흥선 대원군 하야, 고종과 민씨정권이 직접 정치, 통상 개화론자의 의견 대두
② 원인: 운요호 사건(일본이 운요호를 보내 통상 수교를 무력으로 요구)
③ 조약 내용: 1관, 조선은 자주국이다.-> 청의 영향을 배제
5관, 3개의 항구를 개항: 부산(경제적 목적)+원산(군사적 목적)+인천(정치적 목적)
7관, 해안측량권
10관, 치외법권(=영사재판권)
tip) 치외법권이란? 일본 사람이 조선 영토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 정보의 처벌을 받지x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④ 의의: 최초의 근대조약이자 불평등 조약(해안 측량권, 치외법권을 포함하기 때문)
⑤ 영향: 1차 수신사 파견 tip) 임진왜란 이후에 파견한 통신사와 헷갈리지 말 것!

⑥ 부속 조약의 체결(1876)
- 조·일 수호 조규 부록: 개항장 내 일본 화폐 사용가능, 거류지 무역
(개항장 10리 이내로만 무역허가)
- 조·일 무역 규칙: 무관세, 무제한 곡물 유출
tip) 후에 조·일통상장정(1883)을 통해: 관세, 방곡령, 최혜국대우을 규정함
방곡령(곡물 유출을 금지)과 관련한 사건:
일본으로 막대한 곡물 유출 발생-> 조·일통상장정에 따라 방곡령 선포(1889,1890)
->일본 측) 규정 위반을 이유로 철회->배상금 지불

위캔 단원 해설

흥선대원군의 하야이후, 고종과 민씨 정권이 직접 통치를 시작하면서 통상 개화론자의 의견이 대두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운요호 사건이 일어난다. 이는 일본이 운요호를 보내 통상 수교를 무력으로 요구한 사건이다.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관, '조선은 자주국이다'를 통해 일본은 청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5관, '3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경제적 목적으로 부산을, 군사적 목적으로 원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인천을 개항했다. 이외에도, 7관, 해안측량권과 10관, 치외법권(=영사재판권)이 있다. 치외법권이란 일본 사람이 조선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 정부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다. 불평등 조약인 이유는 해안 측량권, 치외법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일본에 1차 수신사를 파견한다. 임진왜란 이후 파견한 것은 통신사이다.

강화도 조약은 전체적인 내용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항을 결정하기 위해 부속조약이 체결된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을 통해 개항장 내 일본 화폐 사용가능, 거류지 무역(개항장 10리 이내로만 무역허가)등이 추가된다. 조·일 무역 규칙을 통해서는 무관세, 무제한 곡물 유출이 추가된다. 후에 조·일통상장정(1883)을 통해서는 관세, 방곡령, 최혜국 대우을 규정한다. 무제한 방곡 유출과 방곡령과 관련해서는 후에 사건이 하나 발생한다. 무제한 방곡 유출이 심각해지자 조선은 조일통상장정을 통해 방곡령을 제정한다. 이후, 일본으로 막대한 곡물 유출 발생이 심각해지자 조·일 통상 장정에 따라 방곡령 선포한다(1889,1890에 걸쳐 두번).하지만, 일본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방곡령 철회를 요구하고 결국 조선 정부는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4 서양 열강과의 조약 체결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원인: 황쭌센의 <조선책략>

tip) 2차 수신사(김홍집)이 조선에 가지고 들어옴

조선책략 내용: 러시아를 막기 위해 친중, 결일, 연미

내용: 거중조정(조선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미국이 중재), 치외법권, 최혜국대우, 관세설정

tip) 최혜국 대우란: 한 나라가 제 3국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약 상대국에게도 부여

예시) A와 B가 최혜국 대우를 포함한 조약을 맺었다. A와 C가 조약을 맺었다.
A는 C에게 매달 100만원을 돈을 주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최혜국 대우에 따라 A는 B에게도 매달 100만원의 돈을 주어야 한다.

의의: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 불평등 조약

영향: 미국에 보빙사 파견(민영익, 유길준 파견) ->갔다 온 후, 육영공원 설립

tip) 육영공원(1886): 미국인 교사(헐버트) 초빙, 상류층 자제를 대상으로 한 학교

위캔 단원 해설

일본과의 조약 체결이후, 서양과의 조약체결도 이루어진다. 서양 중에서는 미국과 최초로 조약을 맺는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이다.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조선에 가지고 왔던 <조선책략>이 이 조약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책략의 내용은 조선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 친중, 결일, 연미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 내용에 따라 조선은 미국과의 연합을 위해 조약을 체결한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미국이 중재한다는 거중조정과 치외법권, 최혜국대우, 관세가 설정되었다. 최혜국 대우란 한 나라가 제 2국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약 상대국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지만 최혜국대우와 치외법권이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후, 조선정부는 미국에 보빙사(민영익, 유길준)을 파견한다. 보빙사는 미국에 갔다 온 이후 상류층 자제를 대상으로 한 육영공원을 세운다. 육영공원은 미국인 교사 헐버트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 조선은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한다.

5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 **통상 개화론** : 외국과 통상하고 우수한 기술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루자

	인물	특징	개혁방법
온건	김홍집, 어윤중	민씨집권과 협력, 청과 친함	양무운동을 모델로 동도서기
급진	김옥균, 박영효	갑신정변 주도, 일본과 친함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문명개화론

tip) · **양무운동**: 청나라의 개혁운동 기본 입장: 동도서기 (동쪽의 도를 지키고 서쪽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 **메이지유신**: 일본의 개혁운동 기본입장: 문명개화 (서양의 문물을 전부 수용)

·**위정척사**: 정을 지키고 사를 물리친다.

1860년대 병인양요 시기	1870년대 강화도 조약시기	1880년대 서양과 수교시기	1890년대 을미사변시기
· 통상반대 · 척화주전: 서양과의 화친하지 말고 배척하고 싸우자	· 개항반대 · 왜양일체: 일본과 서양은 똑같이 위험하다.	· 개화반대 · 영남 만인소 사건	· 의병활동 (을미->을사->정미의병)
이항로	최익현	이만손	유인석

위캔 단원 해설

조선은 크게 외국과 통상하자는 통상 개화론자들과 위정척사로 나누어졌다.

청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주장했던 북학파들의 생각은 개화사상가들에게 계승되었다. 이들 또한 외국과 통상하며 그들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통상 개화론자들은 크게 온건 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었다. 김홍집, 어윤중 등 온건개화파는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점진적인 개화를 하고자 했다. 동쪽의 도(제도, 사상)을 유지하면서 서쪽의 기술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이러한 입장을 동도서기라고 한다.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청과 친했으며 민씨집권과 협력한다. 김옥균, 박영효등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와 문물까지 모두 받아들이고자 했다. 이러한 입장을 문명개화론이라고 했다.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과 친했으며 후에 갑신정변을 주도한다.

위정척사란 '정을 지키고 사를 물리친다'는 뜻으로, 서양 세력에 대한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1860년대 이항로를 중심으로 통상 반대론이 전개된다. 이들은 서양의 침략에 맞서 싸우자는 척화주전론을 펼쳤다. 당시,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도 이와 결을 같이 하였다. 1870년대는 강화도 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개항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최익현 등은 일본과 서양은 똑같이 위험하다는 왜양 일체론을 전개하였다. 1880년대는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개화에 반대운동이 발생하였다. 특히,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 만인소에서는 집단 상소를 올려 개화를 반대한다. 1890년대의 위정척사 운동은 의병 활동을 계승되었다.

2. 근대적 개혁의 추진과 발발

1 통리기무아문

- 별기군(신식 군대), 5군영->2영으로 축소
- 조사시찰단(박정양, 유길준): 일본으로 파견, 일본의 문물 시찰
- 영선사(김윤식): 청으로 파견, 무기 제조를 배우기 위해-> 자본 부족으로 조기귀국

2 근대 시설 설치

- 조사시찰단, 영선사를 통해 신문물을 적용하기 시작

박문국(인쇄) ->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 발간	전환국(화폐 주조)
기기창(무기제조)<= 영선사 영향	우정국(우체국)=> 갑신정변 관련

MEMO

위캔 단원 해설

정부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근대적인 개혁을 시작한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설치하고, 5군영을 2군영으로 축소한다. 일본과 청으로는 각각 조사시찰단과 영선사를 파견하여 문물을 배워오고자 한다. 조사시찰단에는 박정양과 유길준이 파견되었고 영선사에는 김윤식이 파견되어 청의 무기제조를 배운다.

조사시찰단과 영선사를 통해 신문물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근대 시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인쇄를 담당하는 박문국이 설치되고, 박문국을 통해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가 발간된다. 화폐를 주조하는 전환국을 만들고, 영선사의 영향으로 무기를 제조하는 기기창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우체국 역할을 하는 우정국을 만드는데 우정국은 갑신정변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한동안 하지 못한다.

3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 임오군란

배경: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tip) 차별의 정도: 13개월 동안 월급이 밀림,

1개월치를 겨우 줬는데 그 조차도 모래 + 겨 가 섞여 있었음

전개과정: 구식 군대의 봉기-> 일본 공사관 습격-> 일본인 교관(별기군) 살해

-> 흥선대원군의 일시적인 재집권-> 청의 진압-> 청으로 흥선대원군 압송->

민씨 정권의 재집권

결과:

청의 내정 간섭 심화	· 고문 파견 ·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 상인의 내륙 진출 허용-> 이후, 외국 상인의 상권 침탈 심화됨
일 본	· 제물포조약체결 :배상금 지급, 서울에 일본군 주둔O

위캔 단원 해설

통리기무아문을 통해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구식 군대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적어졌다. 심지어,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이 생기는데 구식 군인들은 13개월동안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군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급한 1개월치 월급에는 모래와 겨가 잔뜩 섞여 있는 쌀이었다.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구식 군인의 반발로 발생한 사건이 임오군란이다. 구식 군대는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일본인이었던 별기군 교관을 살해하였다. 구식 군인은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며 그에게 정권을 맡겼다. 그러나 민씨정권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가 이를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하였다. 이렇게 청의 도움을 받아 민씨 정권이 다시 성립되었다.

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군란이었기 때문에, 청의 내정간섭이 심화되었다. 청은 고문을 파견하고 진압후에도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켰다. 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 청 상인이 내륙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 특권을 보장받았다. 이후, 외국 상인의 상권 침탈이 점차 심해지게 된다.

일본은 조선에게 공사관 습격, 일본인 살해등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지불하고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주둔등의 요구를 조선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 갑신정변

배경:

국내상황	· 급진개화파와 민씨 정권의 갈등 tip) 재정부족 문제가 있던 상황, 급진개화파는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시도하나 실패 -> 급진 개화파의 정치적 위기
국외상황	· 청프전쟁(조선에 주둔하던 청군의 일부 철수), 일본의 지원약속

◎ 주요인물: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 전개과정:

① 우정총국 정변: 우정국 축하연을 이용

② **14개조 개혁안 발표:**

정치) 흥선대원군 송환 요구, 청에 대한 종주권x, 입헌군주제 지향

경제) 지조법 개혁, 재정일원화(호조), 혜상공국 혁파

사회) 인민 평등권, 신분제x

③ 청의 진압으로 실패

◎ 결과: 한성조약(조선&일본)_ 배상금,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부담

텐진조약(일본&청)_ 청일 양군의 동시 철수, 조선에 파병 시 미리 통보할 것을 약속

◎ 의의: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으나 위로부터의 개혁

◎ 이후의 국내외 정세:

조선 정부의 친러 정책 추진-> 거문도 사건: 러시아를 견제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점령

->한반도 중립화론 대두(부들러, 유길준)

위캔 단원 해설

국내적으로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민씨 정권의 입장)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었다. 개화의 방향을 둘러싸고 일어난 입장 차이가 심해졌다. 심지어, 개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진 개화파는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고자 한다. 물론 이 방안이 실패하면서 급진 개화파는 정치적 위기 상황을 맞는다. 국외적으로 청프전쟁이 발생하면서 조선에 주둔하던 청군의 일부가 철수한다. 또한, 일본은 급진 개화파의 정변을 지원해줄 것을 약속한다.

이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을 중심으로 하여 갑신정변이 발생한다. 이들은 우정국(지금의 우체국) 축하연 자리에서 정변을 일으켜 민씨 일파를 살해한다.

그들은 14개조 개혁안을 마련하여 입헌군주제 국가를 모색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임오군란 시기 청에 압송되었던 흥선대원군의 송환 요구, 청과의 종속 관계 청산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세금과 관련한 지조법 개혁, 호조로의 재정 일원화, 혜상 공국 혁파를 내세웠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를 폐지하여 인민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청군이 출동하자 일본군이 약속과는 다르게 지원을 멈추면서 정변은 3일 천하로 막을 내렸다. 정변을 주도했던 급진개화파는 급히 일본으로 망명했다.

갑신 정변은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일어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었다. 하지만, 근대화를 추구하는 방식이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점과 토지 개혁 등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4 동학농민운동

· **동학?** 최제우 창시-> 제 2대 교주: 최시형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통해 교리 정리)

· **전개과정:**
① 삼례 집회: 교조 신원운동-> 최제우의 명예회복 운동
② 보은 집회: 탐관오리 숙청, 일본과 서양 배척을 요구
고부농민 봉기: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만석보 사건)-> 전봉준 등이 사발 통문으로 규합
③ 제 1차 농민 봉기: 안핵사 이용태의 동학 탄압-> 백산봉기-> 황토현, 황룡촌 전투 승리
-> 전주성 점령
④ 전주 화약: 정부와 농민군의 화의-> 농민: 집강소(폐정개혁안) 설치/ 정부: 교정청 설치
tip) 폐정개혁안 12개조: 신분제 폐지, 토지 균분 분배, 과부 재가 허용, 탐관오리 처벌
⑤ 전주화약 이전, 정부는 청에 도움 요청-> 청군 파견->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군도 파견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내정간섭 시작(갑오개혁의 시작)
⑥ 제2차 농민 봉기: **공주 우금치 전투** -> 전봉준 처형

· **의의:** 갑오개혁에 영향, 항일 의병 투쟁으로 연결

위캔 단원 해설

동학은 서학에 반대하여 최제우 창시했으며, 정부의 탄압으로 최제우가 처형당한 이후, 제 2대 교주로 최시형이 오른다. 최시형은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통해 교리 정리하였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삼례 집회는 교조 신원운동이었다. 즉, 최제우의 명예회복 운동이었다. 보은 집회를 통해서는 탐관오리 숙청, 일본과 서양 배척을 요구한다. 고부농민 봉기가 발생한다.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반발하여 전봉준 등이 사발 통문으로 규합한다. 고부에서는 군수 조병갑의 비리와 학정이 심했다. 조병갑의 학정 중 유명한 사건은 만석보 사건이다. 조병갑은 백성에게 만석보를 만들게 한다. 만석보는 저수지이다. 고부에는 충분한 저수지가 있었으나 저수지를 또 만들게 함으로써 백성의 불만을 일으켰다. 심지어, 저수지가 완성된 이후에는 강제로 만석보를 돈을 내고 이용하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부 농민 봉기가 발생한다. 제 1차 농민 봉기이다. 고부 농민 봉기를 해결하려 온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 봉기 관련자들은 동학으로 몰아 탄압하였다. 이에 농민의 분노가 폭발하여 백산에서 봉기한다. 이후, 농민들은 황토현, 황룡촌 전투 승리하고 전주성을 점령한다. 전주 화약이다. 정부는 농민군의 화의를 통해 함께 개혁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농민는 집강소(폐정개혁안) 설치하고 정부는 교정청 설치한다. 집강소를 통해 농민은 폐정개혁안 12개조를 발표한다. 그 내용에는 신분제 폐지, 토지 균분 분배, 과부 재가 허용, 탐관오리 처벌 등이 있다. 전주화약 이전, 정부는 청에 도움 요청하였다. 이에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한다. 갑신정변의 결과로 맺어진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군도 인천에 상륙한다. 청은 동학농민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지만, 일본은 아니었다.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간섭 시작을 시작한다. 일본의 행동에 분노한 농민들은 제2차 농민 봉기를 일으킨다. 하지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전봉준 처형되고 동학 농민 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은 안으로는 개혁 정치를 하려는 농민의 요구를 보여주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한 운동이었다. 농민들의 개혁 요구는 후에 갑오개혁에 영향을 미치며, 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은 의병으로 연결된다.

5 1차 갑오개혁

· 이전의 상황: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내정 개혁을 강요
tip) 청일전쟁 & 2차 동학농민 운동 & 1차 갑오개혁이 함께 진행됨+잠시 흥성대원군을 섭정에 추대

tip) 흥선대원군은 3번 나옴
1.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거부정책 2. 임오군란 직후
3. 갑오개혁 때 일시 집권)

· 1차 갑오개혁 - 교정청을 없애고 군국기무처를 통해 실시됨 - 김홍집,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정치	· 청 종주권 배제 · 왕실 사무(궁내부)와 행정 사무(의정부&8아문) 분리 · 6조->8아문으로 바꿈
	경제	·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 · 은본위제, 조세 금납화, 도량형 통일
	사회	· **신분제 폐지(과거제X)** · 조혼X, 연좌제X, 과부재가O

tip) 재정의 일원화:
- 갑신정변: 호조로 재정의 일원화
- 1차 갑오개혁: 탁지아문으로 재정의 일원화
- 독립협회: 탁지부으로 재정의 일원화

위캔 단원 해설

1차 갑오개혁 이전, 동학 농민운동을 진압하러 온 청군과 함께 일본도 군대를 파견한다. 일본군은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 경복궁 점령하고 내정 개혁을 강요한다. 잠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청일전쟁 & 2차 동학농민 운동 & 1차 갑오개혁이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이 당시는, 잠시 흥성대원군을 섭정에 추대하기도 하는 시기이다. 흥선대원군은 역사에서 3번 나온다. 1.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거부정책 2.임오군란 직후 3. 갑오개혁 때 일시 집권이다.

1차 갑오개혁은 교정청을 없애고 김홍집,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군국기무처를 통해 실시된다. 정치적으로는 청의 종주권 배제한다. 왕실 사무(궁내부)와 행정 사무(의정부&8아문) 분리하고 6조->8아문으로 바꾸었다. 경제적으로는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하고, 은본위제, 조세 금납화, 도량형 통일을 실시한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를 폐지(과거제X)하고 조혼, 연좌제등 악습이라 불릴만한 부분에 대한 폐지와 과부의 재가가 허용된다.

재정의 일원화는 3번 등장한다. 갑신정변시기에는 호조로 재정의 일원화,1차 갑오개혁시기에는 탁지아문으로 재정의 일원화, 독립협회 때에는 탁지부으로 재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진다.

6 2차 갑오개혁

· 이전의 상황: 2차 동학농민운동-> 군국기무처X-> 내각구성(김홍집, 박영효)

정치	· 홍범14조->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 · 의정부 8아문-> 내각 7부로 개편 · 지방: 8도->23부, 재판소 설치(지방관으로부터 사법권을 배제)
사회	· 교육입국조서(근대적 학제 마련)-> 한성 사범학교,한성 소학교, 외국어학교 설립
경제	· 육의전 폐지 ->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

· 이후의 상황: 청일전쟁-> 일본의 승리
-> 시모노세키조약(1. 조선은 자주국이다. 2. 청은 일본에게 랴오동 반도, 타이완을 준다)
-> 삼국간섭(러시아,프랑스, 독일): 일본은 랴오동 반도를 다시 청에게 반환하라

7 을미개혁

· 이전의 상황: 을미사변(일본의 명성 황후 시해 사건)

정치	· '건양' 연호 사용
사회	· **태양력, 단발령** · 종두법 실시, 우편업무재개, 소학교 설치
군사	· 친위대(중앙군) +진위대(지방군)+시위대(왕실호위))

· 이후의 상황: 아관파천(고종의 러시아 공사관 피신)으로 을미개혁 중단
을미사변(일본의 명성 황후 시해 사건),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을미의병 발생

위캔 단원 해설

2차 갑오개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 반대하여 2차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된다.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던 일본은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김홍집,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내각을 구성한다.

정치적으로는 홍범14조를 통해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하고 의정부 8아문을 내각 7부로 개편하고, 지방에서는 8도를 23부 개편한다. 또한, 지방에 재판소를 설치하여 지방관으로부터 사법권을 배제한다. 사회적으로는 교육입국조서를 통해 근대적 학제 마련한다. 이후, 한성 사범학교,한성 소학교, 외국어학교 설립된다. 경제적으로는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 육의전 폐지한다.

2차 갑오 개혁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는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은 자주국이다. 2. 청은 일본에게 랴오동 반도, 타이완을 준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두번째 였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일본에게 랴오동 반도를 다시 청에게 반환하라고 간섭하였다. 이를 삼국간섭이라 한다.

을미개혁이 이루어지기 전, 을미사변(일본의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한다. 명성 황후의 시해 직후, 을미개혁이 이루어진다. 정치적으로는 '건양' 연호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으로는 태양력, 단발령 실시했다. 또한, 종두법 실시, 우편업무재개, 소학교 설치하였다. 군사적으로는, 친위대(중앙군)+진위대(지방군)+시위대(왕실호위)로 군사제도를 개편하였다.

을미개혁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아관파천)이후 전면 중단된다. 또한, 을미사변(일본의 명성 황후 시해 사건),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을미의병 발생한다.

8 독립협회

· 독립신문(최초 민간 신문, 영자 발행, 서재필) -> 독립협회 ->
독립문 (순서 봐둘 것)
· 창립: 서재필 + 윤치호등 지식인 + 학생, 노동자등 다양한 계층
· 목표: 자유 민권 ,자강 개혁, 자주국권
· 독립협회의 활동

자주 국권	· 만민 공동회, 관민 공동회 개최 (민중 집회) · 이권 침탈 반대 운동: 절영도 조차 요구 저지, 한러은행X, 러시아의 고문 철수시킴
자유 민권	· 헌의 6조 채택(입헌군주제, 탁지부로 재정일원화, 피고인권존중) · 의회설립운동(참정권 운동) · 중추원 관제 반포(의회와 같은 기능)

· 해산: 공화제 음모론(박정양을 대통령으로 세우려 한다)-> 황국협회 충돌
-> 강제 해산 -> 독립 신문 폐지 -> 대한국국제 선포-> 광무개혁 본격화

위캔 단원 해설

서재필에 의해 최초의 민간 신문이자, 영자도 발행한 독립 신문이 발행된다. 서재필은 이후, 독립협회를 세우고, 독립문을 건설한다. 독립문은 과거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이 헐린 자리 앞에 세워졌다. 독립문은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상징하였다.

독립협회는 서재필과 윤치호등의 지식인과 다양한 계층이 합쳐져 세워졌다. 목표는 자유민권, 자강 개혁, 자주 국권이었다.

자주 국권과 관련한 독립협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만민 공동회, 관민 공동회를 통해 민중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민중을 계몽하고 함께 토론하며 정치의식을 높였다. 당시,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 한국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들이 많았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 각종 이권을 침탈해 간다. 이때 독립협회는 이들의 이권 침탈을 막는다.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으며, 한러은행 폐쇄, 러시아의 고문을 철수시킨다. 자유민권과 관련한 독립협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입헌군주제, 탁지부로 재정일원화, 피고의 인권 존중 등의 내용을 담은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의회설립 운동은 통한 참정권 운동을 했다. 이후,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여 의회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독립협회가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세우려한다는 공화제 음모론이 퍼진다. 불안감을 느낀 고종은 황국협회를 내세워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킨다. 이후, 고종은 독립신문을 폐지하고 대한국국제를 선포하여 광무개혁이 본격화된다.

9 대한제국

· 이전의 상황: 아관파천-> 이후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름-> 고종의 경운궁 환궁
tip) 이권 침탈의 상황:
러시아: 절영도 조차, 삼림 채벌 , 프랑스: 광산
미국: 금광 채굴권 ,일본: 철도 부설권

· 대한제국의 수립
- 국호 '대한제국', 연호 '광무'
- 환구단에서 황제즉위식 거행 (황궁우-제사준비)
- 광무개혁: 구본신참(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 에 따른 점진적 개혁

광무개혁 (1899~1904)	정치	· 대한국국제: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 황제권 강화 · 원수부 설치(황제가 직접 군대를 장악) · 간도 관리사 파견(이범윤 파견)	구본: 왕권 강화
	경제	· **양전 사업: 지계 발급**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 상공업 진흥	신참: 개혁적인 부분
	사회	· 전차, 전화, 경인선 개통	
	교육	· 기술, 실업교육 강조 -> 상공학교, 기술학교	

위캔 단원 해설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 한국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들이 많았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 각종 이권을 침탈해 간다. 러시아는 절영도 조차, 삼림 채벌을 요구하고 프랑스는 광산 ,미국은 금광 채굴권 ,일본은 철도 부설권을 요구한다.

고종은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이후, 대한 제국을 수립한다. 국호는 '대한제국',연호는 '광무' 였다. 환구단에서 성대하게 황제즉위식 거행되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대한국 국제를 통해 모든 권력은 황제에게 집중되었다. 또한, 황제는 군 통수권, 입법, 행정, 사법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군 통수권을 위해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직접 군대를 장악한다.

대한제국은 구본 신참의 원리(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에 따라 점진적 개혁을 실시하였다. 정치적 개혁은 구본(왕권 강화)와 맞닿아 있다. 대한국국제를 통해 황제권을 강화하였으며,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직접 군대를 장악하였다. 간도에는 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여 간도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신참으로 개혁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다 양전 사업을 통해 지계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하고자 하였다. 상공업 진흥시키기 위해 식산 흥업 정책을 펼쳤다. 이에 근대적인 시설과 공장, 회사들이 설립된다. 근대적 산업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교육적으로는 기술, 실업교육을 강조하였으며 관련학교인 상공학교, 기술학교가 세워진다. 사회적으로는 전화를 가설하고 전차와 설도를 부설하는 등 통신과 교통 산업도 발전시켜나갔다.

3. 구국 민족운동의 전개

1 일제의 국권 침탈과 대응

tip) 애국계몽운동이란: 교육, 산업 진흥 등 실력을 쌓아 국권 회복하자

	일제의 국권침탈	대응 / 결과	애국계몽 단체
1904	· 한·일의정서(2월) : 러일전쟁 중 군사적 요충지 사용 관련 tip) 독도 -> 불법적 영토편입 · 제1차 한일협약(8월): 재정(메가타), 외교(스티븐스) 고문 파견	·메가타 화폐정리 산업 (1905) - 대한제국의 재정, 금융이 일본에 예속	· 보안회: -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 농광 회사 설립
1905	·제 2차 한일 협약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 민영환 자결 · 장지연 시일야방성대곡 (황성신문을 통해) · 오적 암살단(나철, 오기호) · 을사의병 : 신돌석 ->평민 의병장의 등장 · 헤이그특사파견(1907) :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 ->고종 강제 퇴위	· 헌정연구회 : 독립협회 계승 의회 설립, 입헌군주정 을사늑약 반대

위캔 단원 해설

일본은 러일전쟁중 군사적 요충지를 사용하기 위해, 한일의정서를 체결한다. 이후 독도를 러일전쟁 중에 이용한 이후, 불법적 영토 편입이 이루어진다. 1904년 8월에는 제 1차 한일 협약을 맺는다. 재정에는 메가타, 외교에는 스티븐스 고문을 파견하여,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시작한다. 메가타는 고문으로 파견된 이후,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대한제국의 재정, 금융을 일본에 예속하는 과정이었다. 일본은 조선의 이권을 빼앗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당시의 애국계몽 운동 단체였던 보안회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농광회사를 설립하기도 한다.

1905년 일본은 제 2차 한일 협약을 맺는다. 제 2차 한일 협약은 을사조약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의 외교권은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된다. 을사조약에 대한 반발을 각지에서 일어난다. 민영환을 자결했으며, 장지연은 황성신문을 통해 시일야방성대곡을 발표한다. 시일야방성대곡의 뜻은 하루동안 내내 운다는 뜻이다. 나철과 오기호는 오적 암살단을 만들어, 을사조약 체결를 지지한 사람들을 암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병들도 일어나는데 이를 을사의병이라고 한다. 을사의병에는 신돌석과 같은 평민 의병장이 등장한다.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강제로 퇴위하게 된다. 당시의 애국계몽 운동 단체였던, 헌정연구회 또한 을사늑약을 반대한다. 헌정 연구회는 독립협회를 계승한 단체로, 입헌군주정에 따라 의회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1 일제의 국권 침탈과 대응

	일제의 국권침탈	대응 / 결과	애국계몽 단체
1906			· 대한자강회 -헌정연구회의 후신 -전국에 지회를 둠 -월보 간행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 -> 해산(1907)
1907	·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 : 군대해산, 차관파견	· 정미의병 - 해산 군인의 합류 -> 군사력이 상승함 · 서울진공작전전개 - 13도 창의군 결성 - 서울진공작전 :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	· 대한협회 ->이후 친일적 성향을 보임 : 대한 자강회 계승
1908	· 동양 척식 주식회사 설립 -> 일본이 토지를 약탈함.	· 전명훈, 장인환 스티븐스 사살	
1909	· 기유각서 - 사법권 박탈 · 간도협약(일본&청) - 일본은 철도 부설권을 얻고 청은 간도를 얻음	·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이후 안중군은 <동양 평화론> 집필) · 남한 대토벌 작전 : 호남지방의 의병 진압	
1910	· 한일병합조약 경술국치 (경술년의 국가의 치욕이다)		

위캔 단원 해설

1906년의 애국계몽 운동단체는 대한자강회이다. 헌정연구회의 후신으로, 전국에 지회를 두고 월보를 간행하였다.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인해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자,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다. 하지만 결국 퇴위반대운동으로 인하여 해산된다.

1907년에는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을 맺는다.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고 일본은 차관을 파견한다. 대한제국의 군대는 해산하고 난 이후 대부분이 의병으로 합류되었다. 이시기에 일어난 정미의병은 해산 군인의 합류로 군사력이 대폭 상승하였다. 상승한 군사력과 함께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진공작전을 통해 일본을 몰아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작전은 실패한다. 또한,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 의병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애국 계몽 운동 단체로는 대한협회가 있다. 대한 자강회를 계승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이후 친일적인 성향을 보인다. 1908년 일본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한제국의 토지를 약탈한다. 1908년에는 전명훈, 장인환의 스티븐스 사살 사건이 있었다.

1909년 기유각서를 통해 사법권이 박탈되었고, 일본과 청은 간도협약을 통해 간도에 대한 소유권을 청으로 규정하고 일본은 중국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다. 1909년에는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다. 이후, 안중군은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한다. 일본은 의병의 잔존세력까지 확실히 없애기 위해, 남한 대토벌 작전을 통해 호남지방의 의병을 진압한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이 시기는 경술국치, 경술년의 국가의 치욕스런 시기로 불린다.

2 국채보상운동(1907)

· 일본으로부터 빌린 차관을 갚기 위해서
· 서상돈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시작
· 금연, 금주, 패물 수합등으로 국채를 갚자는 모금운동을 전개

· 언론의 호응(대한매일신보)
tip) 대한매일신보? 베델, 양기탁 창간, 국채보상 운동 지원, 의병 높이 평가

·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

3 신민회(1907)

· 비밀결사, 공화정 추구
·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 함-> 신흥무관학교(이회영)
· 신민회의 회원 : 안창호: 대성학교, 양기탁: 대한 매일 신보
이승훈: 자기 회사, 태극 서관, 오산학교, 이회영: 신흥 무관 학교
· 105인 사건으로 해산

위캔 단원 해설

일본으로부터 빌린 차관을 갚기 위하여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대구에서 서상돈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금연, 금주, 패물 수합등으로 하나하나 돈을 모아 차관을 갚고자 하였다. 당시의 신문인 대한매일신보도 이를 지지하여 주었다. 하지만, 통감부의 탄압으로 국채 보상 운동은 마무리 된다.

신민회는 비밀결사단체로, 공화정을 추구하였다.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면서, 삼원보 지역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신민회의 회원으로는 대성학교를 세운 안창호와 대한매일 신보의 양기탁,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과 자기회사,태극서관,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훈이 있다. 신민회는 총독암살 미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105인 사건으로 해산되었지만, 신민회에 가담했던 애국지사는 이후에도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4. 근대 문물 수용과 근대 문화 형성

· **통신:** 우정총국 설치
· **철도:** 경인선-> 러일전쟁-> 경부선, 경의선
· **의료:** 광혜원
· **건축:** 덕수궁 석조전
· **언론:** 한성순보(박문국에서 발행, 최초의 신문),
독립신문(서재필, 영문판 발행)
황성신문(장지연의 시얄야방성대곡)
대한매일신보(양기탁, 베델이 만듦, 의병에 호의적, 국채보상운동지지, 반일적 성격)
· **교육:** 원산학사: 함경도 덕원리 주민들의 모금 활동으로 세워진 최초 사립학교
무술 교육을 가르침
동문학: 통역관 양성을 목표로 한 관립 교육기관
육영공원: 보빙 사절단의 영향, 상류층 자제를 교육시킨 기관, 헐버트등 미국인 교사들이 선별됨
tip) 교육입국조서 발표 이후-> 한성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소학교등이 세워짐
대한제국 시기 : 실업학교, 기술학교
선교사 설립 : 배제학당, 이화학당
애국계몽운동과 관련 : 오산학교, 대성학교

tip) 1883: 통리기아문 -> 박문국, 전환국, 기기창
1884: 우정국(갑신정변 시기), 1885: 전신, 광혜원(->제중원) 1887: 전등, 1897: 독립문
광무 개혁 시기 -> 1898: 한성전기회사, 전화(경운궁),명동성당
->1899: 경인선, 전차, 1904~1905: 경부선, 경의선 개통,1910:덕수궁 석조선(르네상스 양식)

위캔 단원 해설

통신으로는 우정총국 설치가 있다. 우정총국 축하연에서는 갑신정변이 발생한다. 철도는 경인선이 먼저 개통되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이후 경부선, 경의선을 만든다. 의료에는 광혜원이 있다. 광혜원은 갑신정변 때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한 공간이기도 하다. 건축에는 르네상스 양식으로 만들어진 덕수궁 석조선이 있다.

언론은 모두 중요하다. 한성순보는 박문국에서 발행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다.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만들었으며, 영문판과 한글판이 있었다.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이 실린 황성신문은 을사조약에 슬퍼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실었다. 대한매일 신보는 신문 중에서 가장 오래남아있었다. 그 이유는 설립자가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었기 때문이다. 의병에 호의적이었으며, 반일적 성격을 가진 신문이다. 국채 보상 운동을 지지하는 모습도 보인다.

교육은 교육입국조서 전후로 나뉜다. 전은 다음과 같다. 함경도 덕원리 주민들은 원산에 최초의 사립학교를 세운다. 원산학사이다. 이곳에서는 특이하게도 무술교육을 함께 가르쳤다. 동문학은 통역관 양성을 목표로 한 관립 교육기관이다. 육영공원은 보빙 사절단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상류층 자제를 교육시킨 기관, 헐버트 등 미국인 교사들이 선별되었다. 하지만, 상류층 자제들의 참여도는 현저히 낮았다고 한다. 교육입국조서 발표 이후 한성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소학교 등이 세워졌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식산흥업 정책과 함께 실업학교, 기술학교이 설립된다. 선교사에 의해서 배제학당, 이화학당이 설립되고 애국계몽운동과 관련하여 오산학교, 대성학교가 세워진다.

Ⅶ 민족의 독립 운동

1.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1 일본의 식민지 정책(정치 관련)

	1910 무단통치=헌병경찰통치	1920 문화통치 =민족분열통치	1930 민족말살통치	1940 민족 말살 통치
정책	· 총독부 설치: 총독은 군인 출신만 · **헌병경찰 통치:** **즉결처분권,** **태형령**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X · 칼 찬, 제복 입은 교사	· 총독: 문관 출신도 가능 tip)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x · 보통 경찰 제도 tip) 경찰서와 경찰서의 수 증가 조선인에 대한 감시 지속 · 치안유지법(사회주의자와 독립운동가 탄압을 위해) · 조선, 동아일보 창간 tip) 검열을 통한 통제 강화	·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 황국 신민화: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바꾸려함) 황국 신민 서사 암송, 신사 참배, 궁성 요배, 창씨개명	

위캔 단원 해설

1910년대는 무단통치, 헌병 경찰 통치시대였다. 1910년대는 무겁고 엄격한 분위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본은 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을 군인 출신으로 임명하여 조선을 관리했다. 조선인을 관리하기 위해 헌병 경찰 통치를 사용했다. 헌병 경찰은 즉결 처분권(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태형령(때리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모두 허용되지 않았고, 학교에는 칼을 들고 제복을 입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쳤다.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통치 방식의 변화를 주었다. 1920년대는 문화통치, 다른 말로 민족분열 통치 시기였다. 총독으로는 문관을 임명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은 없었다. 헌병 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 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서와 경찰 수는 증가하여, 조선인에 대한 감시를 지속했다. 또한,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자가 늘면서 이들과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설립하였다. 문화 통치라는 이름 아래에 조선, 동아일보의 창간을 허용했지만 실제로는 검열을 통해 통제할 뿐이었다.

1930년와 1940년대는 조선인이라는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민족 말살 통치의 시대였다. 조선 사상법 보호 관찰령을 만들고,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바꾸고자 황국 신민화 정책을 펼쳤다. 황국 신민 서사 암송, 신사 참배, 궁성 요배, 창씨개명(이름을 일본인 이름으로 바꾸게함)을 통해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민족 말살 통치는 전쟁과 맞닿아 있다.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중이었다. 군사가 부족하자 조선인을 군사로 보내나, 조선인은 열심히 싸우지 않았다. 조국을 위해 싸운다는 마음이 조선인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이에, 조선인을 일본인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되기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2 일본의 식민지 정책(정치 관련)

	경제
1910 무단통치=헌병경찰통치	· **토지조사사업** 목적: 근대적 토지 소유 확보 방법: 기한 내 신고 tip) 복잡한 서류와 절차 결과: 미신고, 국가 소유의 토지를 일본이 차지 ->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통해 일본인에게 팜, 지주의 권한 강화, 경작권 부정(조선은 그 땅에서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해줌) · 회사령: 회사 설립 허가제 · 임야 조사령, 어업령, 광업령, 삼림령
1920 문화통치=민족분열통치	·**산미증식 계획** 목적: 일본 내 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 종자, 비료, 수리 시설 개선(-> 비용은 농민이 부담) 결과: 증산 성공 그러나 증산<< 수탈량, 만주에서 잡곡 수입 ·회사령 폐지 -> 신고제로
1930, 민족말살통치	· 농촌진흥운동: 농민 구제를 위한 생활 개선 운동 · 남면북양 정책: 공업 원료 부족에 대비& 남부에 면화, 북부에 양 사육 · 병참기지화 정책 · 국가총동원령(1930년대에 시작되어 1940대년까지)
1940, 민족 말살 통치	· 병참 기지화 정책: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 · 중일전쟁이후->국가총동원령(1938): 징용, 징병, 정신대, 위안부, 공출, 배급

위캔 단원 해설

일본의 식민지 정책 중 경제와 관련한 파트를 보도록 한다. 1910년 무단통치 시기로,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되었다. 근대적 토지 소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한 내 신고를 통해 실시되었다. 문제는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인하여 토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미신고된 토지, 국가 소유의 토지는 모두 일본이 차지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 토지를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통해 일본인에게 싼 값을 팔았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인 지주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경작권은 부정되었다. 조선은 그 땅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땅에서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었다. 하지만, 토지조사사업에서는 경작권이 부정되면서 많은 이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이외에도 회사 설립 허가제인 회사령과 임야조사령, 어업령, 광업령, 삼림령이 발표된다.

1920년은 문화통치 시기로, 산미증식 계획이 실시되었다. 일본의 공업화로 인해 부족해진 쌀을 충당하기 위해,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갈 생각을 한 것이다. 종자, 비료, 수리시설 개선 등으로 증산에 성공하였다. 문제는 종자, 비료, 수리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농민이 부담하였으며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많았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쌀이 부족해지면서,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 먹을 지경에 이른다. 이외에도 회사령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꾼다. 이는, 일본의 회사들이 좀 더 편하게 조선에서 회사를 건립할 수 있게끔 바꿔준 것이었다.

1930년은 민족 말살 통치기로 농촌 진흥운동을 통해 농민 생활 개선운동을 해준다. 또한 공업화를 위해 남면북양 정책을 사용한다. 남쪽에서 면화, 북부에는 양을 사육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의 기운이 점차 드리워지면서 1930년대 말부터는 병참기지화 정책, 국가총동원령이 실시된다. 병참기지화 정책은 조선을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중일전쟁이후에는 국가총동원령이 내려진다. 조선에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징용, 징병, 정신대, 위안부등 사람들이 끌려갔고, 심지어는 부엌에 있는 쇠붙이까지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이를 공출이라고 한다. 사람들에게는 배급을 통해 음식을 나누어주었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

1 3.1운동

· **배경:** 국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북간도의 무오 독립선언, 동경의 2.8독립 선언
국내: 고종의 죽음
tip) 민족자결주의: 민족의 운명은 민족 스스로가 결정한다.
· **전개:**
① 고종의 인산일,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발표
② 전국, 민족적 항쟁 확산
tip)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될수록 비폭력에서 폭력성이 심해짐, 제암리 학살 사건 발생
· **영향:** 일본의 통치방식변화(무단통치->문화통치), 1920년대 항일운동 활성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

· 배경: 3.1 운동이후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중심의 필요성 대두
· 전개: 지역별 임시정부 수립-> 임시 정부의 통합

서울: 한성정부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상하이: 상하이 정부	임시정부의 통합 -> 대한민국 임시정부	· 상하이에서 결성 ·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 3권 분립에 기반한 공화정 : 임시의정원(입법),법원(사법),국무원(행정)

3 초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1920 초기의 임시정부	· 비밀 연락 조직망을 통해 국내와 연락 ->연통제, 교통국(이륙양행, 백산상회를 통해) · 독립공채 발행, 독립신문, · 사료편찬소를 통해<한일 관계 사료집> 간행

위캔 단원 해설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운다. 이는 민족의 운명은 민족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간도에서는 무오 독립선언, 동경에서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2.8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 국내에서는 고종의 죽음에 영향을 받았다. 이에 고종의 장례식 날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3.1운동이 시작된다. 도시에서 시작된 3.1운동은 농촌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농민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비폭력 시위는 점차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제암리 학살 사건이 발생한다. 일본군이 제암리 마을의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태운 학살 사건이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의 통치방식이 변화한다(무단통치->문화통치로). 또한, 1920년대 항일운동 활성화된다.

3.1운동 이후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중심이 필요했다.3.1운동의 실패 요인으로 독립운동의 중심이 없었다는 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별로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서울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상하이 정부는 협의를 거쳐 하나의 임시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된다. 상하이에서 결성했으며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휘가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권 분립에 기반한 공화정으로 입법인 임시의정권, 사법인 법원 ,행정인 국무원으로 이루어졌다.

1920년 초기의 임시정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비밀 연락 조직망 통해 국내와 연락했다. 국내의 조직망에는 연통제, 교통국(이륙양행, 백산상회를 통해)이 있었다. 또한, 독립공채와 독립신문을 발행하였고, 사료편찬소를 통해<한일 관계 사료집> 간행하였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전개

국민대표회의 (1923)	· 배경: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기 · 전개: **국민 대표회의**의 소집 창조파(신채호,새로 임시정부 만들자) vs 개조파(안창호, 현재의 임시정부를 개혁하자) -> 결렬 · 결과: 대다수의 독립운동가가 임정 탈퇴, 임시정부의 약화
1920후반의 임시정부	· 1925. 이승만 대통령 탄핵->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 · 1927.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국무령: 김구)
1930년대의 임시정부	· 1931. **한인 애국단** : 김구의 주도로 적극적인 테러 활동 이봉창: 일본 국왕에 폭탄, **윤봉길: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 **-> 윤봉길 의거 이후, 임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후원이 늘어남**
1940년대의 임시정부 (충칭으로 이동)	·1940. 주석제, 한국 독립당, **한국광복군** ·1941. 건국강령: 조소앙의 삼균주의(정치, 경제, 교육적 평등) ·1942.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한국 광복군 합류 ·1943. 한국 광복군의 미얀마 전투 참전 ·1944. 주석&부주석제, 한국 광복군과 OSS의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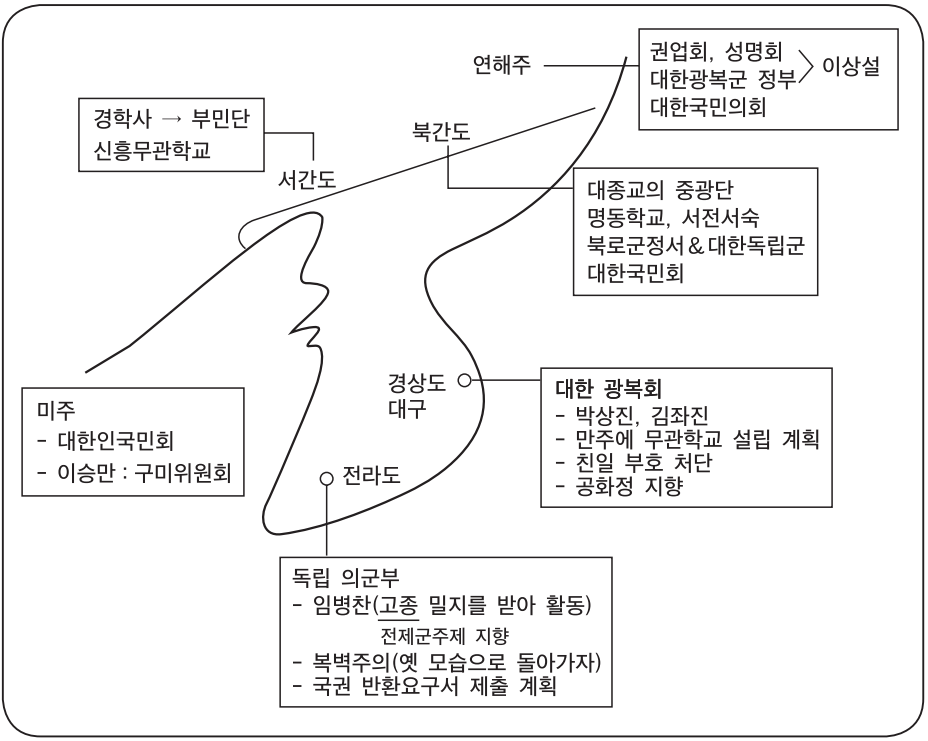
위캔 단원 해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린다. 신채호를 중심으로 새로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창조파와 안창호를 중심으로 현재의 임시정부를 개혁하자는 개조파로 나뉜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은 합치하지 못하고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면서 대다수의 독립운동가가 임시정부를 탈퇴한다. 임시정부는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지기 시작된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를 실시한다. 1927년에는 국무령을 김구로 임명하고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를 형성한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세력은 너무나도 떨어진 상태였다.

임시정부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김구의 '한인애국단'이었다. 김구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단체는 적극적인 테러 활동을 보였다. 이봉창은 일본 국왕에 폭탄을 던졌으며, 윤봉길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다. 윤봉길의 의거 이후,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후원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 한국 광복군을 만든다. 당시의 건국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주의(정치,경제, 교육적 평등)를 따랐다. 이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면서 전력을 강화한다. 한국광복군은 미얀마 전투에 참여하고, 미국과 OSS훈련을 통해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한다. 하지만, 국내 진공작전은 일본이 해방됨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3. 독립운동의 전개

1 1910년대의 국내외저항



위칸 단원 해설

1910년대의 국내, 국외 저항이다. 국내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대구의 대한 광복회이다. 박상진, 김좌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공화정을 지향하였다.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자 했으며, 친일 부호를 처단하였다. 다음은 전라도의 독립의군부이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 활동하였으며, 임병찬을 중심을 결성되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 활동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전제군주제를 지향하며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복벽주의) 하였다.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 계획이 있었던 단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1910년대 일본의 무단 통치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음은 국외이다. 서간도에서는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졌으며, 경학사가 만들어진다. (경학사는 후에 부민단이 됨). 북간도에서는 대종교의 중광단이 만들어지고 명동학교, 서전서숙이 만들어진다. 뿐만 아니라, 1920년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이끌 대한 독립군과 북로 군정서가 이때 생긴다. 이외에도 대한 국민회가 있다. 연해주는 이상설과도 연관이 깊다. 이상설은 권업회, 성명회, 대한 광복군 정부를 건설했다. 이외에도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가 있다. 미주에서는 대한인국민회가 만들어졌으며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구미위원부 활동이 있었다.

2 1920년대 국내저항

tip) 실력양성운동: 민족 경제의 자립, 근대교육의 보급, 신문화의 건설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함.

경제	· 물산 장려 운동 배경: 일본 대기업 진출로 한국 기업의 위기, 관세 철폐 주도: **평양의 조만식**(평양 물산 장려회), 이상재 한계: 사회주의 비판
교육	·민립대학 설립운동 - 서울 모금 운동(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에 1원씩) - 경성제국대학 설립으로 무산
언어	· 문맹 퇴치운동: -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1929):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1931)
노동	· 노동 조합 결성 -> **노동쟁의**(생존권 투쟁, 권익 보호 위해) : 암태도 소작 쟁의, **원산 총파업**
청년	· 조선 청년 총동맹(1924)
소년	· 방정환, 어린이날, 잡지 <어린이> - 천도교와 연결
여성	· 근우회(신간회의 자매 단체, 좌우합작) : 기관지<근우>
형평	· 진주 형평사 -> 백정 신분 차별 폐지 운동

위캔 단원 해설

1920년대 국내저항이다.

경제적으로는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난다. 대구에서 서상돈을 중심으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물산 장려운동은 평양의 조만식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당시 일본의 대기업이 한국으로 진출하면서 한국 기업은 위기를 맞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 기업의 불안감을 가중되었다. 그래서, 조선사람은 조선의 것을 쓰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된다. 하지만, 자본주의자를 살리는 운동이라는 사회주의의 비판을 받는다.

교육적으로 조선인에게 고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다.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에 1원씩 모금하여,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였지만 경성제국 대학 설립으로 무산된다.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실력양성운동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 경제의 자립, 근대교육의 보급, 신문화의 건설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언어와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문맹퇴치운동이 있었다.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의 구호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였다. 동아일보 또한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한다. 문맹 퇴치 운동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까지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브나로드 운동은 정확히는 1931년에 일어났다.

1920년대는 사회주의가 퍼지면서, 노동, 청년, 소년, 여성, 형평 등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노동운동으로는 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익을 위해 노동쟁의가 있었다. 암태도 소작쟁의와 원산 총파업이 그 예이다. 청년운동으로는 조선 청년 총동맹이 있었다. 소년활동에는 천도교와 관련된 활동이 많다.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지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통해 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여성운동은 다시 신간회의 자매단체 격인 근우회가 있었다. 근우회 또한 신간회와 마찬가지로 좌우합작 단체였으며, 기관지인 <근우>를 발행하였다. 형평운동으로는 진주의 형평사에서 백정이 신분 차별 폐지운동을 벌였다.

2 1920년대 국내저항

· 신간회(1927)

배경: 6.10 만세운동(순종의 인산일)_ 사회주의세력+ 천도교(민족주의 계열)이 기획
->두 세력의 연합 기회를 만듦
민족 유일당 운동(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이념을 초월한 민족운동을 추진)

전개: 정우회 선언(사회주의 계열은 민족주의 계열과 통합하겠다)
-> 민족의 단결, 친일 기회주의자 배격, 정치&경제적 각성을 강령으로 -> 신간회 결성

활동: 전국에 지회를 둠, 대중운동(청년, 노동, 여성등) 지원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진상 규명회, 민중 대회 계획 -> 전국적 확산

tip) 광주학생항일운동: 일본 남학생의 한국 여학생 희롱 -> 한일 학생간의 충돌
-> 이에 따른 편파적 조치-> 광주 학생의 대규모 시위

해체: 일제의 탄압, 사회주의 계열의 이탈

· 의열단

- 김원봉 주도 1919년 조직+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폭력, 민중의 직접혁명)을 지침으로 활동

활동: 김의상(조선총독부에 폭탄 투척), 김상옥(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 나석부(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투척)

-> 이에 한계를 느끼고

이후 활동: 황포군관학교 입교 -> 조선혁명간부학교 만듦 -> 민족혁명 결성 -> 조선의용대 결성

위캔 단원 해설

신간회는 1907년에 결성된 신간회와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신민회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한 민족운동 단체였다. 신민회의 결성 배경에는 6.10만세운동이 있다. 순종의 인산일에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민족주의 세력)은 6.10만세운동을 기획한다. 이를 통해 두 세력은 연합의 기회를 만들었다. 국외적으로는 민족 유일당 운동의 모습이 트렌드처럼 나타나고 있었다. 6.10만세운동과 민족 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 민족 주의 계열과 통합하겠다는 정우회 선언이 발표된다.

사실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이외에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회주의는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 세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기회주의자라고 불리는 친일파가 점차 나오면서, 민족주의 세력도 흔들리고 있었다. 서로의 세력이 흔들리는 상황과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사회적 분위가 합쳐지면서 그들은 서로 손을 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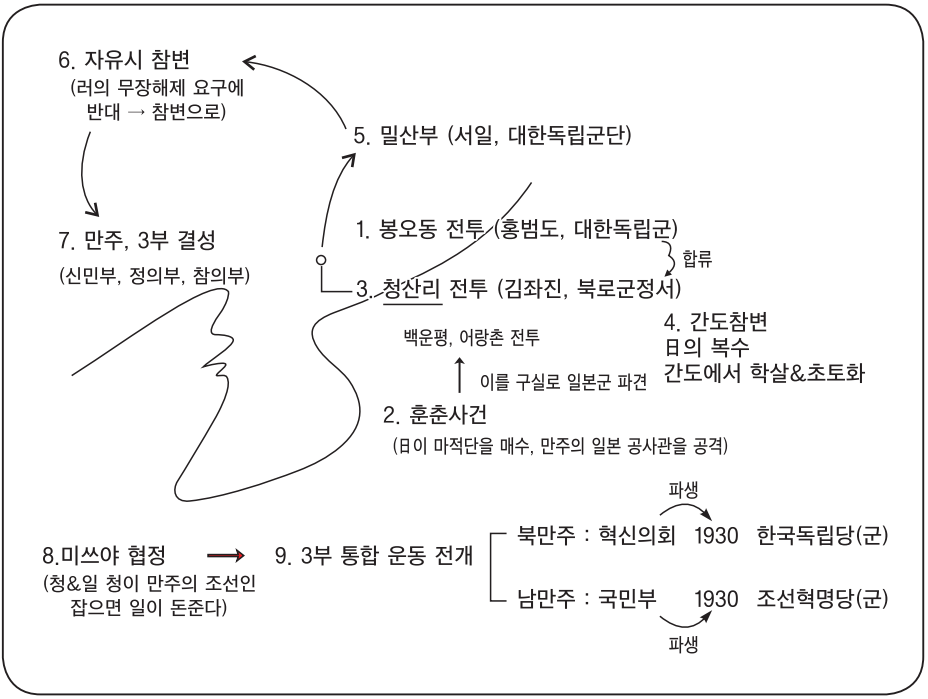
민족의 단결, 친일 기회주의자 배격, 정치&경제적 각성을 강령으로 신간회를 결성한다. 신간회는 전국에 지회를 두고 대중운동을 지원한다. 특히나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진상 규명회, 민중 대회를 계획하여 광주 학생항일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잠시, 광주학생항일운동에 대해 넘어가 보자면, 광주에서 일본학생과 조선 학생의 다툼을 시작된 운동이다.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는 모습을 본 조선 학생이 이에 분노하면서, 일본 학생과 조선학생이 싸우는 사건이 발생한다. 경찰의 대응은 조선 학생에 대한 처벌이었다. 편파적 조치에 분노한 광주 학생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광주학생항일운동이다.

신간회는 일제의 탄압과 사회주의 계열이 이탈하면서 해체되게 된다.

의열단 김원봉의 주도로 조직되었으며, 폭력과 민중의 직접혁명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조선 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활동하였다. 활동하는 사람으로는 김의상(조선총독부에 폭탄 투척), 김상옥(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 나석부(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투척) 등이 있었다. 하지만, 폭탄 투척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들은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하여,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든다. 이후에, 의열단은 조선 의용대 결성으로까지 이어진다.

3 1920년대 국외저항

tip) 순서: 봉오동 전투 -> 훈춘 사건 -> 청산리 전투 -> 간도 참변 -> 밀산부로 옮김 (서일, 대한독립군단) ->자유시참변 -> 만주로 가서, 3부 결성 -> 미쓰야 협정-> 3부 통합 운동 전개



위캔 단원 해설

순서를 잘 기억해두어야 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밀산부로 옮김(서일, 대한독립군단)->자유시참변-> 만주로 가서, 3부 결성-> 미쓰야 협정->3부 통합 운동 전개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은 봉오동에서 일본에 승리하였다. 이에, 일본은 마적단을 매수하여 만주의 일본 공사관을 공격한다. 이를 구실로 만주에 일본군을 파견한다.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를 중심으로 이에 합류한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은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다. 백운평, 어랑촌 전투이다. 여기서도 승리를 하면서,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점차 생겨난다. 하지만 이후로는 일본에 대한 승리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한다. 일본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에서 학살을 일으킨다. 만주에서 살기 힘들어진 조선인은 밀산부로 이동한다. 밀산부에서 서일을 중심으로 대한 독립군단을 결성하고,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한다. 당시, 러시아는 조선인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한다. 하지만, 불안했던 조선인이 이를 거부하자 명령에 거부한 조선인을 모두 죽인다. 간도 참변을 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인은 자유시 참변을 당한다. 조선인은 다시 만주로 돌아온다. 만주로 돌아와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3부를 결성한다. 만주로 돌아온 조선인을 전부 없애고 싶었던 일본은 청과 미쓰야 협정을 맺는다. 미쓰야 협정의 주요 내용은 청이 만주의 조선인을 잡으면 일본이 돈을 준다는 것이었다. 이후, 만주에 돌아와 3부를 결성한 조선인은 3부 통합운동을 통해 북만주에 혁신의회를 세우고, 남만주에는 국민부를 세운다.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을 만들고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을 만든다.

4 1930년대 국내외 저항

· 국내의 상황: 민족말살 정책으로 독립운동이 거의 전개되지 못함(쟁의, 문맹퇴치 운동에 그침)

· **한중연합작전**

배경: 만주사변(1931)과 만주국 설립

전개: 북만주 (혁신의회)->한국독립당(군) with 중국호로군, **지청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남만주 (국민부) -> 조선혁명당(군) with 중국의용군, **양세봉, 영릉가, 흥경성 전투**

· 중국 관내의 운동 (전체적인 흐름만 숙지하고 넘어갈 것)

배경: 만주국으로 인해, 만주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 독립 운동 단체들이 중국 관내로 이동

민족혁명당 결성(한국독립당+신한독립당+의열단) -> 민족혁명당의 분리

한국독립당(조소앙), 신한독립당(지청천) ->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로 들어감

의열단(김원봉) -> 조선민족전선연맹(1937) 결성, 산하부대: 조선의용대

tip)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한인 군사 조직, 화북으로 이동(1941. 호가장 전투 승리)

1942. 조선의용대의 이동 1. 충칭)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

2. 옌안) 조선독립동맹에 합류 -> 조선의용군으로 개편

위캔 단원 해설

1930년대 국내외 저항이다. 국내적으로는 민족 말살 정책으로 독립운동이 거의 전개되지 못했다. 노동 쟁의 ,문맹퇴치 운동 정도에 그친 수준이었다.

국외적으로는 한중연합 작전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 만주국을 설립하였다. 이에 중국군과 한국군은 힘을 합쳐 일본을 몰아내고자 한다. 북만주에서는 한국독립당이 군을 조직하여 중국의 호로군과 함께 전투를 벌였다. 지청천을 중심으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가 열린다.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당이 군을 조직하여 중국 의용군과 함께 전투를 벌인다. 양세봉을 중심으로 영릉가, 흥경성 전투가 열린다. 중국 관내의 운동은 다음과 같다. 만주국으로 인해, 만주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독립 운동 단체들이 중국 관내로 이동한다. 한국독립당, 신한 독립당, 의열단은 민족혁명당을 결성한다. 하지만, 한국 독립당과 신한 독립당이 한국 광복운동단체 연합회로 들어가면서 민족혁명당은 분리된다. 남아있던 김원봉의 의열단은 조선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고 산하부대로는 조선 의용대를 조직한다.

조선 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한인 군사 조직이다. 화북으로 이동하며, 호가장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한다. 이후, 충칭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는 한국 광복군에 편입된다. 옌안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는 조선 독립동맹에 합류되어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된다.

4. 민족 문화 수호 운동

1 일제의 교육 정책

시 기	교 육
1910	· 1차 조선교육령: 보통학교 수업 연한 차별(일본6년vs 한국4년)
1920	· 2차 조선교육령: 일본과 동일한 학제(6년으로), 고등교육0 (->민립대학설립운동) 조선어 필수과목화
1930	· 3차 조선교육령: 보통학교->심상소학교, 황국신민화교육 강화, 조선어 선택과목화
1940	· 4차 조선교육령: 전시동원과목, 조선어 금지

MEMO

위캔 단원 해설

1910년 일제는 1차 조선 교육령을 통해 보통학교 수업에서 차별을 두었다. 일본은 6년, 조선은 4년이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게 된다. 이는 3.1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적인 불만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920년 2차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는 조선과 일본이 동일한 학제 속에서 수업을 받게 하고 조선어가 필수 과목화가 된다.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경성 제국대학이 설립된다. 사실, 조선인이 고등교육을 위해 민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를 경성제국대학 설립으로 민립 대학 설립운동을 해산시켜 버린다. 1930년대는 3차 조선 교육령을 통해,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황국신민화 교육을 강화한다. 조선어는 선택 과목화가 되었다. 1940년대는 일본이 전쟁 중인 시기이다. 전시동원과목이 채택되었고, 황국 신민화 정책에 따라 줄여가던 조선어 교육을 아예 금지시켰다.

2 민족 문화 수호 운동(국어, 문학, 연극, 영화)

시기	구한말	1910	1920	1930	1940
국어	· 국한문체 보급 · 국어학 연구소 · **국문연구소 (주시경)**		· **조선연구회: <한글>잡지, 가갸날 제정**	· **조선어 학회: 맞춤법 통일안, 표준어 제정, <우리말큰사전> 편찬시도**	**조선어 학회 해산**
문학	· 신체시 :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남선) · 신소설 : 혈의 누, 금수회의록, 은세계	이광수<무정>	· 김소월 <진달래꽃> · 한용운 <님의침묵>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카프 문학 (사회주의 영향)		· 저항문학 - 이육사<광야> - 윤동주 <별헤는 밤> <-> 친일문학
연극, 영화	·원각사 (은세계, 치악산 공연)		·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 토월회	· 극예술연구회	

위캔 단원 해설

구한말 시기부터 1940년대까지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구한말 국한문제 보급, 국어학 연구소 등이 생겨났다. 특히, 주시경은 국문연구소를 통해 국어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다. 1920년대는 조선연구회를 통해 <한글>잡지를 간행하고 '가갸날'을 제정하였다. 1930년대는 조선어학위를 통해 맞춤법 통일안, 표준어를 제정하고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 한다. 하지만 1940년에 조선어 학회는 해산한다.

문학으로는 구한말 신체시와 신소설이 유행한다. 신체시에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신소설에는 혈의누, 금수회의록, 은세계등이 있다. 은세계는 원각사에게 공연되기도 하였다. 1910년대는 최초의 소설인 이광수의 무정이 나왔다. 1920년대는 진달래꽃(김소월), 님의 침묵(한용운), 빼앗길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와 같이 식민지 시절의 슬픔과 독립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는 시들과 사회주의 영향을 을 받아 카프 문학이 성행하였다. 1940년대에는 광야(이육사), 별헤는 밤(윤동주)와 같이 일제에 저항하는 문학작품들이 지속되었다.

영화로는 1920년대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과 연극으로는 1920년대 토월회와 1930년대 극예술연구회가 있다.

3 민족문화 수호운동(역사)

시기	구한말	1910	1920	1930	1940
역사	·신채호<독사신론>: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	<일본의 정책> ·식민사관 -타율성론: 한국의 역사는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당파성론: 만나면 싸우는 열등한 민족 -정체성론: 한국의 역사는 정체되어 있다.	·**민족주의 사학** **-신채호: 낭가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박은식: 혼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조선학 연구 -정인보: 얼 ·실증주의 사학 -이병도, 진단학회 ·**사회경제사학** -한국의 역사는 세계사적 법칙에 의해 보편적으로 발전함->정체성론을 비판 -백남운<조선사회경제사학>	

4 종교 활동

천도교	· 동학->천도교로 발전 · <개벽, 어린이, 신여성> 잡지 발간(1920년대) · 6.10만세운동 계획
대종교	· 만주에서 **중광단** -> 북로군정서 개편 ->청산리 전투 참여
원불교	· 박중빈 창시, 새생활운동
기독교	· 신사참배 거부
천주교	· 만주에서 의민단 조직

위캔 단원 해설

역사로는 구한말 신채호는 독사신론을 통해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1910년 일본은 식민사관을 통해 조선을 낮추고자 하였다. 타율성론(한국의 역사는 타국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당파성론(만나면 싸우기나 하는 열등한 민족이다.), 정체성론(한국의 역사는 정체되어 있다.)을 통해 조선을 열등한 국가로 표현하였다. 1920년대는 신채호와 박은식의 민족주의 사학이 돋보인다. 신채호는 화랑의 낭가사상을 중요하게 여기며,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를 집필하였다. 박은식은 혼을 중요하게 여기며<한국통사>,<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집필하였다. 1930년대는 조선학 연구로 정인보(얼을 중시여김)가 있었고, 실증주의 사학에 이병도(진단학회를 결성)가 있었다. 그리고, 1910년대 일본의 정체성론에 반대하여, 백남운은 사회경제사학을 주장했다. 이는 한국의 역사는 세계사적 법칙에 의해 보편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백남운은 조선의 역사가 정체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조선사회 경제사학>을 썼다.

동학은 천도교로 발전한다. 천도교는 소년활동과 연관이 깊다. 잡지 <어린이>를 발간한다. 뿐만아니라, <개벽>,<신여성>의 잡지를 발간하다. 천도교는 사회주의 계열과 함께 6.10만세운동을 계획하기도 한다.

대종교는 만주에서 중광단을 세운다. 중광단을 후에 북로군정서로 개편되어 청산리 전투에 참여한다. 원불교는 박중빈이 창시했으며, 새생활운동을 전개한다. 기독교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한다. 천주교는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다.

Ⅷ 현대사회의 발전

1. 대한민국의 수립

tip) 광복(1945년 8월 15일)

1 국제사회의 독립 약속

· 카이로 회담: 한국의 독립 최초 언급
· 포츠담 회담: 카이로 회담의 결정을 재확인, 한국의 독립을 약속

2 조선 건국준비 위원회(=건준위)

· 여운형 주도의 조선 건국 동맹에서 이어짐.
· 좌우 합작 단체 (좌 - **여운형**, 우 - 안재홍):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치안** + 행정을 맡음, 전국의 지부 설치
조선 인민 공화국을 수립 선포 but 미 군정의 승인을 받지x

MEMO

위캔 단원 해설

광복되기 이전, 국제 사회는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다.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언급되었고, 포츠담 회담을 통해 이를 재확인한다. 광복 직후 국내에서는 여운형 주도의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가 결성된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 건국 동맹에서 이어진 단체이다.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는 좌파의 여운형과 우파의 안재홍을 필두로 한 좌우합작단체였다. 광복 직후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다. 미군의 진주에 대비하여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미군정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와해된다.

3 광복 직후의 상황

tip) 순서: 미군정 -> 모스크바 3국 외상호의 -> 제 1차 미소공동 위원회 -> 이승만의 정읍발언 -> 좌우합작 운동 ->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 -> 유엔으로 한국의 문제를 상정

미군정	북한: 소련군 주둔 남한: 미군이 주둔 - 미군정의 통치 방식 : 현상 유지 정책(친일파 고용)& 대한민국 임정, 건준위 모두 부정함.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 내용: 한국에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 위원회 설치, 신탁통치(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최대5년 동안) ->신탁통치와 관련하여 좌우익의 대립이 심해짐 좌익: 신탁통치 지지, 우익: 신탁통치 반대
제 1차 미소공동 위원회	· 임시 정부 수립의 참여 단체를 놓고 대립 (좌익과 우익 누구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
이승만의 정읍발언	·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겠다.
좌우합작 운동	· 좌우합작위원회 결성: 중도 우파(김규식)+중도 좌파(여운형) - 좌우합작 7원칙 발표: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유상매입&무상분배, 친일파 처단 => 7원칙과 관련해서 좌우의 입장이 달랐음
제 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 -> 좌우합작 위원회 해산
유엔	유엔으로 한국의 문제를 상정

위캔 단원 해설

38도선을 경계로 남에서는 미국, 북에서는 소련이 주둔하면서 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군정은 남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등 한국인이 만든 모든 행정 조직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일제 강점기 시절의 총독부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을 중심으로 열린 3국 외상회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과 이를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가 결의되었다. 신탁통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좌우익의 대립이 심해졌다. 좌익 세력은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대해 반대하다가, 지지로 입장을 바꾼다. 우익 세력은 신탁통치를 격렬히 반대한다. 반대한 이유에는 신탁통치가 또 다른 이름의 식민지가 될까 우려했던 점이 크다.

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임시 정부 수립의 참여 단체를 놓고 대립하였다. 좌익과 우익 중 누구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미국은 신탁통치 반대세력까지 포함시키자고 했다. 반면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찬성 세력만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다.

이승만은 통일 정부 수립이 어렵다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정읍 발언을 발표하였다. 분단의 상황이라는 불안함과 함께 여운형과 김규식은 통일 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한다. 좌우합작 위원회를 결성하여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한다. 좌우합작 위원회는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유상매입과 무상분배의 토지 개혁, 친일파 처단' 등의 좌우합착 7원칙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좌익과 우익이 7원칙과 관련하여 입장이 달랐다. 결국, 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됨에 따라 좌우합작 위원회도 해산된다.

한국의 문제는 유엔으로 넘겨진다.

4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서 담당
·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실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파견-> 북한의 입국 거부
·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결정

tip) 사건 발생 순서:
김구(삼천만 동포에게 읍고) -> **제주 4.3 사건 -> 남북협상 -> 5.10 총선 -> 제헌헌법 -> 대한민국 수립**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 **여수 순천 10.19사건** -> 유엔은 대한민국을 합법 정부로 승인

① 김구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 : 통일정부의 필요성을 강조
② 제주 4.3사건
원인 : 제주도에서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
결과 : 5.10 총선거가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지 않음, 수많은 양민 학살
③ 남북협상
남 : 김구, 김규식 / 북 : 김일성 -> 실질적인 성과 x
④ 5.10 총선거
- 최초의 평등, 보통, 비밀선거
- 이승만지지 세력의 대거 당선 why? 김구, 김규식은 총선거 불참
- 제헌 국회 구성

위캔 단원 해설

유엔은 총회에서는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총선거를 위해, 유엔은 한국에 임시위원단을 파견하나 북한은 입국을 거부한다. 유엔 소총회에서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하였다. 결국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가 결정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이다. 관련하여 순서를 정확히 알고 가도록 하자. '김구(삼천만 동포에게 읍고)-> 제주 4.3 사건-> 남북협상-> 5.10 총선-> 제헌헌법-> 대한민국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여수 순천 10.19사건 -> 유엔은 대한민국을 합법 정부로 승인'

김구는 분단이 될 상황에서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를 통해 통일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주도에서도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제주 4.3사건이 발생한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학살당했으며, 이후 열린 5.10총선거가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않는다.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추진다. 평양에서 김일성과 함께 남북 협상회의가 열린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한다. 결국 5.10 총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된다. 한국에서 열린 최초의 평등, 보통, 비밀선거였다. 하지만 김구, 김규식등의 세력이 불참하면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당선된다. 총선거를 바탕으로 제헌국회가 구성된다.

4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⑤ 제헌 헌법

- 대통령 간선제(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 친일파 처단

반민족 행위 처벌법	·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 전개: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친일 세력의 방해 국회 프락치 사건(반민특위와 북한 간첩에 관계되어 있다.) 경찰 습격 · 결과: 실패

- 농지 개혁

· 전개:
- 유상매수: 1가구당 3정보까지 소유를 제한
- 유상분배

· 결과: 식민지 지주제를 철폐함, 소작제가 사라짐

- 미국의 철수 시작

⑥ 대한민국 수립

⑦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⑧ 여수·순천 10·19 사건:

- 제주 4.3사건의 진압 명령을 거부한 여수 부대의 좌익 세력이 반란 주도

-> 이승만 정부의 진압 -> 지리산에서 게릴라 활동 전개

위캔 단원 해설

제헌 헌법에서는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과 농지 개혁법이 만들어진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줄여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진다. 잠시 친일파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한다. 광복 직후 친일파는 미군정에 의하여 고용되었다. 친일파는 우익세력에 서서 '공산주의 반대'를 외치며,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이승만 정부 시기 우익 세력 중에는 다수의 친일파가 있었다. 이들에게 반민특위는 걸림돌이었다. 결국, 반민특위가 북한과 내통했다는 구실(국회 프락치 사건)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을 구속하고,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면서 반민특위는 해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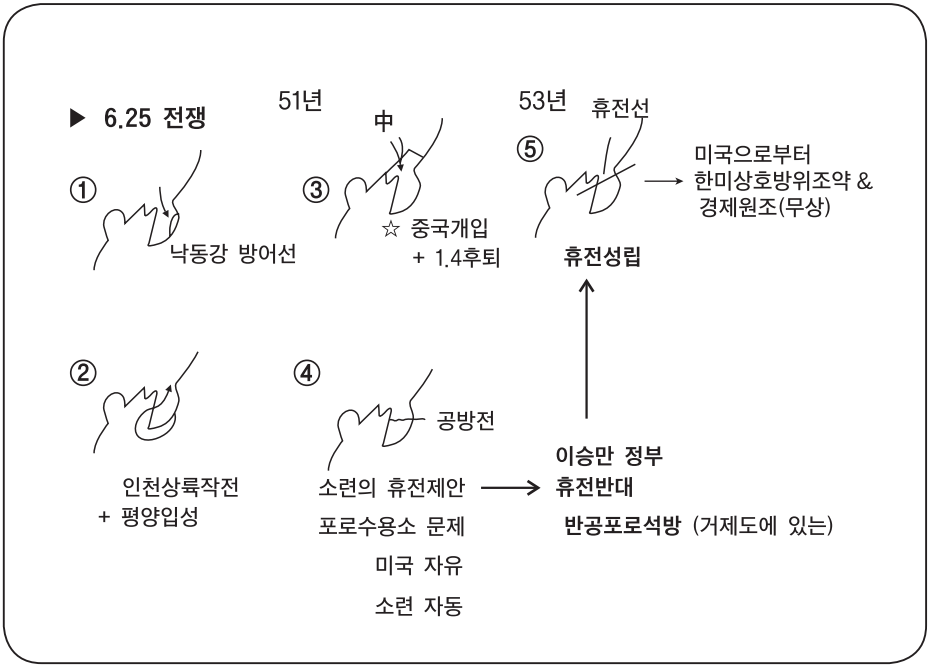
유상매수, 유상 분배의 방법으로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농지개혁으로 지주제, 소작제가 사라졌으며 농민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게 된다. 다만, 유상 매수 당시 정부는 돈을 제공하는 대신 지가 증권을 제공했는데, 지가 증권은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워 중소 지주층은 산업 자본가로 전환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따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된다. 북한의 농지개혁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남아있던 제주도 세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에 주둔한 군부대를 제주도로 출동시킨다. 하지만, 여수 부대의 좌익 세력이 출동을 거부하면서 여수와 순천 지역을 점령하였다. 정부군은 신속하게 반군을 진압하고, 지리산에서 게릴라 활동을 전개했던 세력을 결국 모두 진압한다. 문제는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도 일어났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그 사실에 드러나지 않았다

5 6.25전쟁 발생

· 원인: 남북대립, 애치슨 선언(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 소련의 군사원조-> 북한의 국방력 강화



위캔 단원 해설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남북은 38도선을 부근으로 하여 잦은 충돌을 빚고 있었다.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애치슨 선언으로,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된다.

전개과정은 꼭 알아두자. 북한이 6월 25일 새벽 남침을 해왔다. 북한군은 빠르게 서울을 점령하고, 빠른 속도로 남하하여 낙동강까지 진출하였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은 침략자로 규정하고 한국을 지원하는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한다.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에 입성한다. 전세가 남한에 넘어오는 듯하였지만, 중국의 개입으로 후퇴한다(1.4후퇴). 남한은 다시 서울을 내주게 되지만 재탈환한다. 38도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로 있는 공방전이 지속된다. 소련의 휴전 제의로 정전 회담이 시작된다. 회담에서는 포로 송환 문제를 가지고 분분했다. 미국은 자유송환, 소련은 자동 소환을 주장한다. 이때, 이승만 정부가 휴전에 반대하면서, 거제도에 있는 반공 포로를 석방해 버린다.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으로 회담이 지연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휴전 협정을 체결한다. 체결 내용에는 휴전선 확정, 비무장 지대 설치 등에 합의 하였다. 한국은 이후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경제 원조를 받는다.

6.25전쟁은 냉전시대 최대 규모의 국제전이었다. 남북한의 인적 ,물적 피해가 심각했다.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 남북한 정부는 이후, 이승만 정부의 반공정책과 북한의 적화 통일을 통해 대립적인 위치에 계속적으로 서있게 된다.

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1 이승만 정부

발췌개헌	(6.25전쟁 , 임시수도: 부산) · 배경: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지지 세력의 대거 탈락 -> 이승만은 '자유당' 창당 · 전개: 부산 정치 파동(야당에게 개헌에 찬성하라고 협박) · 결과: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직선세(+ 의원내각, 양원제)** **제 2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당선**
사사오입 개헌	· 전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 철폐' 개헌안 제출->1표 부족으로 부결 선포 -> 사사오입 논리로 개헌 (사사오입 논리: 총 203명 중 찬성 135표인 상황, 1표 부족으로 부결이 선포됨. 203X2/3=135.333-> 이 0.333을 반올림해서-> 136표가 찬성표이다.) · 결과: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 철폐, 제 3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당선**
강력한 반공체제	· 신국가보안법 제정(->경향신문 폐간) · 진보당 사건->조봉암 사형

위캔 단원 해설

발췌개헌은 6.25전쟁 중에 이루어졌다. '전쟁 중에는 지도자를 바꾸면 안된다.'는 속설이 있다고 한다.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탈락하면서 이승만은 자유당을 창당하지만, 불안감이 커진다. 발췌개헌을 위해 부산에서 야당에게 개헌에 찬성하라고 협박하는 정치 파동이 발생한다. 결국 발췌개헌이 이루어지고 대통령 간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다. 발췌개헌을 통해 이승만이 제 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발췌개헌의 대통령 직선제는 의원내각, 양원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승만이 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 포석을 놓은 개헌인 사사오입 개헌이다. 사사오입 개헌의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3명 중 찬성 135표로, 1표 부족으로 부결을 선포한다. 이때, 사사오입 논리를 내세워 136표가 찬성표라고 주장해 개헌을 통과시킨다. 사사오입 논리란 203명중 2/3가 찬성일시 개헌이 통과되는데, 203X2/3=135.333 중 0.333을 반올림해서 136표가 천성표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반올림을 통해 135표를 136표로 만들면서, 사사오입 개헌은 통과되고 제 3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된다.

이후, 이승만은 신국가보안법을 제정(경향신물을 폐간함)하고 진보당 사건을 통해 라이벌이었던 조봉암을 사형시키는 등 강력한 반공한 반공체제를 유지시켜간다.

· 4.19혁명
원인: 3.15부정선거 -> 마산시위-> 김주열 시신 발견(눈에 최루탄이 박힌채로)
전개: 경찰 발포, 계엄령 선포-> 대학교수단 시위-> 이승만 하야

· 이승만의 경제

농지 개혁	· 유상매입, 유상분배 ->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실현
귀속재산처리	· 일본인이 남긴 공장을 싼 값에 팔음 -> 독점자본 성장
경제 원조	· 밀, 설탕, 면화를 원조 받음 -> 삼백 산업 발달

2 내각 체제

· 허정 과도 내각
- 3차 개헌: 의원내각제, 양원제

· 장면 내각
- 대통령: 윤보선(권력X), 국무총리: 장면(실질적 권한O)
- 4차 개헌: 소급입법(=3.15부정선거사범 처리법)
- 한계: 3.15부정선거 처벌에 소극적, 요구에 대한 대응미비, 민주당내의 대립-> 정치적 불안

위캔 단원 해설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를 원인으로 발생하였다. 당시, 마산에서 처음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의 기폭제 역할은 한 것은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이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채로 발견된 김주열의 시신에 시민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시위의 양상이 점차 커진다. 경찰의 발포와 계엄령이 선포되었지만, 대학교수단까지 시위에 참여하면서 이승만은 하야하게 된다.

다음은 이승만 시기의 경제이다. 일본이 물러간 이후, 남은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이 실시된다.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통해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가 실현된다. 일본인이 남긴 재산, 예를 들면 공장과 같은 재산에 대한 귀속 재산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후, 공장을 사들인 이들에 의한 독점자본이 성장한다. 6.25전쟁 이후, 무너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 원조를 받는다. 밀, 설탕, 면화 등의 원조를 받는데 이를 바탕으로 삼백산업이 발달한다. 삼백이란 세 개의 흰색을 이르는 말로, 밀, 설탕, 면화를 말한다.

이승만 하야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잠시 내각 체제가 형성한다. 허정 과도 내각은 3차 개헌을 통해 의원 내각제, 양원제를 실시한다 . 이후 의회는 대통령으로 윤보선을 선출하고, 윤보선은 국무총리로 장면을 지명한다.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장면 내각은 4차 개헌을 통해 3.15 부정 선거 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을 만든다. 또한, 지방 자치제 실행, 경찰의 대대적인 인사조치, 경제 개발 계획 등을 마련한다.

한편, 그동안 억압되었던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된다. 독재시기 속에 억압되었던 각 분야의 요구들이 빗발치듯이 생겨난다. 하지만, 장면 내각은 요구에 대한 대응 미비하였다. 또한, 3.15부정 선거 처벌에 소극적인 모습과 민주당내의 대립으로 결국 정치적인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3 박정희 정부

5.16 군사정변	·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쿠데타(정치 군인의 등장) - 반공국시, 경제를 강조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 중앙 정보부를 둠 - 후에, 민정에게 이양 · 5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4년에 대통령 2번까지 OK), 단원제 -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
외교	· 외교: ① 한일수교(1965) 원인: 경제 개발 자금 필요,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전개: 김종필, 오히라 비밀 회담-> 6.3시위(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 계엄령 선포-> 한일협정 체결 결과: 무상 3억불+유상 2억불을 받음 & 일본 사과X, 개인청구권X ② 베트남 파병 원인: 경제 개발 자금, 기술 필요 전개: 브라운 각서(미국의 기술, 차관 제공 약속)-> 베트남 파병 결과: 라이따이한, 고엽제 피해자

위캔 단원 해설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다. 정치 군인의 등장이었다. 박정희는 반공국시, 경제를 강조하며 후에 민정에게 정권을 이양할 것을 정확히 밝혔다. 일단, 국가 재건 최고 회의와 중앙정보부를 통해 정권을 안정시킨다. 이후, 5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4년에 대통령 2번까지 OK),와 단원제가 결정되고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다음은 박정희 정부의 정책이다. 외교적으로는 한일 수교를 맺는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점도 있었지만, 경제 개발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점이 크다. 한일 수교 이후 실제로, 무상 3억불과 유상 2억불을 지급받는다. 한편, 한일 수교와 관련하여 김종필, 오히라 비밀 회담이 여긴 이후에 6.3시위가 열린다. 김종필, 오히라 비밀 회담에서 일본의 사과와 배상, 약탈 문화재 반환 등이 외면된 사실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6.3시위가 열린다. 한일수교에 반대하는 시위였다. 박정희는 이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한일 협정을 체결한다. 한일협정을 통해 우리 경제는 자금을 확보했고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사과와 배상은 없었고, 개인 청구권을 없앴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파병을 결정한다. 브라운 각서를 통해 미국은 기술, 차관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베트남 파병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지만 수많은 젊은이가 고엽제에 의한 피해를 입었고, 한국군에 의해 많은 베트남 양민이 희생되었으며, 한국인 혼혈인인 라이따이한이 문제가 되었다.

3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장기집권 · 6차 개헌: 3선 개헌(1969) -> 박정희 3선 성공(근소한 차이로)
	· 이전의 상황: 박정희가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선출 7.4남북공동성명(평화 3대원칙: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 7차 개헌: **유신체제 선포** **- 대통령 5년 간선제<-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 **- 대통령이 국회의원 1/3 임명** **- 긴급조치권(헌법 정지)** - 국회 해산권, 대법원장 임명권 ·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20시간만에 판결+사형 집행->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불림, 2007년 사형당한 8인 무죄판결) - YH 무역사건(->김영삼 제명) - 부산,마산 민주화 운동 · 유신체제의 붕괴 : 10.26사태(박정희의 죽음)

위캔 단원 해설

박정희는 6차 개헌을 통해 3선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3선을 성공시키면서 장기집권을 하게 된다. 하지만 박정희의 불안감은 가중된다.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박정희 정부가 내세우던 반공도 소용이 없어진 듯 보였다. 불안했던 박정희는 7차 개헌을 통해 유신체제를 선포한다. 독재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선제(5년)를 채택하였으며,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하였고, 헌법을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이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국회 해산권과 대법원장 임명권도 주어졌다. 유신체제가 발표한 이후,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YH 무역사건(이 사건으로 인해 김영삼 의원은 제명된다),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난다. 이 시기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도 발생한다. 이는 중앙 정보부가 인민 혁명당이라는 간첩단을 조작하여 관련자를 잡아들인 사건이다. 20시간 만에 판결과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불린다. 2007년이 되서야 사형 당한 8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죽음으로 붕괴되었다.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총을 쏘아 사망한다.

·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60년대	·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공업 중심, 노동 집약적 - 해외로 인력을 파견(서독 노동자, 간호사를 파견) - 한일 수교 - 베트남 파병
70년대	·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경부 고속도로 개통(1970) · 전태일 분신 사건(근로기준법 준수 관련,1970) · 새마을 운동: 농촌(생활개선,1970) · 3, 4차 경제개발 개년 계획: 중화학 공업 중심, 자본 집약적 -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 -> 고부가 가치 산업 구조로 - 포항 제철, 조선소, 공업 단지

위캔 단원 해설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60년대는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다. 경공업을 중심으로, 의류와 신발등 노동 집약적 사업이 이루어졌다. 제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경부 고속도로 개통,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 생활 개선이 이루어진다.

경제 개발을 위해 필요한 돈은 한일수교를 통해 마련한다. 한일 수교를 통해 받은 무상 3억불과 유상 2억불은 경제 개발에 사용된다. 또한, 베트남 파병을 통해 경제 개발 자금과 기술을 얻어낸다.

한편, 외화 벌이를 위한 해외로 인력을 파견한다. 서독에는 다수의 노동자와 간호사가 파견되었다.

3,4차 경제개발 개년 계획은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한 자본 집약적 산업이었다. 포항 제철, 조선소, 공업 단지를 건설했고, 광공업과 서비스업등 2차,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 하면서 한국은 고부가 가치 산업 구조로 변모한다.

경제 개발 속에서 문제점도 존재하였다. 이는 전태일 분신사건을 통해 크게 드러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과도한 노동시간을 부과한 점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점점 논의된다.

4 전두환 정부

· 5.18 민주화 운동

전개: 12.12 사태로 신군부의 실권 장악-> 서울의 봄(유신X, 계엄X, 신군부X)
-> 계엄령의 전국적 확대-> 5.18민주화 운동(계엄군<->시민군, 무차별 진압)

tip)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

전두환 정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삼청교육대(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사람을 끌고 가서 교육시킴) - 언론 통폐합 ② 8차 개헌: 7년 담임, 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 선출)
	③ 전두환 취임(대통령 선거인단이 선출) - 강압통치: 언론 통제(보도지침), 삼청교육대 - 유화정책: 해외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 금지X, 프로스포츠 학원, 교복 자율화 **- 3저 호황(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④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⑤ 4.13 호헌조치(지금의 헌법을 유지하겠다)

위캔 단원 해설

전두환은 12.12사태를 통해 군권을 장악하였다. 박정희에 이은 또다른 정치 군인의 등장(신군부)이었다. 1980년 봄 서울에서는 유신과 계엄 철폐와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서울의 봄). 이를 계기로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광주에서는 5.18민주화 운동이 발생한다.

신군부는 광주의 민주화 운동을 과잉 탄압하였다. 계엄군은 폭력을 휘두르며 학생과 시민을 대거 체포하였다. 신군부는 언론을 통제되어 광주 시민의 운동은 폭동과 폭도를 몰아갔고, 광주로 통하는 모든 교통로는 차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의 시민은 계엄군에 맞서 저항하였다. 계엄군과 시민군의 대치 상황이었다. 그러나 계엄군은 시민군을 끝까지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전남 도청을 장악하였다. 5.18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전두환은 국가 기강 확보를 명분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언론을 통폐합하고,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사람들은 삼청 교육대로 끌고 가 교육시켰다. 이후, 전두환은 8차 개헌을 통해 7년 단임제와 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의 개헌을 단행했다.

이후,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언론을 통제하고 삼청 교육대등 강압적인 통치와 더불어 유화 정책을 함께 실시한다. 해외 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 금지폐지, 두발과 교복 자율화, 프로 스포츠 창단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했다. 전두환 시기는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의 3저 호황의 시기였다.

하지만,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은 전두환의 발목을 잡게 된다. 전두환은 노동, 학생 운동과 관련한 자들에게 무리한 고문 수사를 진행시킨다. 이 과정에서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한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라고 말하며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두환은 지금의 헌법을 유지하고 직선제로는 개헌하지 않겠다는 4.13호헌 조치를 내렸다.

4 전두환 정부

· 6월 민주 항쟁(1987)
원인 :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4.13호헌조치
전개 : 구호 '호헌철폐, 독재타도', 시위 도중 이한열 사망-> 시위 확산
결과 : 6.29민주화 선언 (직선제 수용)-> 9차 개헌: 대통령 5년 단임제, 직선제
tip) 88올림픽으로 인하여 계엄령이 내려지지 않음

5 이후의 정부

노태우	· 3당 합당 · 부분적 지방 자치제 · 북방 외교: 소련, 중국과 수교 · 남북관계 개선 : 남북한 UN동시 가입 & **남북 기본 합의서** & 한반도 비핵화 선언
김영삼	·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 **금융실명제** ·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WTO출범->OECD 가입->IMF
김대중	· IMF 극복(금모으기 운동, 구조조정) · **햇볕 정책 -> 남북정상회담 -> 6.15남북 공동 선언**
노무현	· 제 2차 남북 정상회담
이명박	· G20정상회담 개최

위캔 단원 해설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과 4.13 호헌조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이 시작된다. 국민이 바라는 바는 호헌를 철폐하고 독재를 타도하는 것이었다. 시위 도중 이한열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면서 시위가 확산된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가 전국적으로 계속되었다. 결국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대통령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방식)를 수용하는 6.29선언을 발표한다. 6.29선언에 따라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9차 개헌이 이루어진다. 6월 민주항쟁은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한 평화적 시위였으며, 군사 독재를 끝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9차 개헌)이 이루어진다. 대통령 후보로는 야당의 김영삼, 김대중 여당에서는 노태우가 나온다. 야당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노태우가 낮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의석의 관반수를 확보하게 된다. 여당에 비해 야당이 독보적으로 많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3당 합당이 실시된다. 노태우 정부는 부분적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였고 이는 김영삼 정부시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노태우 정부 시기는 북쪽(소련, 중국, 북한)과의 진전이 보인다. 소련,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졌고 남북관계 또한 개선된다.

김영삼 정부는 탈세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한다. 경제적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타결, WTO 출범, OECD 가입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일찍 샴페인을 터트렸다는 말이 있듯이 임기 말 외환위기, 즉 IMF가 발생한다.

김대중은 외환위기 극복에 초점을 두었다. 금 모으기 운동, 구조조정을 통해 IMF에서 벗어나지만 많은 기업과 은행이 외국 자본에 매각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김대중의 북한관련 정책은 햇볕 정책으로 불린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화해와 협력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노무현 시기는 김대중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여 제 2차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다. 이명박 정부 시기는 G20 정상회담 개최가 있다.

3. 통일을 위한 노력

박정희	· 남북 적십자 회담(1971) · 7·4 남북 공동 성명(1972): -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 - **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tip) 7·4 남북 공동 성명 ①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주) ② 통일은 상대를 반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평화) ③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민족적 대단결)
전두환	· 남북 적십자 회담 ·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노태우	· UN 남북 동시 가입(1991) ·남북 기본 합의서(1991) : 남북 관계->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 남북간 교류-> 민족 내부 교류로 규정 ·한반도 비핵화 선언
김대중	· 햇볕 정책 · 금강산 관광 사업 · **최초 남북정상 회담 -> 6.15남북 공동 선언** : 남북 교류의 협력의 활성화, 경의선 복구, 개성공단 설치
노무현	· **제 2차 남북 정상 회담**

위캔 단원 해설

박정희 시기는 세계적으로도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남북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시작으로 7.4남북 공동 성명이 이루어진다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는 통일의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합의한다. 이후 남북 조절위원회가 설치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오히려, 7.4 남북 공동 성명은 남북한 독재 정권 구축에 활용된다. 남한은 이후 유신 헌법을 발표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한다.

전두환 정부 시기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 최초로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 예술 공연단 교환도 이루어졌으나 일회성으로 그치고 만다.

노태우 시기 북방 외교(소련, 중국 등 북쪽과의 대화를 시작함)와 북한과의 교류도 조금 활발해진다. 남북이 UN에 동시에 가입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는 성과가 있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표현하고, 남북간의 교류를 민족 내부의 교류로 표현하였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한 정부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 합의서로, 상호 불가침에 합의했다는 점에 있어 의의를 가진다. 이후,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이루어지나 김영삼 정부 이후, 북한의 핵 개발 의혹에 따라 남북의 관계는 다시금 굳어진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좋아진다. 현대 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이 소 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금강산 관광) 등이 본격화되었다. 평양에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6.15남북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다. 남북의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경의선을 복구하고 개성공단 산업을 실현하는 등 남북 관계가 진전된다. 노무현 정부 시기는 제 2차 남북 정상 회담이 열린다.

시대별로 보는 한국사

◈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 뗀석기(주먹도끼) · 이동생활, 동굴에 거주 · 사냥, 채집, 물고기 잡이
신석기 시대	·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뼈바늘 · 정착생활, 농경사회, 움집에 거주 · 원시신앙, 평등사회
청동기 시대	· 비파형 동검,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 · 계급사회, 족장, 사유재산, 국가 · 고조선: 단군왕검, 제정일치,8조법
철기 시대	·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검은 간 토기 ·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 · 부여: 영고, 형사취수제, 사출도 · 고구려: 동맹, 제가회의, 서옥제 · 동예: 무천, 책화, 족외혼 · 옥저: 민며느리제, 가족공동 무덤 · 삼한: 소도(천군), 철 생산

MEMO

◈ 삼국시대

	고구려	백 제	신 라
1C~3C	· 태조왕(1C): 요동 진출, 옥저 정복, 계루부 고씨의 왕위세습 · 고국천왕(2C): 왕위의 부자 상속 확립,행정적 성격 5부, 진대법 실시	· 고이왕(3C): 관제, 관등, 복색, 율령 반포	· 박, 석, 김이 돌아가며 다스림
4C (백제 전성기)	· 소수림왕: 율령, 불교, 태학	· 근초고왕: 왕위 부자 상속 확립 , 마한 병합, 요서&일본에 진출, 고구려공격 고흥의 <서기>	· 내물왕(4C말): 김씨 세습 확립, 마립간 , 관련 유물: 호우명 그릇
5C (고구려 전성기)	· 광개토대왕(4C말~5C초): 한강상류, 요동 진출, 동예 복속, 만주 정벌, 신라의 왜 침입 격퇴 · 장수왕(5C): 남진 정책-> 평양 천도, 관련 유물: 충주 중원 고구려비, 광개토대왕릉비	· 개로왕:한강유역을 뺏김 · 문주왕: 한성->웅진	
7C (신라 전성기)	· 수vs 고구려의 전쟁: 살수대첩(을지문덕) · 당vs 고구려의 전쟁: 천리장성, 안시성 싸움 · 고구려 멸망(668년) · 고구려 부흥 운동	· 백제멸망(660) · 백제 부흥 운동	· 신라의 삼국통일: 나·당 연합 결성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삼국통일(676년, 문무왕)

◈ 남북국 시대

	통일 신라	발 해
7C중반 ~8C중반	· 문무왕: 삼국통일 · 신문왕: 왕권 강화,녹읍폐지, 관료전지급, 9주 5소경, 9서당 10정, 국학 · 성덕왕: 정전 지급 · 경덕왕: 녹읍 부활	· 발해의 건국: 대조영, 동모산에서 · 무왕: 당의 산둥 공격 (장문휴 장군), 연호 '인안' · 문왕: 상경천도, 친당정책으로 당의 문물 수용함, 신라도, 연호'대흥'
8C중반 ~9C말	· 왕위 쟁탈전 심화 · 원성왕: 독서삼품과 실시 · 흥덕왕: 청해진, 장보고, 장보고의 난 · 진성여왕: 원종과 애노의 난 · 호족+6두품, 선종, 풍수지리 유행	· 선왕: 해동성국, 요동 확보, 연호'건흥'
10C초	후삼국 시대 견훤: 후백제 건국 궁예: 후고구려 건국 왕건: 고려 건국, 후삼국 통일	· 발해의 멸망(926): 거란에 의해 멸망

◈ 고려시대

지배층	호족(10C)	문벌귀족(11C)	무신(12C)	권문세족 (13C~14C)
대외 관계	· 거란(요)침입 서희의 외교담판, 강감찬의 귀주대첩	· 여진(금)침입 윤관의 별무반, 동북9성, 김부식의 금 사대	· 몽골(원)침입 -강화도 천도 -삼별초, 팔만대장경판	· 원 복속기: 영토상실, 호칭 격하, 정동행성 설치, 내정간섭, 몽골풍
고려 내의 상황	· 태조 왕건: 호족과 혼인, 사성, 기인, 사심관, 훈요10조 · 광종: 노비안검법,과거제 · 성종: 유교 정치(최승로의 시무 28조), 12목 설치, 서희의 강동 6주	· 이자겸의 난 · 서경천도운동: 묘청 주도, 금 사대 반대, 풍수지리설	· 무신정변 · 최씨무신정권 :교정도감, 정방, 삼별초 · 봉기: 망이와 망소이의 봉기, 김사미와 효심의 봉기, 만적의 봉기	· 원의 내정간섭 · 공민왕의 개혁정치: 친원파X,몽골풍X, 정동행성 이문소X, 전민변정도감 (신돈)

◈ 조선시대

태조(15C)	· 국호: 조선, 수도: 한양
태종(15C)	· 6조 직계제, 사병폐지, 호패법, 신문고, 양전사업
세종(15C)	· 의정부 서사제, 4군 육진, · 편찬 사업: <농사직설>,<향약집성방>,<의방유취>,<칠정산> · 문화 정리: 훈민정음 창제, 삼강행실도, 측우기, 앙부일구, 혼천의, 자격루
단종(15C)	·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실권 장악
세조(15C)	· 왕권 강화: 6조 직계제, 집현전, 경연 폐지 · 직전법 실시
성종(15C)	· <경국대전>,<국조오례의>완성, 홍문관 설치, 경연 시행
연산군(15C)	무오사화, 갑자사화
중종(16C)	조광조(현량과, 위훈 삭제), 기묘사화
선조(16C)	임진왜란 발발, 이황의 성학십도
광해군(17C)	· 중립외교: 실리 추구, 강홍립 파견
인조(17C)	· 인조반정, 영정법 · 정묘호란: 친명배금 정책, 후금과 형제관계 맺음 · 병자호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 체결
효종(17C)	· 북벌운동, 나선정벌, 북학론
현종(17C)	예송논쟁
숙종(17C)	환국, 백두산 정계비, 대동법
영조(18C)	· 탕평비 건립, 균역법, 속대전, 신문고 부활
정조(18C)	· 탕평책,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용영, 수원화성, 신해통공, 대전통편
세도정치(19C)	소수의 가문이 주도, 삼정의 문란, 서학&동학

◈ 근대

1860년대	1863 흥선대원군 집권: · 흥선대원군: 왕권 강화, 삼정의 문란 해결, 경복궁 중건, 서원철폐 1866 병인박해, 병인양요, 신미양요 1868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70년대	1871 신미양요, 척화비 1875 운요호 사건 1876 강화도 조약(치외법권, 해안측량권, 항구개항)
1880년대	1880 통리기무아문 1881 별기군, 조사 시찰단과 영선사 파견 1882 임오군란(구식 군대의 반발) 1882 조미수호통상조약(조선책략 영향, 거중조정)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외국 상인의 내륙 진출) 1883 원산학사, 기기창, 보빙사, 한성순보 1884 갑신정변(급진 개화파, 14개조 개혁안, 톈진조약) 1885 거문도 사건(영국의 거문도 불법점령), 조선 중립화론(유길준) 1886 육영공원 1889 방곡령
1890년대	1894 동학농민운동, 군국기무처, 갑오개혁, 청일전쟁 1895 청일전쟁,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1896 아관파천, 독립신문, 독립협회 1897 대한제국 수립 1898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해산 1899 대한국 국제 반포, 광무개혁, 전차 개통
1900년대	1904 러일 전쟁,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고문파견), 보안회 1905 을사조약(외교권 박탈, 통감부), 을사의병, 화폐정리사업, 헌정연구회 1906 대한 자강회 1907 헤이그특사, 고종퇴위, 정미의병, 한일신협약, 신민회 국채보상운동 1908 동양 척식 주식회사 설립, 서울 진공작전(13도 창의군) 1909 기유각서, 간도협약, 남한대토벌 작전 1910 한일병합조약, 국권 피탈

◈ 일제강점기

1910년대	1910 조선 총독부, 무단통치(헌병경찰통치) 시작 1911 105인 사건, 신민회 해체 1912 토지 조사령 공포 1914 대한 광복군정부 수립 1919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의열단 조직
1920년대	1920 봉오동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참변 1920 문화 통치9민족분열통치), 산미증식계획 시작 1923 국민대표회의 1924 조선 청년 총동맹 1925 치안유지법 1926 6.10만세운동 1927 신간회, 근우회 결성 1929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1930년대	1931 민족 말살 통치, 한인애국단, 브나로드 운동, 만주사변 1932 이봉창 의거, 윤봉길의거 1937 중일전쟁 1938 국가 총동원령, 지원병제, 조선의용대 조직 1939 국민 징용령
1940년대	1940 임시 정부 충칭으로 이주, 한국광복군 1941 대일 선전 포고, 조소앙의 삼균주의 1942 조선어 학회 사건, 조선 의용대-> 한국 광복군 합류 1943 지원병제, 여자 정신 근로령, 카이로 선언 1944 조선 건국 동맹 1945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제 2차 세계대전 종결, 광복

◈ 현대

광복 이후 ~장면내각	1945 광복,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946 제 1차 미소공동 위원회, 이승만의 정읍발언, 좌우합작 운동 1947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 좌우합작 위원회 해산 1948 제주 4.3사건, 남북 협상, 5.10 총선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헌헌법, 반민족 행위 특별법 제정 1949 농지 개혁법 제정 1950 6.25전쟁 1952 발췌개헌 1953 휴전 협정 체결 1954 사사오입 1960 3.15부정선거, 4.19 혁명
박정희 정부	1961 5.16 군사정변 1962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1964 베트남 파경, 6.3 시위 1965 한일협정 1969 3선 개헌 1970 새마을 운동, 경부 고속도로 개통, 전태일 분신사건 1972 7.4남북공동 성명, 10월 유신 1977 수출 100억불 달성 1979 YH 무역사건, 부산&마산 민주화 운동, 10.26사태
전두환 정부	1980 5.18 민주화 운동 1987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4.13호헌조치, 6월 민주화 운동, 6.29민주화 선언
노태우 정부	1988 서울올림픽 1991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김영삼 정부	1993 금융 실명제 1996 OECD 가입 1997 외환 위기
김대중 정부	1998 금광산 관광 시작 2000 제 1차 남북 정상 회담, 6.15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	2007 제 2차 남북 정상 회담
이명박 정부	2010 G20정상회담 개최

<출처>

출처_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감은사지, 경천사지, 고구려 현무도, 금강전도, 금관, 금동대향로, 능산리 고분군, 다보탑, 미인도, 무령왕릉, 부석사, 분청사기, 서산 용현리 마애 여래 삼존상, 석가탑, 석촌동 무덤, 성덕대왕신종, 쌍봉사, 월정사,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인왕제색도, 장군총, 정림사지 5층 석탑, 천마도, 청자 상감 운학무늬, 청화백자, 하남 철불, 해인사 장경판전

사진(출처): 가락바퀴 (살아있는 한국사), 각저총 씨름도(네이버블로그_성림원북스), 거친무늬 거울(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경주 분황사(지식백과), 거푸집(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고사관수도(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고인돌(지도와 함께 떠나는 한국사 여행), 관촉사(한국민족문화대백과), 다호리붓(문화재청), 대동여지도(한국 미의 재발견-한국문화), 농경무늬 청동기(국립중앙박물관), 까치와 호랑이(한국데이터진흥원), 금제 관장식(지식백과), 금산사 미륵전(doopedia.co.kr),독무덤(네이버 블로그-K의 설레발), 명도전(국립중앙박물관), 몽유도원도(한국미의 재발견-회화), 무용총 수렵도(네이버 포토뉴스), 무위사 극락전(신정일의 새로쓰는 택리지9 우리산하), 미송리식 토기(한국미의 재발견-선사유물과 유적), 민무늬 토기(doopedia.co.kr), 반달돌칼(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반량전(문화콘텐츠 닷컴), 비파형 동검(지도와 함께 떠나는 역사여행), 빗살무늬 토기(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산수무늬 벽돌(네이버 블로그_심상섭 역사포토 갤러리), 서당(wikimedia), 움집(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연가 7년명 금동 여래입상(국립 중앙박물관), 오수전(네이버 블로그_Learnig.room), 세형동검(돌도끼에서 우리별 3호까지),원각사지 10층 석탑(한국민족문화대백과), 진묘수(네이버 포토뉴스), 주먹도끼(국립중앙 박물관), 천마총(네이버 블로그_ 가지런히), 첨성대(네이버 포스트_ 아울북and을파소), 판갑옷과 투구(국립중앙박물관), 팔상전(한국사전연구사 한국불교 미술대전), 화엄사 각황전(한국사전연구소한국불교미술대전), 황룡사 9층목탑(문화컨텐츠 닷컴)